

DJDI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정체성 인식에 관한 지역별 사례조사

한상헌 · 지남석 · 유병선 · 김강우
정선기 · 김창수 · 임재현

연구진

- | | |
|------|-------------------------|
| 연구책임 | • 한상헌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 공동연구 | • 지남석 / 도시기반연구실 연구위원 |
| 공동연구 | • 유병선 /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 공동연구 | • 김강우 / 기획조정실 초빙연구원 |
| 공동연구 | • 정선기 /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 공동연구 | • 김창수 / 도시문화연구소 대표 |
| 공동연구 | • 임재현 /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 연구보조 | • 오은혜 /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

- 목 차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3
제2절. 이론적 논의	6
1. 도시 정체성(urban identity)	6
2. 도시 주민과 정체성	8
3. 도시 정체성의 구성 요소	11
4. 도시 정체성의 형성	13
제3절. 연구 방법	17
1. 기본 방향	17
2. 개념적 접근	18
3. 연구방법	20
제2장. 선행 연구 검토와 조사 지역의 특성	25
제1절. 지역정체성에 관한 기존 연구와 조사	27
1. 도시 정체성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	27
2. 대전시 도시정체성에 관한 최근 조사 자료	38
제2절. 조사 지역의 지리적 현황과 특성	46
1. 연구대상지역 개요	46

2. 지역별 공간적 특성	51
3. 인구의 변화와 이동	60
제3장. 지역민의 도시정체성 인식 수준	67
제1절 대흥동·선화동·은행동 지역	69
1. 과거의 기억 속에 나타나는 지역정체성	69
2.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지역정체성	75
3. 대전의 미래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	82
제2절 대동·자양동·신인동 지역	87
1. 지역적 특성	87
2. 과거 기억속의 동네 모습	88
3. 거주민이 인식하는 현재의 동네 모습	93
4. 거주민이 바라는 동네 모습	100
제3절 궁동·어은동·신성동 지역	106
1. 거주민의 생각과 삶	106
2. 대전 도시정체성에 대한 인식	112
제4장. 결론	119
참 고 문 헌	124

<표 차례>

[표 1-1] 도시정체성의 세 측면	8
[표 2-1] 연구대상지역 개요	48
[표 2-2] 용도지역 현황(대동·자양동·신인동)	48
[표 2-3] 용도지역 현황(대흥동·선화동·은행동)	49
[표 2-4] 용도지역 현황(궁동·어은동·신성동)	50
[표 2-5] 시설물 분포 현황(대동·자양동·신인동)	53
[표 2-6] 시설물 분포 현황(대흥동·선화동·은행동)	55
[표 2-7] 시설물 분포 현황(궁동·어은동·신성동)	59
[표 2-8]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이동(2005-2015년)	65
[표 2-9]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이동(2005-2015년)	65
[표 2-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이동(2005-2015년)	66

<그림 차례>

[그림 1-1] 정체성 형성 모델	15
[그림 1-2] 지역별 특성	21
[그림 2-1] 대전 유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와 이주 사유	38
[그림 2-2] 대전의 도시 이미지	39
[그림 2-3] 대전 사람의 이미지	39
[그림 2-4] 대전의 현재 도시이미지	40
[그림 2-5] 대전의 향후 도시 이미지	41

[그림 2-6] 대전의 현재 도시이미지(거주/비거주)	42
[그림 2-7] 대전의 향후 도시이미지(거주/비거주)	42
[그림 2-8] 대전시민으로서의 자부심	43
[그림 2-9] 대전 시민의 행복감	44
[그림 2-10] 대전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	45
[그림 2-11] 대전의 지역 특성별 권역 구분	46
[그림 2-12] 연구대상지역 위치도	47
[그림 2-13] 용도지역 현황(대동·자양동·신인동)	49
[그림 2-14] 용도지역 현황(대흥동·선화동·은행동)	50
[그림 2-15] 용도지역 현황(궁동·어은동·신성동)	51
[그림 2-16] 시설물 분포도(대동·자양동·신인동)	53
[그림 2-17] 시설물 분포도(대흥동·선화동·은행동)	55
[그림 2-18] 은행선화동 지역의 문화자원	56
[그림 2-19] 대흥동, 선화동 지역의 문화 자원	57
[그림 2-20]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 내 어은동, 신성동, 궁동	58
[그림 2-21] 시설물 분포도(궁동·어은동·신성동)	59
[그림 2-22] 대동의 인구 및 가구변화	60
[그림 2-23] 자양동의 인구 및 가구변화	61
[그림 2-24] 신인동의 인구 및 가구변화	61
[그림 2-25] 은행선화동의 인구 및 가구변화	62
[그림 2-26] 대흥동의 인구 및 가구변화	63
[그림 2-27] 신성동의 인구 및 가구변화	63
[그림 2-28] 온천2동의 인구 및 가구변화	64

제 1 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이론적 논의

제3절. 연구방법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최근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 현상은 지역적으로 대부분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과 물리적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도시 환경의 변화는 단순히 소음, 수질, 대기, 에너지, 교통 등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의 물리적 기반뿐만 아니라, 도시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부각되는 도시의 이미지와 정체성의 보존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새롭게 들어서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KFC 같은 다국적 기업의 분점과 거대 쇼핑몰은 대부분의 도시에서 경관 구성의 새로운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시민의 쇼핑몰에서 소비하는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열린 공간을 이용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도시환경의 변화는 도시 정체성의 중요한 요소인, 시민의 생활양식을 변화시키고, 그 효과는 소비의 영역에만 제한되지 않으며,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이 결합하여 새로운 도시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구조가 변하고, 점점 더 균일화되면서, 도시 문화의 다양성과 자부심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이행기의 도시에서, 경제적, 재정적 이유는 도시구조의 품질과 도시의 상속받은 가치시스템을 위협하고, 도시정체성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변화시키고 있다. 예컨대, 도시의 발전 방안은 빈번히 도시 건축과 구조이 지역적 차별을 없애고, 도시의 역사적 유산과 의미를 약화시켜, 도시 문화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침식시키는 ‘장소상실’ (placelessness)의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Kaymaz 2013).

도시 정체성이 ‘도시환경에 대한 인간의 이해와 결합되어 있고, 그들의 가치시스템에 상응하는 집단의 정신적 과정’ 이라면 도시정체성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그러한 도시의 환경은 인간의 욕구와 가치를 반영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Stojkov 2012), 그런 점에서 도시 정체성은 역동적인 개념이며, 물리적, 시각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이해될 수 있다. 도시의 ‘물적 형식과 구조’, ‘역사적, 정신적 상징’, ‘랜드마크’, ‘자연 요소’, ‘지리적 위치’, ‘경제 활동’ 등이 도시정체성의 구성요소지만, 도시 정체성의 손실은 곧 삶의 장소에 대한 집단적 소속감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풍부한 유산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는 대부분 다층적인 정체성을 품고 있으며, 그 각층은 각기 상이한 자원 또는 가치와 상징적 관계를 가진다(Kaymaz 2013). 그런 점에서 고정된 정체성 개념은 오늘날 활기차게 계속 변하고, 진화하는 다원적 문화 도시의 현실에는 잘 맞지 않는다. 역사적 유산의 가치를 품은 측면을 보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바로 그러한 문화적 유산에 대한 다원적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체성이란 해석과 상징을 통해서 재구성되는 것이며, ‘고정된 정체성’은 ‘보존되거나 보호된 정체성’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전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급속하게 성장한 신흥 대도시이며, 2016년 5월 현재 인구 151만 명을 상회하는 국내 5번째 도시규모를 자랑한다. 또한, 애초 넓은 평야지역에 경부선 개통과 함께 철도역이 조성되면서 시작된 도시 형성의 역사는, 각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다양한 인구구성과 급속한 도시 성장의 역동성을 동시에 초래했다. 특히, 대전은 경부선 개통(1905), 도청이전(1932), 대덕연구단지 조성(1973~1992), 계룡대 이전(1989~1993)과 자운대 조성(1992), 대전엑스포 개최(1993), 정부3청사 이전(1997), 세종시 조성 등 중앙정부 차원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도시의 형성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전은 외적 요인에 의해 추동된 도시의 형성 과정과 인구 구성의 다양성이 도시의 ‘가독성’(legibility)을 약화시키고, 일관된 이미지와 정체성의 형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¹⁾ 그간 ‘교통’, ‘행정’, ‘군사’, ‘과학’ 등 다양한 개념들이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symbol)으로 거론되어 왔으나, 실제 주민들의 생활양식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해석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도시 활성화에 유

1) Lynch(1960)에 따르면, 가독성(legibility)은 도시의 정체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그는 가독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를 ‘가시성’(visibility), ‘일관성’(coherence), ‘명료성’(clarity)으로 구분하고, 도시를 형성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Kaymaz 2013).

용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그간 대전은 지난 한 세기 동안의 도시의 성장사가 제대로 연구·발굴되지 않아, 이미 일부 민속지적 자원들이 사장되고 있어, 도시 정체성 강화를 위한 민속지적 조사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 특성에 대한 민속지적 연구는 지역사회의 물적 기반, 사회 구조, 주민의 인식, 상징 구조, 인구 특성 등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보여준다는 장점을 가지며, 도시 정체성 정립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 지역의 지역별 사회·공간적 특성과 거주민의 생활양식(milieus) 특성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도시정체성 정립을 위한 학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조사 대상지역을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초래된 ‘낙후지역’ (원도심), ‘개발지역’ (신도심), ‘연구단지지역’ (유성) 등 특성이 서로 다른 세 지역을 구분하고, 그중 대표적인 지역을 선별·조사하여 상이한 주민의식과 집단별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대전광역시의 도시 공간별 특성에 따른 사회적 변천사와 생활 공동체에 대한 풍부한 스토리를 제공하여, 향후 도시정체성 구성을 위한 풍부한 기초 자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2절. 이론적 논의

1. 도시 정체성(urban identity)

정체성 개념은 심리학, 철학, 사회학, 인문지리학, 인류학 등과 같은 다양한 학문 분과의 주요한 연구 주제이며, 광범위한 문맥(context)을 가지고 있다.²⁾ 그 용어는 사회과학에서 개인적 정체성, 정치적 정체성, 민족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 장소 정체성 등과 같이 상이한 관점과 목적에 따라, 사람이나 사물의 ‘독특성’ (uniqueness)을 기술하는데 이용된다.³⁾ Gleason(1983)에 따르면, 이 용어는 1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1950년대 중반까지, 정체성은 철학자들에 의해, ‘자아의 통일성’ (the unity of the self)을 기술하는데 사용되었다(Kaymaz, 2013).

도시정체성 개념은 ‘도시’ (urban)와 ‘정체성’ (identity)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도시는 ‘그 도시’ (that of city)를 지시하고, ‘정체성’ (identity)은 그 도시에 결합되어 있는 독특성을 가리킨다(Sonal, 2014). 독특성이란 곧 인간의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 구성되며, 따라서 사회 또는 공동체의 가치시스템에 의해서 규정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역으로 주민들의 적응방식과 실천이 물리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면서, 끊임없이 주민과 생활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정체성이 사회적 삶의 과정에서 구성된다는 사실에 동의하더라도,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대해서 그런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열려있다(Castells 2001). 특히 개인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집단적 정체성을 구성하며, 사물 또는 환경에 대한 의미를 규정하고, 스스로를 그 정체성의

2) 정체성 개념은 흔히 ‘언어’, ‘문화’, ‘소수·다수’, ‘차이점’, ‘개성’, ‘소속감’ 등 삶의 과정에서 표출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연관된 것으로 인식된다(Kaymaz 2013)

3) 정체성이란 단어는 라틴어의 ‘identitas’ 로부터 온 것인데, Oxford English Dictionary는 ‘어떤 또는 무슨 사람 또는 사물이 되는 사실’ 이라고 정의한다.

상징적인 내용과 동일시한다(Castells, 2015). 따라서 정체성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 또는 형성되는 대상 또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역으로 구성원들의 정신적 의미를 규정하는 주체적 행위자로서 작동한다. 다시 말해서,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상징적으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 (meaning)라고 정의한다면, 정체성은 이러한 의미를 조직한다(Sonal, 2014).

대부분의 사회적 행위자들에게 의미는 ‘주요 정체성’ (primary identity)에 의해서 조직되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지속성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규정하는 일종의 ‘집단적 정체성’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 정체성으로서 ‘도시 정체성’ 은 도시환경에 대한 실천적인 해석·이해와 분리될 수 없으며, 사회적 가치 시스템에 상응하여, 통합되는 일종의 정신적 과정이다. 그런 점에서 도시정체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이며,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 문화적 인성과 프로파일을 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도시정체성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개인 또는 집단의 정체성과 연관된 ‘주요 정체성’ 이다.

결국, 도시정체성은 ‘문화’, ‘자연’, ‘지리적 위치’, ‘경제’ 등 다양한 요소에 의존하지만, 여러 요인들 중의 주요한 하나 또는 다수의 조합에 기초한다. 만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문화’, ‘자연’, ‘경제’ 가 조화를 이룰 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시정체성에는 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다양하게 조합될수록 더욱 더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Stojkov, 2012). [표 1-1]은 도시성(urbanity)이 포함하는 물리적, 시각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영역을 나타내며, 이 각 요소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관여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표 1-1] 도시정체성의 제 측면(Sonal, 2014)

물리적	시각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위치와 구성	건축 유산	공동체	생산과 자원조달	참여, 자부심과 정체성	행정부
물리적 환경	건축물 스타일	사회적 상호작용	생계와 고용	기억과 투사	정의
하부구조 수준	색과 특징	젠더와 세대	-	오락과 창조성	자유 의 느낌
-	거리 경험	소속감	-	신념과 의미	충성심
		안전			

2. 도시 주민과 정체성

도시정체성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사람들의 정체성은 도시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은 욕구와 선호에 따라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치와 정체성을 실현한다(Haapala, 2002). 그러므로 도시와 주민의 일체감, 자신들의 삶의 장소에 대한 집단적 소속감, 즉 집단적 정체성은 도시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개인은 집단이나 장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며, 도시와 장소에 대한 경험은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Oktay, 2006:2). 도시의 공간을 구성하는 ‘구조’와 ‘건축’은 도시의 경관과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투자와 관광객을 유인하고, 거주 매력과 주민의 자긍심을 높인다. 그러나 도시발전을 추동하는 ‘단순한’ 경제적 투자는 도시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세계화된 경제의 획일적인 생산과 소비 패턴은 도시 환경을 ‘글로벌 문화’의 산물로 만들 수 있으며, 지역사회는 세계화가 초래하는 문화적 균질화와 생활양식(milieus)의 변화를 조심해야만 한다.⁴⁾

첫째, 건축유산은 도시환경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측면 중 하나다. 도시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변하고, 발전하며, 건축유산은 이러한 역사적 변화를 반영하는 중요한 유산이다. 그것은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스토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시민과 방문객에게 상징적 의미를 제공한다. 즉, 도시의 건물과 구조는 내포된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과거의 스토리를 말해준다.

건축유산은 도시정체성의 뚜렷한 지표로 설정되어야 하며, 건축 유산의 보존은 지속가능한 도시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오래된’ 모든 건축물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다. 기대했던 것보다 빠르게 개발되는 도시의 환경은 마지막 남아있는 ‘공지’마저 잠식하고 있으며, 이제 새롭게 어떤 것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건축 환경을 재구조화하고, 재조직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서 서 있다. 그런 점에서 도시 보존을 위한 실천이 지형적으로 표준화된 도시 경관을 창출하면 장소정체성에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제 도시 정체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과연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둘째, 사람과 장소의 감정적 유대를 가진다(Chow & Healey 2008). 사람이 장소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적 유대는 다면적이고, 복잡한 현상이며, 단순히 장소에 대한 애착과 느낌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지식, 신념, 행위, 상호작용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다.⁵⁾ 왜냐하면 사람들은 장소에 대한 느낌뿐만 아니라, 신념과 기억도 가지고 있으며, 특정 장소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Milligan(1998)은 사람과 공간과의 감정적 유대는, 사람과 장소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사람이 장소에 부여하는 ‘의미’ (meaning)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도시와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적·인지적 반응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발생한다(Riley, 1992). 따라서 경험은 인간과 장소의 유대를 발전시키는 핵

4) 도시 경관의 균질화는 세계화 과정의 분명하고 우려스런 결과다. 세계적 브랜드는 어디에나 있고, 그들의 생산물을 팔거나, 소개하거나,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점을 내는 곳에는 어디에나 독특한 건축 패턴, 간판 등을 초래한다(Kaymaz, 2013).

5) Scannell & Gifford(2010)는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을 ‘공간의 수준, 특이성의 정도, 장소의 사회적 또는 물리적 특징 등의 관점에서 변하게 되고, 그리고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심리과정을 통해서 표출되는 개인(또는 집단)과 장소 사이의 유대’ 라고 정의한다.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III) ■

심적인 행위이며, 체험하는 경험의 강도, 지속성, 내용, 결과 등은 장소에 대한 개인의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Kaymaz(2013)의 주장처럼, 만일 특정 장소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애착의 정도가 그 장소가 사람들에게 주는 생리적·정신적 욕구의 충족 정도에 의존한다면, 장소에 대한 유대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경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장기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적으로 형성되는 의미와 감정을 전제로 한다. 그런 점에서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장소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적 애착이란 바로 그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의미와 경험에 기초한다고 주장한다.⁶⁾

‘장소에 대한 애착’(place attachment)이 단순히 개인적 수준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집단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장소의 의미는 단순히 개인의 경험과 기억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집단적인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장소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Scannell & Gifford(2010)는 (1) 감정(감성적 연결), (2) 인지(기억, 신념, 의미와 지식), (3) 행위(행동을 통해서 표현되는 애착) 등의 세 요소가 ‘장소에 대한 애착’을 초래하는 심리적 과정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셋째, 정체성을 어떤 안정적인 구성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역동적인 현상이다. 도시정체성의 변화는 가치시스템의 역동성에 의존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적, 문화적 추동력에 의해서 초래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는 경제적 투자와 관광을 유인하려고 노력하고, 경제적 성취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의 공간적 매력을 구성하고, 새로움을 추가한다. 그러나 성급한 경제적 시각은 시장의 도구적 논리에 의해 여타의 의미가 있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들을 배제시키고, 일방향의 도시화를 초래하기 쉽다. 이미 많은 도시에서 경제적, 재정적 논리는 상속받은 도시의 문화나 자연의 외관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⁷⁾

6) 예컨대, ‘집’(home) 일반적으로 안전과 안락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 ‘집과 같은 곳은 없다’(there is no place like home)거나 ‘집 편안한 집’(home sweet home)과 같은 표현은 긍정적 인 감정과 의미를 가진 장소로서 집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을 보여준다(Kaymaz 2013).

7) 전환기의 도시는 매우 민감한 위치에 있어, 실질적인 재정적 성과가 도시 정책적 사안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에 자칫 도시의 문화나 자연의 외관을 해치는 방향으로 성과위주의 성급한 도시개발이 전개될 위험성이 있다(Kaymaz, 2013).

도시의 매력을 살리고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 문화와 가치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새로운 도시발전 개념’, ‘창의적인 도시재생 방식’이 필요하다. 도시의 역사·문화적 유산이나 자원은 도시의 매력을 살리고, 정체성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고, 관광객과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도시개발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자연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이 조합된 균형 잡힌 도시개발은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투자와 관광을 유인하며, 도시 주민의 자부심을 고양하고, 경제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의 역사·문화적 유산이나 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그에 조화되는 새로운 건축이나 구조물의 조성은 도시의 정체성 강화에 유의한 전략이 될 수 있다.⁸⁾

3. 도시 정체성의 구성 요소

도시의 정체성은 사람들에 생활과정 통해서 구성되는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이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도시정체성’이란 사실은 무엇을 지시하는 것인가? 도시정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실제인가 아니면 일종의 허구적 구성물(fiction)인가? 안정된 도시정체성의 형성이 가능한가?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등 일련의 질문을 제기한다. Stojkov(2012)에 따르면, 도시정체성의 형성에는 다음과 같은 구성적 측면이 포함된다.

- ① 도시정체성은 도시를 ‘무엇인가’(what it is) 또는 ‘무엇으로 보이게’(what it seems to be) 만드는 일련의 특성들로 구성된다.
- ② 집단적 인식으로서 도시정체성은 ‘교육’, ‘정보’, ‘인지’의 상승에 의

8) 도시정체성은 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경제적 자원 사이의 상호 연계의 품질(quality)과 적절성(pertinence)에 의존한다(Kaymaz, 2013).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해서 형성되고, 발전할 수 있다.

- ③ 도시정체성을 형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발전의 자원으로 잘 보존되고 유지되는 ‘자연적’, ‘문화적’ 자산에 경제적인 의미와 힘을 부여하는 것이다.
- ④ 도시정체성은 사람들이 인지 또는 인식하는 만큼 존재한다.

도시의 정체성을 인식하는데 ‘사물이나 사람의 독특성’, ‘사물과 사람간의 비교’, ‘타인과의 상호작용’, ‘의미와 경험’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의 유산과 가치의 관리와 보존은 정체성 구성에 중요한 측면이며, 정책결정자는 ‘자연’, ‘문화’(건축유산, 예술, 음식, 전통 경축행사, 원규와 관습), ‘경제’의 복잡한 상호 연관 시스템을 고려하면서 도시 정체성 전략을 만들어야 하며,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은 그것을 주민들의 활동적인 참여를 통해서 수행해야만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4개 요소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유지되어야 한다(Stojkov, 2012).

- ① 마을 또는 도시 내외 주위의 ‘자연’과 지리적 요소, 즉 ‘물’, ‘흙’, ‘나무’, ‘기후’ 등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② 마을 또는 도시를 다른 마을 또는 지역과 구별 짓는 ‘스토리’, ‘사회구조’, ‘문화적 전통’, ‘역사’, ‘건축 스타일’ 등의 요소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 ③ 마을 또는 도시의 ‘경제구조’, ‘생산’, ‘자원의 사용 양식’, ‘하부구조’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 ④ 이상에서 언급된 세 요소 사이의 관계를 통합적 방식으로 다루고, 지역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마을 또는 도시의 경제적 활동은 그 지역의 자원에 의존해야 하고, 잘 형성된 경관과 문화적 유산과 자원의 이용은 주민들의 활동과 더 나은 경쟁력을 위해서 사

용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속된 문화유산과 자원의 보호는 자연자원의 보존과 더불어 엄격한 규정에 의해서, 즉 보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자원으로 도시의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만 한다. 이는 마을 또는 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경제적’ 요소가 통일적으로 조합되어 지속가능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때 비로소 기대할 수 있고, 성취될 수 있다.

4. 도시 정체성의 형성

대부분의 대도시는 다양한 모습을 가진, 다수 지역 단위의 프로파일을 형성하면서, 다채로운 정체성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도시의 다양한 복합적 구조에서 도시 전체가 아니라, 도시의 일부와 일치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즉, 도시 사람들은 지역 단위의 물리적, 또는 자연적 밀류(milieus)⁹⁾와 감정적, 사회적 유대를 구축하고, 자신들이 인식하거나 이해하는 어떤 요소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도시의 일부분에 대한 미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미지는 대체로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는 역사적 유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도시정체성 구성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이러한 도시의 다양성을 어떻게 발전적 장점으로 변환시키는 것이다.

도시의 다양성이 양립 가능한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바꾸는 데 야기되는 어려움은 어떤 ‘변화’ (changes), ‘변환’ (transformations), ‘재구성’ (reconstructions) 하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보수적인 반응을 하거나 반대한다는 점이다. 대도시의 도시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과제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람과 유의미한 요소들의 다양한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 이다(Stojkov, 2012). 도시의 지속가능한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조화의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

9) 사전적 의미로 밀류(milieus)는 ‘문화적 생활환경’을 의미하지만, 사회학적으로 비슷한 생활양식, 가치선호,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사회적 집단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Frey(2012)는 도시 공간에서 밀류는 특정한 물리적 생활권과 관련된 사회 문화적 집단이며, ‘사람’ (Personen), ‘장소’ (Orten), ‘사물’ (Dingen)의 결합으로 생성된다고 주장한다(정선기,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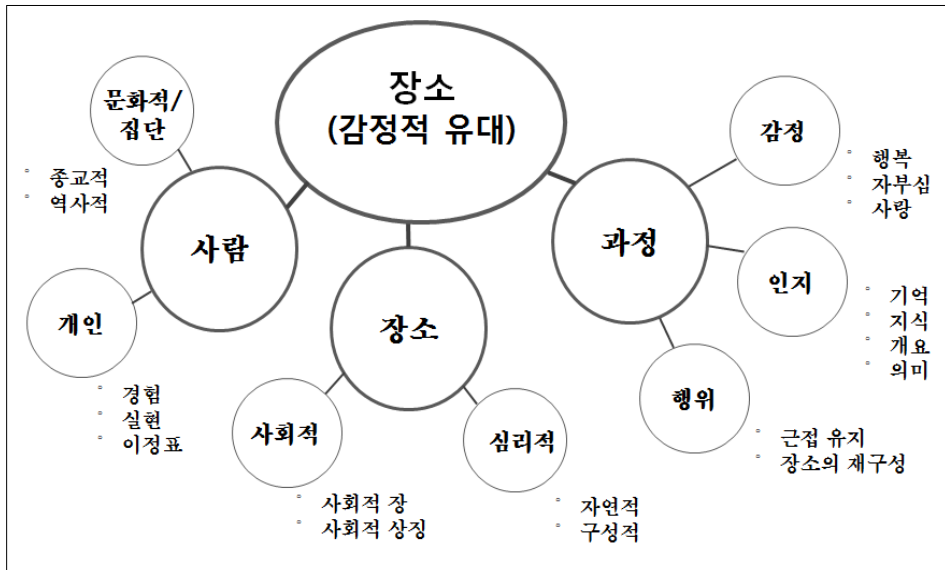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에, 작은 지역 단위의 특성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이상의 복합적인 도시 전체의 정체성으로 상승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 단위의 다양한 정체성을 전체적으로 상호 연관된 복합적 정체성 시스템으로 승화시키는 전략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그림1>은 도시의 지역별 장소에 따른 정체성 형성 요소를 보여준다. 장소의 정체성은 장소에 대한 느낌과 이해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그것은 개인적 ‘경험’과 주관적 ‘인식’의 차원을 포함한다. ‘장소’는 그 자체가 복잡한 개념이며, 장소의 동학은 사람들의 활동과 의사소통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의 정체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 지역의 자연적 또는 건축된 환경의 물리적 구성 요소, 조직, 특성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인지되고, 해석된 ‘장소감’ (sense of place)에 영향을 미친다. Kaymaz(2013)는 ‘가독성’ (legibility), ‘시각적 환경의 인지와 선호’, ‘다수 목적적 행위들의 양립가능성’을 ‘장소감’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한다.

사람은 활동을 실현할 ‘공간’ (space)이 필요하며, 이는 인간의 생존에 핵심적인 요소다. 그러나 우리가 공간에 의미를 부과할 때, 그것은 ‘장소’ (place)가 된다. 즉, ‘장소’는 사회와 개인에 의해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된 ‘공간적 위치’라 할 수 있다(Halpenny, 2010).¹⁰⁾ 장소는 ‘물리적 환경’ (physical setting), ‘활동’ (activity), ‘의미’ (meaning)라는 세 요소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여기에서 ‘의미’는 개인을 물리적 환경과 연결하는 ‘상징적 도구’라 할 수 있다 (Relph, 2008).

10) ‘공간’ (space)과 ‘장소’ (place) 개념은 일상적으로 크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의미 내용의 차이가 있다. 즉, ‘공간’은 관념적 복합체를 의미하는 개념이며, ‘장소’는 공간을 정의하고, 그것에 기하학적 특성을 부여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Kaymaz, 2013).



[그림 1-1] 정체성 형성 모델 (Scannell & Gifford, 2010)

사람과 물리적 환경 사이의 유대를 설명하는데, 공간과 감정적 유대의 발전이 심리적 유형의 전제조건이다(Kaymaz, 2013). ‘장소 소속감’ (sense of belonging to a place)은 심리적 안녕(웰빙)에 필요하며, 이는 환경과의 관계에 의해서 발전한다. 따라서 정체성의 구성과 관련해서 정책결정자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어떻게 사람과 장소가 상호작용하고, 상호간의 유대를 형성하는 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장소 정체성’ (place identity), ‘장소감’ (sense of belonging), ‘장소애착’ (place attachment) 등의 개념은 인간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들이며,¹¹⁾ 인간과 물리적 환경 사이의 ‘정서적’, ‘인지적’ 관계를 지시한다.

도시는 물리적 구성물일 뿐만 아니라, 인구, 문화, 의미, 제도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구성물이다. 시민은 도시의 기본적인 요소이며, 도시의 물리적 특성과 그 시민 사이에는 항상 상호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시민은 도시를 살리고 기능을 유지하

11) ‘장소애착’ 과 ‘장소정체성’ 개념의 관계는 아직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어떤 연구자는 장소정체성을 장소애착의 한 차원으로 간주하는 반면에, 다른 연구자들은 장소정체성이 장소애착의 형성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한 장소정체성과 장소애착이 두 개의 독립된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다(Kaymaz, 2013).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며, 따라서 건물, 공간, 거리 등 도시의 물리적 차원은 시민의 가치와 선호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 다시 말해서, 도시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삶 사이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며, 그 이미지는 공동체의 ‘경험’, ‘신념’, ‘가치’를 반영한다. 도시는 사람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로서 나타난 인간의 ‘문화적 산물’이며, 동시에 역으로 시민의 생활양식과 정체성을 형성시키는 ‘환경적 조건’이다.¹²⁾

결국, 도시정체성은 ‘개인’, ‘집단’, ‘장소’, ‘환경’ 사이의 ‘상징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Göregenli, 2005).¹³⁾ 도시정체성은 도시에 대한 인지적 반응이며, 그 물리적 및 사회적 특성에 부여한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의미와 소속감은 도시정체성의 인식과 형성에 핵심적이며, 이러한 소속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살기에 적합한 장소를 창출하는 일관성 있는 도시화가 필요하다. 도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정체성’ (identity), ‘구조’ (structure), ‘의미’ (meaning)로 구분한다면, 보다 더 물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앞의 두 요소는 불가피하게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인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정체성의 형성에서 주민의 실천적 또는 감정적 의미가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단순히 도시정체성의 물리적 구성에만 관심을 두고, 사회적 의미의 차원을 간과한다면, 도시는 살기에 적합한 장소로서의 정체성과 감정적 유대를 발전시킬 수 없다. 따라서 도시의 가독성을 높이고,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삶의 ‘공간’ 또는 ‘장소’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과 이해를 포착하여 발굴할 필요가 있다.

12) 정체성은 사람들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복잡한 의식적 및 무의식적 관념, 신념, 선호, 느낌, 가치, 목표, 행위의 경향과 표현의 복잡한 패턴을 규정하는 것이다(Kaymaz, 2013).

13) 도시정체성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결과이며,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원을 포함한다. 그것은 주로 인간 활동에 의해서 구성되고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를 거치면서 발생하고 변화하는, 공동체의 가치, 신념, 상징적 의미를 물려받는다. 따라서 그것은 공동체가 변하고, 생활양식이 변하고, 세계경제가 변함에 따라 변화한다. 도시정체성도 유동적이고, 진화하며, 변화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제3절. 연구 방법

1. 기본 방향

대전은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빠른 변화를 경험하면서, 국제적인 다문화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급속한 세계화의 정책환경 속에서 대전은 도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강화해야 하는 민감한 지점에 와 있다. 지나치게 재정적(경제적) 성과에 치우친 ‘경제주의적’ 접근은 자칫 공동체의 역사적 유산과 문화적 가치를 해칠 수 있고, 반면에 물질 생활기반을 무시한 ‘감상적’ 사고는 시민의 생활 편익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살기 좋은 장소’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소속감에 의해서 형성된다(제1장 2절).

도시정체성은 감정적 유대와 집단적 소속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다. 150만 이상의 인구 규모로 성장한 광역대도시 대전은 이미 다양한 지역적 정체성과 상이한 집단별 특성을 도시 내에 가지고 있다. 장소가 경험한 역사적 문화적 경험에 따라, 그리고 그곳에 살아 온 집단의 특성에 따라, 지역별 주민의 장소에 대한 감정적 유대와 정서적 소속감은 상이할 수 있고, 이러한 지역별 정체성의 다양성은 대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소이자 동시에 구성적 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의 도시정체성 연구의 한 작업으로 (1)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역사적, 문화적, 공간적으로 상이한 특성을 가진 지역(장소) 단위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2)각 지역(장소)별 특성에 따른 주민(공동체)의 상이한 경험과 생활양식(milieus)¹⁴⁾의 차이를 조사하여, (3)지역(장소) 단위 주민의 주관적 인식, 정서적 소속감, 집단별 정체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4)대전의 도시정체성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발굴·제공하여,

14) 사전적으로 ‘밀류’ (milieus)는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 계급의 환경을 의미한다. 도시사회학에서는 밀류(Milieus)를 장소(place)와 사회구조의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며, 장소로서 ‘공간’ (Raum)은 ‘물리적 장소’ + ‘상징적 공간’의 의미를 가진다. 결국, ‘밀류’란 ‘사람’, ‘장소’, ‘사물’이 결합되어, 도시적 ‘공간’으로 배열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도시 지역(urban areas) 그 자체보다 ‘도시와 사람간의 관계’, 그리고 그 공간적 특성, 즉 ‘사회-공간적 밀류’ (sozial-raumliche Milieus)에 대해 관심을 둔다.

향후 도시정체성 연구와 구성을 위한 정책적 전략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¹⁵⁾

2. 개념적 접근

도시(urbanity)

도시는 지리적 영토뿐만 아니라, 인구와 경제구조를 통해서 그 특징이 나타난다. 그것은 한편으로 도시적 삶과 생활양식(Lebensstil)의 물적 기초이며, 다른 한편으로 물적 대상과 사람들이 상호작용하는 점점(node)으로서 장소의 ‘공간적·사회적’ 구성체다. 따라서 도시는 물리적 환경으로서 ‘장소’와 정신적 구성물로서 ‘정체성’이 결합된 구체적인 실체로서 인식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서 도시는 단순히 ‘물리적 차원’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식된 ‘상징적 차원’의 존재로서 존재한다. 도시는 상징적인 의미를 매개로 해서만 정체성이 확인되고, 존재한다.

도시정체성(urban identity)

도시정체성은 물리적 공간(장소)으로서 도시 지역 그 자체가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다. 자연, 문화, 경제는 도시정체성의 형성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그 조화로운 결합은 도시의 매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사람과 장소는 상호작용으로 연결되어 있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장소에 대

15)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도시의 계획과 정책적 개입에 사회적, 심리적 차원의 의제가 고려되어야만 한다. 살기 좋은 장소를 창조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잘 이해·해석해야만 하는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일관성’, ‘변화’, ‘다양성’의 손실을 초래하는 ‘실수’를 너무 뒤늦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세계화와 도시화 과정에 대해 비난을 하지만, 우리는 또한 변화에 걸 맞는 계획과 정책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Kaymaz, 2013).

한 감정적 유대'를 발전시키며, 장소와 자신을 일치시키는 도시정체성을 갖게 된다. 도시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욕구와 가치를 반영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담지한다. 따라서 도시정체성은 아름답고, 사람들이 일하면서 살아가는 각별한 장소를 창출하고, 문화적 유산을 존중하고, 자긍심이 강한 공동체 환경을 먹고 자란다.

시민성(civiness)

'시민성'으로서 '시빌리티' (civility)와 '시빅니스' (civicness) 개념적 차이가 있다. 전자가 '관용', '자기절제', 상호존중' 등과 같은 개별 시민의 미덕과 예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개념이라면, 후자는 개인적인 차원의 미덕이 아닌, '시빌리티'를 제고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나 구성 과정에 대해 관심을 둔다. 따라서 '시빅니스'로서 시민성은 '사회적 제도의 질', '공적 영역과 담론', '시빌리티를 촉진하고 재생산하는 방식' 등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Evers, 2008).

'시민성' 연구는 '사회자본' (social capital) 개념에 관심을 둔다. 여기에서 사회자본이란 흔히 마을, 도시, 또는 국가와 같은 공동체의 '시민성' (civicness)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¹⁶⁾ 그에 따르면 사회자본의 소유 정도는 '공동체에서 단체 활동과 참여 행위의 수준'과 같으며, 따라서 '신문구독', '자원적 결사체의 참여', '정부에 대한 신뢰' 등과 같은 지표로 측정된다. 이처럼 사회자본은 '개별 행위자', '다수 행위자들', '집단' 사이의 관계에 기초하기 때문에 '시민성' 연구를 위한 주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된다.

사회자본의 측정 지표로서 '시민참여'가 '신뢰' (trust) 개념과 연결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Putnam, 2000). 첫째, 자원적 결사는 어떤 이해(관심)와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개인들을 묶는다. 둘째, 이러한 개체들(entities)은 같은 마음을 가진 (like-minded) 참여자들에 의해서 창출된 공유 자원을 가진다. 셋째, 그에 대한 참여는 공유 자원에 접근하고, 그것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해주며, 그 성원과 집단에게

16) 이러한 접근방법의 대표적인 주창자는 Putnam(1993)이다. 그는 사회자본을 '연결망', '규범', '신뢰' 등과 같이 '상호이익을 위한 행위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조직의 특성'으로 본다.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이익을 제공한다. 결국, 공유한 자원의 더 큰 유사성이 구성원 사이의 더 큰 동료애(homophily)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러한 유사성과 동료애는 공동체의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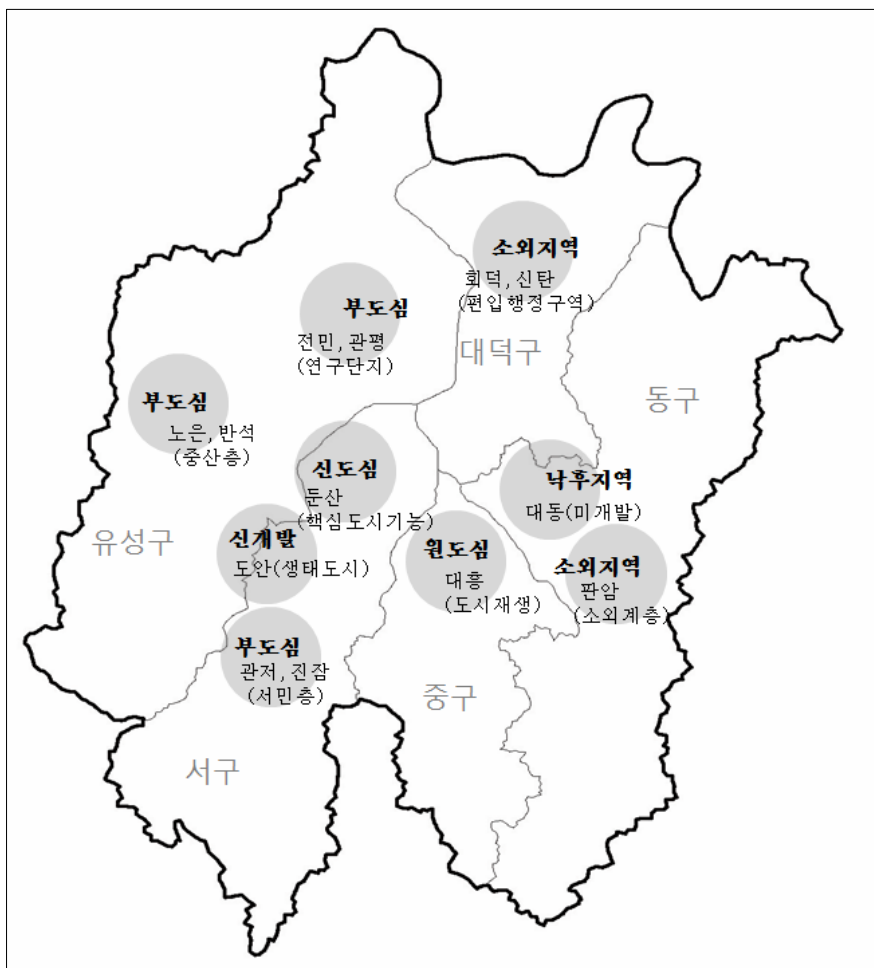
1) 조사대상

대전광역시의 지역별 특성은 도심과의 관계와 개발의 정도에 따라 크게 ‘원도심’, ‘신도심’, ‘부도심’, ‘낙후지역’, ‘소외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그림 1-2] 참조). 첫째, ‘원도심’ 지역은 현재 ‘중양로’ 주변의 지역으로, 처음 도시의 형성기에 중심지로 개발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 신도심이 개발되고 도심이 재편되면서 점차 쇠락하기 시작한 대흥동, 선화동, 은행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대전시가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에 힘을 쓰고 있는 대흥동 지역과 대동을 중심으로 한 낙후지역으로 구분된다.

둘째, 부도심 ‘노은, 반석’은 ‘둔산’의 신도심 개발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주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지역으로 주로 중산층을 위한 중대형 중심의 아파트가 공급되었다. 주로 이전에 ‘둔산’과 ‘전민’, ‘신성’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이 이주하여 왔기 때문에, 새로운 중산층 거주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지리적으로 북쪽의 관문이며, 세종시와도 가깝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부 행복도시 근무자들도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있다. ‘관저, 진잠’ 지역은 1990년대 신도심 조성과 함께 개발된 지역으로, 서민층 중심의 주거지역을 형성하면서, 도시성장의 초기부터 호남의 관문으로 독립적인 공동체로 발전하였다.

셋째, 지리적으로 원도심(대흥)과 인접해 있지만 거의 개발이 되지 않아서 옛 모

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대동’ 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역으로 전통적인 공동체적 특성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자영업을 해 왔거나, 원도심 중앙시장에서 오랜 동안 장사를 해오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들어 조금씩 부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주택지역도 형성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여전히 미개발된 낙후지역으로 남아있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성을 가진 흥미로운 도시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1-2] 지역별 특성

2) 접근방법

대전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급속하게 성장한 신흥도시이며, 지역적으로 원도심, 신도심, 부도심, 연구단지 등 생활권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여주는 지역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150만 이상의 다양한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정체성도 어떤 결정적인 하나의 요소로 규정되기보다 다채롭게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전의 도시정체성을 발굴·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첫째, 생활권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별 정체성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크게 ‘원도심’ (도시재생), ‘낙후지역’ (서민층), ‘부도심’ (중산층) 등 3개 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각 지역별 특성에 따른 정체성 구성요소를 발굴한다.

둘째, 문헌적 접근을 통해서 지역의 지리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주민들의 생활경험과 인식에 대한 민속지적 구술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공동체 밀류(milieus) 특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1) 도시 재생 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흥’ (원도심) 지역과 (2)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으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제적, 문화적 소외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동’ (낙후) 지역의 현황과 변화과정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그리고 (3) 그동안 대전의 정체성을 상징한다고 간주되고 있는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견인하고, 대학 및 연구단지 종사자가 밀집 거주하고 있는 ‘부도심’ 지역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우선 문헌연구는, 국내의 지역 정체성에 관한 연구를 간략히 개괄하고, 기존의 지역에 대한 문헌 자료와 DB 검토, 인터넷 자료 검색 등을 통해 기초적인 지역별 현황과 실태를 파악한다. 특히 대전시에서 발간한 문건과 대전발전연구원의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하고, ‘대전사회지표’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대전의 지역별 통계적 특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한다.

➤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다음으로 경험적 조사연구는, 우선, 세대별, 직업별 등 사회집단별 특성별로 접근하여, 향후 후속 연구와 결합한 입체적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분석하되, 타깃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지역의 변천사와 사라져가는 스토리를 발굴하여 기록한다. 타깃 집단의 선정은 외부에 유입된 인구를 포함해서,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별·집단별 특성과 생생한 생활사 스토리를 조사·발굴한다.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와 조사 지역의 특성

제1절. 지역정체성에 관한 기존 연구와 조사

제2절. 조사 지역의 지리적 현황과 특성

제1절. 지역정체성에 관한 기존 연구와 조사

1. 도시 정체성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

도시정체성 정립을 위한 연구는 지역학이라는 일반적 논의를 다룬 것부터, 도시정체성을 정책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실증적 연구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를 통한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제안 연구들이 다뤄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 가운데 도시정체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참고하여야 할 작업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1) 도시 이미지, 도시 브랜드, 도시공간구조 연구

○ 김주원 (2003) :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물리적 성장만을 지향하여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특색을 찾아 지역정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원주시를 사례로 지역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지역정체성, 즉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연경관, 역사 및 문화적 자원을 살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역정체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랜드 마크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 권창기, 이재호 (2004) : 도시이미지, 도시공간 및 이용계획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봐야할지 알아보기 위해, 울산시를 사례로 선정하여 주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적조사의 결과를 통해 시민의 욕구(대중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교통 활성화, 문화공간 확보 등)를 면밀히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 이정훈 외 (2007) : 도시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도시 브랜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일반적인 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도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은 논리적, 전략적, 창의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매우 고도화된 작업이다. 효과적인 도시 브랜드 개발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고, 도시 마케팅과 관련된 정책 활동들을 장려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도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방향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도시 브랜드를 통해 성립된 도시정체성은 꾸준한 개발과 실천을 통해 하나의 브랜드 자산으로 여겨 꾸준히 관리할 것을 제안한다.

○ 공은미 외 (2009) : 진주시 도시공간구조 변화과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간구문론(Space Syntax)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진주시 토지이용계획과 도심기능의 변화를 상호관련지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진주시 도시공간구조의 면적은 확산되었으나 도심기능은 선적으로 확산되어 발전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공간구조와 도심기능이 서로 부합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킬 필요성을 제안한다.

○ 신예철 외 (2011) :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해 도시정체성과 도시브랜드가 외부적으로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경기도 이외 시민들이 인지하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대한 도시정체성과 도시브랜드를 네 가지(전략적 도시브랜딩 경영 추진, 도시브랜드의 개선 필요, 도시이미지 개선 및 도시정체성 정립, 도시정체성 파악 및 도시브랜드 중점개선)로 유형화하였다. 이 연구를 토대로 경기도 각 시군에 대한 도시정체성과 도시브랜드를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 오장근 (2011) : 서울, 광주, 전주, 안동을 사례로 도시정체성을 서사적인 방식으로 풀어낼 방안을 찾으려는 목적으로, 각 도시의 사례로부터 한국 도시공간의 서사구조 개발을 위한 표준모델을 제시하려 하였다. 먼저 도시공간의 정체성(장소성, 역사성, 공간의 물리적 환경)을 파악한 후, 도시공간의 표상을 인식하고, 도시공간을 미학적으로 인식하며, 도시공간의 서사구조를 개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모델은 도시공간의 문화정체성에 근거하여 구축되고 서사구조를 가진 도시정체성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 윤성원 (2012) : 도시정체성 해석방법과 확립에 관한 연구로, 시간, 지명, 장소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도시정체성을 해석하였다. 도시가 갖고 있는 현재 이미지에 초점을 맞춰 도시정체성이 확립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도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은 찾기 어렵다는 걸 발견하였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과거로부터 보존되어왔던 역사를 곳곳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그것을 도시정체성으로 확보하기 힘들다. 따라서 시간, 지명, 장소라는 기본적인지만 필수적인 관점으로 도시정체성을 찾아본다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것으로 제안한다.

2) 지역학 연구

○ 양기근 외 (2007) : 지역학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경남학의 정립방향을 제시하려 하였다. 국내 지역학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지역학은 지방의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하고, 지역인의 삶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남학 또한 국내 지역학과 같은 흐름으로 발전하였으나 경남학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시대에 따라 사회가 변하는 가운데 특정 분야에만 치중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경남학은 거시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렀다는 점에서 미시적인 측면(경남에 속한 소지역 등)까지 다뤄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 오재환 (2011) : 부산의 역사·문화 등을 통해 부산의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부산학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동안 부산학은 학제적 연구를 통해 정책 대안 및 도시 발전 전략을 제시해왔지만 시민과의 소통 부재 등으로 부산학을 통한 지역정체성이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였다. 지역정체성의 확립과 지역사회의 욕구 충족을 위해 시민 중심형(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부산학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 김은혜 (2013) : 1980년대 이후 에도도쿄학 연구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고 이에 따른 성과들도 나타났다. 에도도쿄학은 도쿄의 도시문화를 재편성하려는 문화정책과 도시재개발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에도도쿄학은 지역학으로서 도쿄의 문화기반 시설들(박물관 등)을 확충시키고, 수변공간을 활성화하는 등 도쿄의 도시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에도도쿄학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중심을 두어 도시정체성과 도시개발에 이바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김학용 (2014) : 이전부터 예학 충절지역으로 알려진 논산시는 최근 잇따른 개발에 따라 문화적 가치를 잃어가는 중이고, 이로 인해 문화적 갈등을 겪는 뿐만 아니라 지역정체성을 정의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역정체성 형성과 문화적 갈등을 해소 방안을 찾고자 논산시 거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논산시 주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적 갈등이 많을수록 정체성 형성이 중요하고, 문화적 갈등이 심화될수록 정체성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역민과 시, 갈등해결전문가 간의 적극적인 상호 협력과 좀 더 체계적인 제도적 차원을 통해 논산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면 문화적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 심재권, 황정희 (2014) : 지역학이 지역정체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역학(천안학)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출신지역에 대한

인식 및 지역정체성에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분석의 결과, 학생들의 출신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만족도, 정보습득정도, 정체성의 수준은 높지 않음. 지역 정체성에 지역학 수업 만족도, 출신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심도, 만족도, 정보습득정도가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학과 지역 정체성과의 관계를 다룬 초기 연구로서 지역학의 역할을 지역정체성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3) 도시·지역 내 지역의 정체성 연구

○ 박세훈, 이영아 (2010) : 조선족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을 사례로 한국의 조선족들이 만드는 공간과 지역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현장 조사 및 심층인터뷰 조사 결과, 가리봉 지역은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배후 주거지로, 공간적으로 낙후되고 고립된 곳이었으나, 조선족들이 정착하면서 자신들의 상업적 서비스 거점으로 변화시켰다. 한국인과의 관계가 밀접하지 않고, 정부로부터의 정책적 지원 또는 장소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가리봉동 지역은 지역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가리봉동 지역의 조선족들의 활발한 상업적 활동은 지역의 활성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예상한다.

○ 이진석 (2010) : 원도심이 갖는 도시정체성과 그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산 원도심(광복동, 남포동, 대청동, 동광동) 중 남포동 현장학습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부산 원도심 현장학습은 부산 원도심의 역사성, 장소성, 그리고 도시정체성을 직접 체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중요한 학습으로, 학생들은 원도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도시정체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원도심 현장학습은 도시정체성의 의미와 중요성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매우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라는 것을 제안한다.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 이아름, 박소현 (2013) : 부산 원도심(중구 광복동, 남포동, 보수동, 영주동, 대청동, 사하구 감천동) 내 지역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된 공공환경개선사업 과정을 살펴보았다. 기존 도시기본계획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된 공공환경개선사업은 외부인에 초점이 맞춰진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지역민의 삶에 중심을 둔 생활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원도심에 해당하는 각 여섯 동은 원도심이라는 하나의 큰 지역정체성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부산의 지역정체성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조일환 (2013) : 화성시의 일부인 동탄 신도시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도시로 인식된다. 화성시의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가 대중매체를 통해 어떻게 형성되었고,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화성시 주민들의 일부는 도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인근 도시와의 행정 구역을 통합하려 애쓰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도시들과의 마찰이 생기면서 도시정체성이 표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한 번 구축된 지역의 이미지는 변화하기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시민뿐만 아니라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제안한다.

4) 사회 기능론적 연구

○ 최병목 (1999) : 인천의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 인천의 시민단체, 공무원, 학생을 대상으로 양적연구를 시행하였다. 공통적으로 인천에 대한 정체성은 세 집단 모두 낮았지만, 인천은 ‘포용력’, ‘선구적 개척정신’, ‘세계의 관문도시’ 등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인구가 유입된 지역으로서 인천은 한 마디로 ‘포용력이 있는 합중시적 다양성을 가진 도시’로 정의할 수 있다. 앞으로 인천은

세계 도시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세계 속의 도시’와 ‘동북아 거점도시’라는 정체성도 추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윤택림 (2008) : 다양한 이주민들로 구성된 신도시에서는 어떤 지역정체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 최초의 신도시인 과천시를 사례로 살펴보았다. 과천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토박인의 삶의 변화와 이주민의 정착 과정을 구술생애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과천 신도시 주민들은 지역정체성을 ‘좋은 환경을 가진 부자 동네’로 공유하고 있지만, 다양한 출신 지역으로 인해 과천 이외의 다른 지역정체성을 가지기도 한다. 이는 그들의 지역정체성이 역사와 문화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토박이와 이주민들의 지역정체성을 통합시킬 수 있는 지역정체성의 형성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 임병조 (2009) : 지역신문은 제도화 과정에 작용하는 요소들 중 하나로, 지역의 구성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지역신문을 통해 ‘제도화’ 과정을 통한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구성 과정을 내포 사례(홍성신문)로 살펴보았다. 홍성신문은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내포’, 또는 ‘내포문화권’과 관련한 지역 이미지를 생산하고, 전파하며, 강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홍성신문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제도화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내포만의 콘텐츠 부족으로 지역신문만으로 그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제한점을 발견하였다.

5) 대전의 도시정체성 연구

대전시 전체를 아우르는 도시정체성 관련 연구

○ 최금애 외 (2004) : 1990년대 이후 대전의 도시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과, 경제적 측면에서 대전은 기존 산업 유형과 새로운 첨단산업의 경제가 공존된 도시이다. 정치적 측면에서 대전은 시민운동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도시 공간적 측면에서 대전은 원도심의 쇠퇴가 진행되는 반면, 둔산과 유성 등 신도심 지역의 발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전의 발전을 위해 대전은 대내외적으로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보인다.

○ 양병창 (2008) : 대전·충남 지역 주민의 지역정체성과 지역에 대한 몰입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대전·충남 지역은 지속적으로 역동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의 지역정체성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에 대한 관심도, 기여도, 헌신도, 참여정도를 통해 지역민의 지역 몰입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대전·충남의 지역의 변화 양상이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보임으로써 좀 더 다양한 지역정체성이 구축된다면, 지역에 대한 몰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 서용모 외 (2010) : 도시 내의 유무형 자원들을 활용한 도시정체성 확립과 도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한 국내외 도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대표적으로 대전의 근현대 역사 건물들은 도시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도시 마케팅 전략으로서 활용하기 좋은 자원이다. 대전은 구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청지원을 지역의 미술활동을 지원하는 창작센터로 활용하고, 구시대 건물을 ‘한밭교육박물관’이란 시설로 변신시켰다. 대전의 이러한 근현대 역사 건물의 활용은 역사 건물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도시 문화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이미지를 제고시켜 도시정체성으로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김기탁 (2011) : 지역연고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프로스포츠와 연관 지어 지역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K리그 D구단의 관람객을 대상으로 양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양적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정체성이 강할수록 해당 지역 연고팀에 대한

정체성이 강화되고, 지역 연고팀에 대한 정체성이 강할수록 경기를 재관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지역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변수가 있을지라도 프로스포츠가 지역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이정수 외 (2011) : 도시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도시디자인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전광역시를 사례로 도시디자인 추진전략 프로세스 모델을 분석 검토하였다. 도시정체성과 그에 걸맞은 도시디자인을 구상하기 위해 도시정체성을 분석, 주민설문조사를 하여 ‘도시다움’을 도출하였다. 대전의 도시정체성으로 교통도시, 친환경도시, 행정도시, 과학도시, 관광도시, 근대도시의 ‘대전다움’이 추출되었고, 대전의 도시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디자인 추진전략 프로젝트를 제안하였다.

○ 박노동 (2014) : 대전광역시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정체성을 활용한 도시발전 전략 방안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도시정체성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대전에 대한 평가, 이미지 및 관심은 대체로 긍정적이고, 응답자들 대부분 ‘과학’과 연관된 대전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문화 향유 기회의 부족 등으로 좀 더 다양한 대전 정체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과학도시’의 미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 주도의 대전 정체성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시된다.

대전 내 지역별 도시정체성 관련 연구

○ 황의창, 여흥구 (2013) : 대전의 원도심(중구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등)과 심도심(서구 둔산동, 삼천동 등)의 토지이용특성을 통해 두 도심 간 기능을 비교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신도심은 주로 생활편의시설이 잘 구비된 계획 개발지로 성장해왔다면, 원도심은 상업판매시설이 대부분 차지하는 지역으로서 소규모 시설 위주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로 분산된 모습을 보였다. 주거비율과 관련하여 원도심이 신도심보다 훨씬 낮았고, 유동인구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었다. 원도심과 신도심의 계획적 도심 기능 특징을 살펴보면, 신도심은 행정, 업무, 판매 및 주거기능이 계획적이고 입체적으로 배분된 반면, 원도심은 상업 및 서비스 기능이 배분되었다. 원도심과 신도심은 전통과 현대라는 각각의 특성과 함께 도시기능적인 공간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원도심과 신도심의 기능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두 도심 간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적인 도심 기능 수행을 위한 대책과 동시에 각 도심의 특화된 기능을 갖춘 계획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 정선기 (2015) : 대전광역시 생활권별로 주민들의 가치지향, 문화향유, 주관적 인식, 계층인식의 어떤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신도심과 원도심간의 생활권에 따른 공간적 불평등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주거공간과 도시공간에 대한 신도심(노은동, 전민동, 관저동 등)과 원도심(판암동, 가양동 등) 사이의 분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도심은 지역적으로 소외되어 정체된 생활권을 보유하고 있고, 신도심의 경우, 새롭게 개발된 주거 장소라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와 상징적 의미가 상승함에 따라 지역적으로 활발한 생활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생활권별로 주민들의 문화향유와 계층 불평등의 차이가 있으며, 공동체를 통일하는데 물리적 공간이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정선기 외 (2014) : 마을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대전의 마을 네 곳(서구 관저동, 중구 석교동, 중촌동, 유성구 전민동)을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각 마을 주민이 갖는 공동체의식의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공동체 조직 및 활동이 지역주민들에게 마을에 대한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개인에 따라 마을 공동체의식은 차이가 있으며, 고령자일수록, 기혼일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마을에 상대적으로 머무는 시간이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거주 속성에 따라 공동체의식의 관계

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거주기간이 길고, 가족 수가 많을수록 마을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높다. 또한 마을을 위한 공동체 활동을 하는 주민일수록 공동체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조직 및 활동의 인지여부에 따라 지역에 따른 공동체의식은 다소 차이가 났는데, 관저동이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석교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정리해본 것처럼 도시정체성 연구는 도시·지역 전체의 정체성부터 도시·지역 내 지역에 대한 정체성까지 연구하는 등 도시·지역정체성을 바라보는 연구의 스펙트럼이 세밀해지고 있으며, 주제 역시 도시정체성의 확립 문제부터 기존의 도시정체성을 변화시키는 방안, 공간구조 변화의 필요성 등 다양하게 고찰되고 있다.

대전의 경우로만 한정하더라도 대전의 도시화 과정부터 시작으로 대전만의 도시 브랜드 수립 방안,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들(지역 연고제 프로스포츠, 근현대 역사건물 등)을 통한 대전시민의 지역정체성 인식, 대전·충남시민의 지역정체성 동일시와 지역에 대한 몰입 등 대전 전체의 도시정체성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전은 주로 ‘과학 중심의’, ‘느긋한’ 등의 성격을 갖는 도시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대전의 도시화 및 공간구조의 변화 과정 속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민이 갖는 도시정체성은 정적인 상태로 유지되면서 대전의 보다 다채로운 정체성이 수립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도시정체성을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틀로서의 대전에 대한 도시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경향과 함께 대전 지역 내의 지역정체성에 중점을 둔 연구들은 미비한 편이다. 대전의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도시 기능에 따른 변화 및 격차 심화에 관련된 연구들이 있으나, 이러한 도심 기능이 각 지역주민들에게 어떠한 지역정체성을 갖게 하는 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만 그친 양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정체성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대전 시민 중심의 지역정체성을 깊이 살펴보기에는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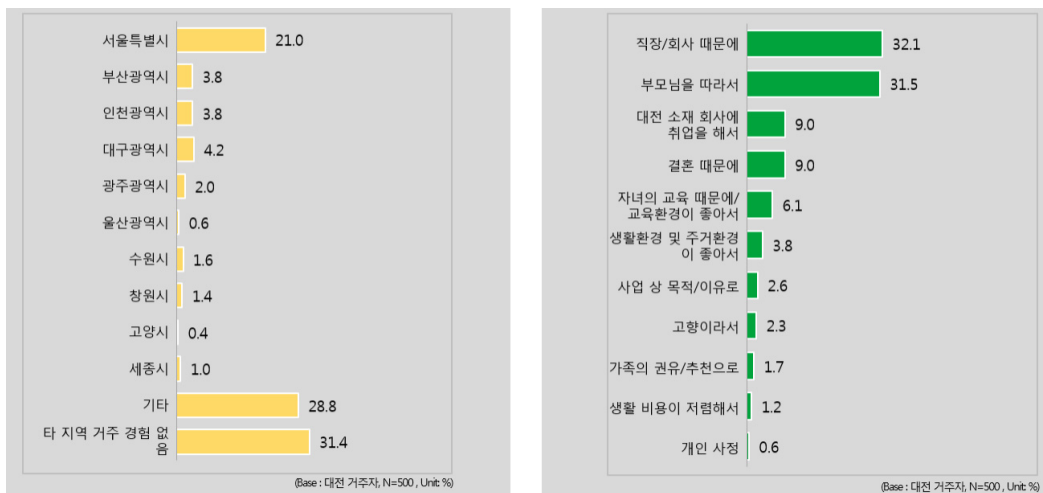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가 따른다.

따라서 대전 자체의 지역정체성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전 내의 각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을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을 찾아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대전 시민이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등, 대전의 각 지역 내 시민들의 거주 지역부터 대전시 전체에 대한 인식수준을 현장 조사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의 실질적 내용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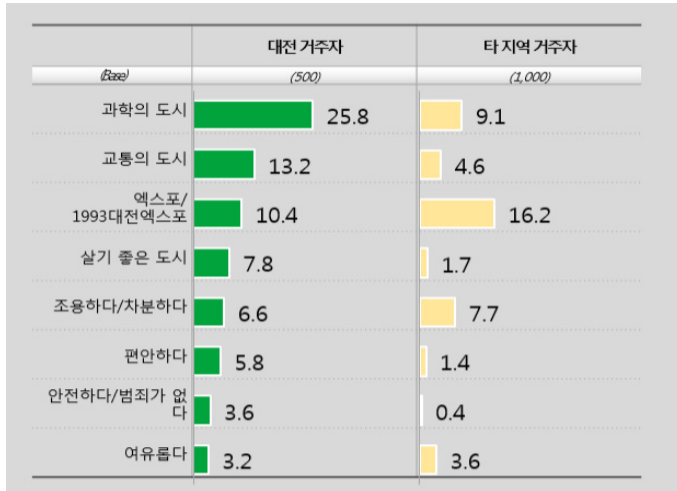
2. 대전시 도시정체성에 관한 최근 조사 자료

대전의 도시정체성에 관해서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16년 1월에 대전의 도시브랜드와 관련해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대전으로 유입된 인구가 이전에 거주하던 곳은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대구와 부산, 인천 등 광역시가 그 뒤를 이었다. 타 지역 거주 경험이 없는 비율은 31.4%였다. 거주 이전의 이유로는 ‘직장과 회사 때문에’, ‘부모님을 따라서’라는 응답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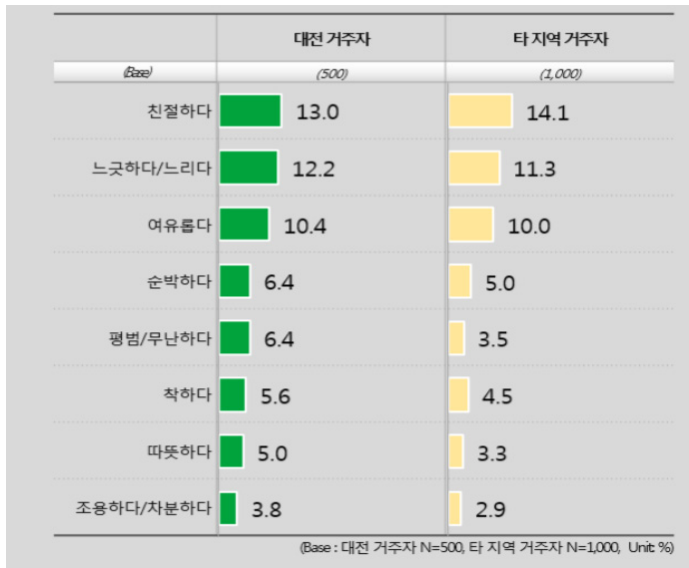


[그림 2-1] 대전 유입 인구의 이전 거주지와 이주 사유(출처: 대전광역시, 2016)

대전 거주자는 대전시를, ‘과학의 도시’, ‘교통의 도시’, ‘엑스포’ 순으로 인식하는 반면 타 지역 거주자는 대전시에 대한 이미지로 ‘엑스포’, ‘과학의 도시’, ‘조용한/차분한’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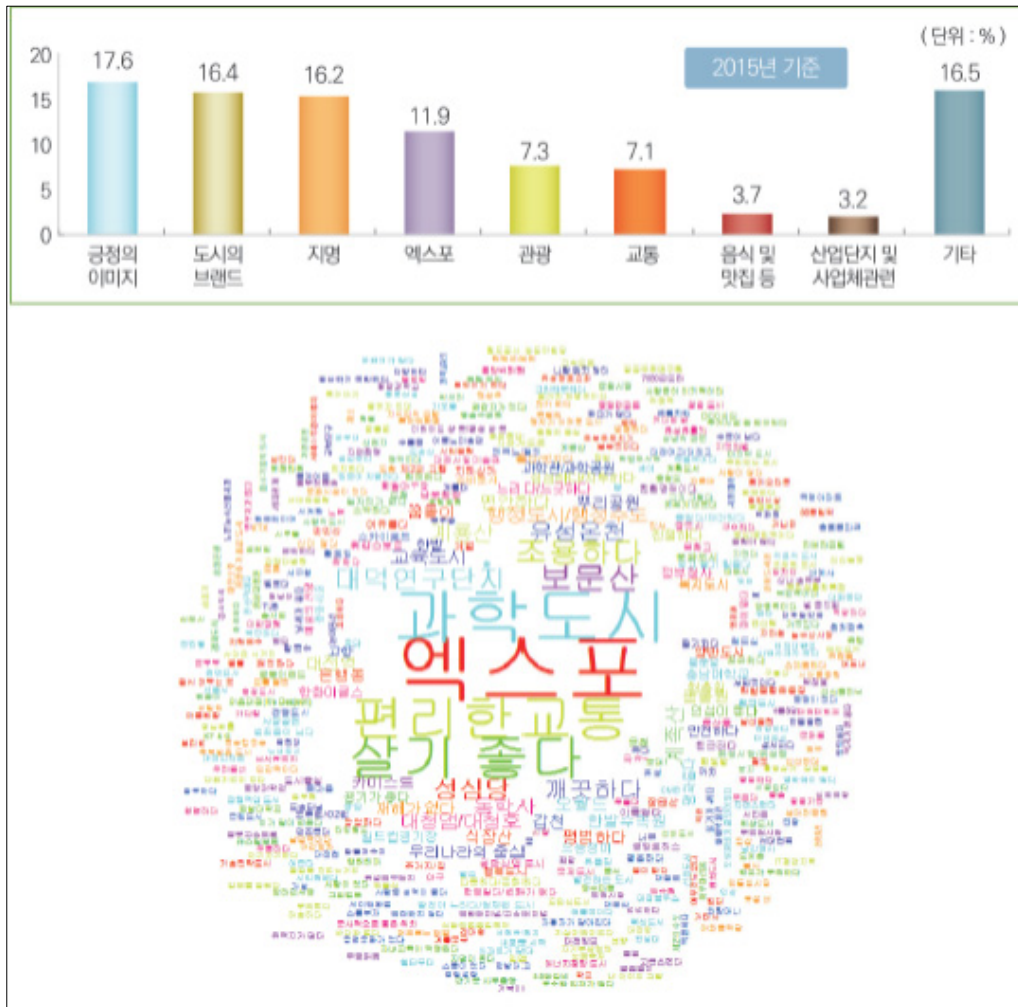
[그림 2-2] 대전의 도시 이미지



[그림 2-3] 대전 사람의 이미지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III) ■

2015년 조사된 대전 사회조사지표는 각 부문별로 대전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공식적인 기초자료이다. 여기에서도 위에 제시된 2016년 대전 도시브랜드 관련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대전시민들은 대전에 대해 살기 좋다, 깨끗하다, 편안하다 등과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과학도시, 교육도시, 행정도시 등 대전을 브랜드화 시킨 응답들이 많았다. 단일 응답으로는 ‘엑스포’를 가장 많이 떠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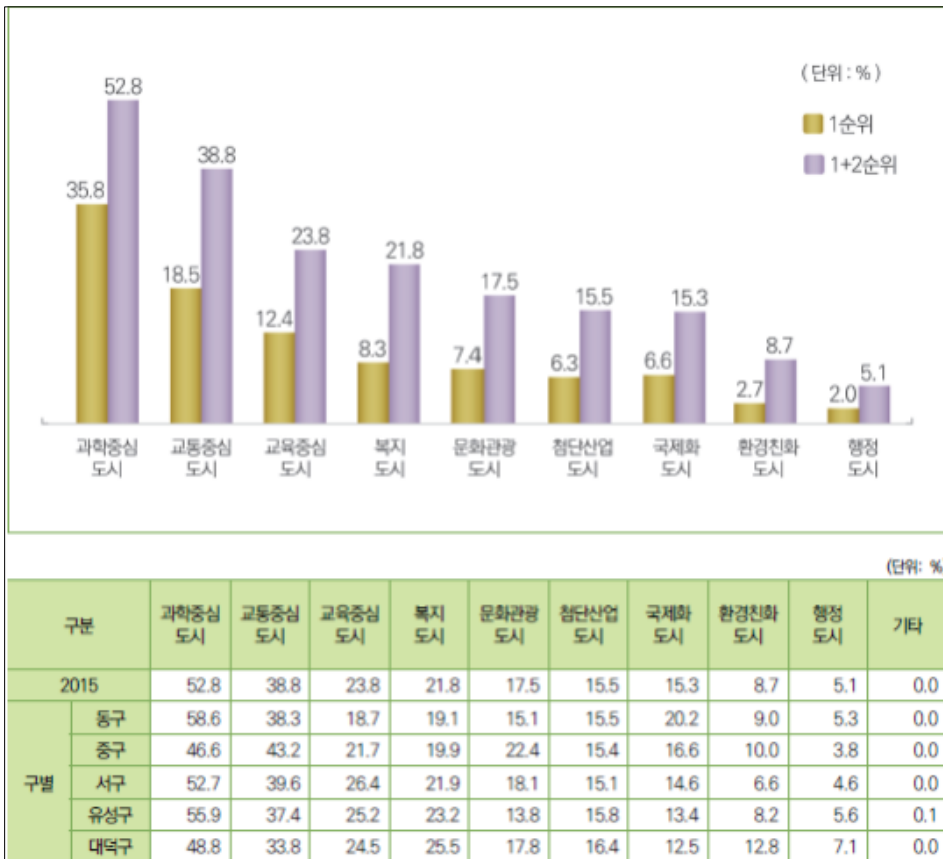


[그림 2-4] 대전의 현재 도시이미지(출처: 대전광역시, 2015)

➤ 제2장 선행 연구 검토와 조사 지역의 특성

향후 대전이 가져야할 도시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은 대전의 도시 이미지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 도시정체성의 인식수준과 연관되는 지표라 할 수 있다. ‘과학중심 도시’ (1+2순위 52.8%, 1순위 35.8%)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교통중심 도시’ (1+2순위 38.8%, 1순위 18.5%), ‘교육중심 도시’ (1+2순위 23.8%, 1순위 12.4%)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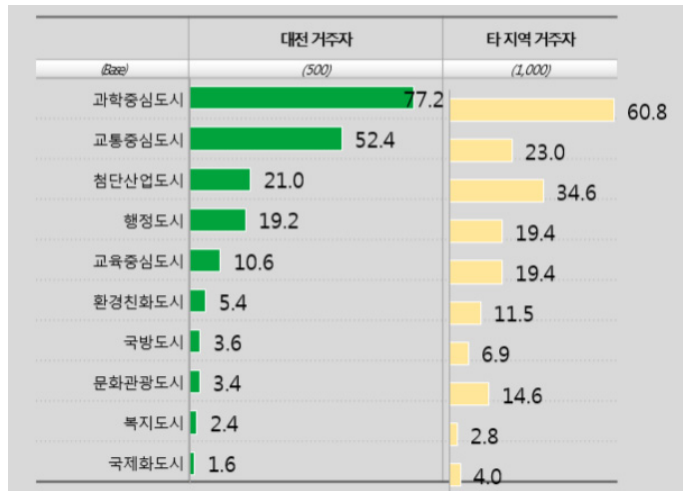
구별로 살펴보면 동구(58.6%)는 ‘과학중심 도시’, 중구(43.2%)는 ‘교통중심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소득별로는 600-700만원 미만에서 ‘교육중심 도시(29.6%)’와 ‘복지도시(29.5%)’의 응답이 특히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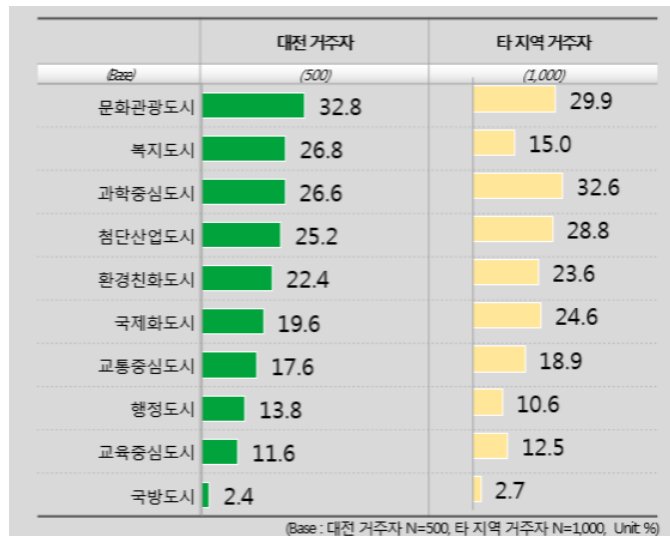
[그림 2-5] 대전의 향후 도시 이미지(출처: 대전광역시, 2015)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III) ■

대전도시브랜드에 관한 2016년 조사에서도 현재 대전시는 ‘과학중심도시’ 이
 미지로 확실히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 거주자는 향후 ‘문화관광도시’ 로 나
 아가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타 지역 거주자는 ‘과학중심도시’ 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전광역시,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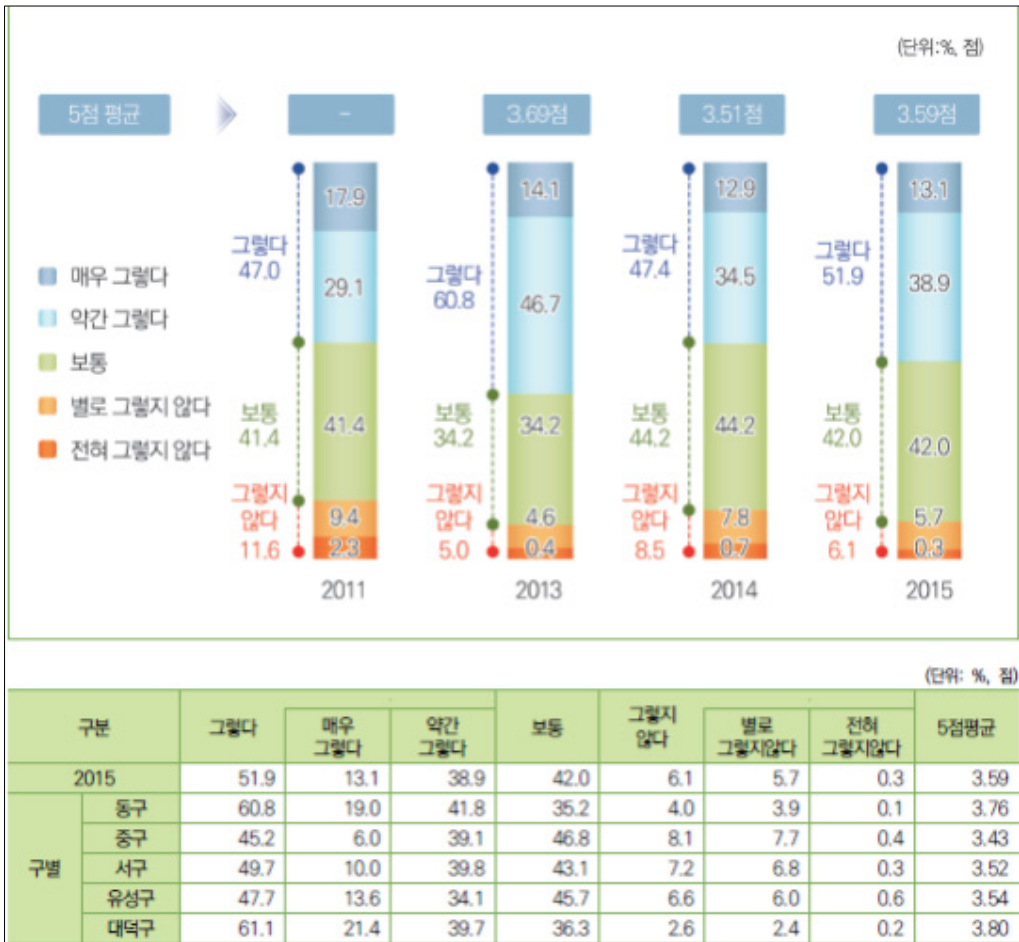
[그림 2-6] 대전의 현재 도시이미지(거주/비거주)



[그림 2-7] 대전의 향후 도시이미지(거주/비거주)

➤ 제2장 선행 연구 검토와 조사 지역의 특성

대전시민이 느끼고 있는 삶의 만족도, 자부심 등은 도시정체성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대전에 대한 인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대전시민의 절반 이상이 대전시민으로서 자부심 느낀다고 답변하였다. 대전시민으로서 자부심은 5점 만점 평균 3.59점으로 “다소 긍정” 보다 높은 “긍정” 수준이며, ‘긍정’ (51.9%)이 ‘부정’ (6.1%)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구별로 ‘긍정’ 응답을 보면, 대덕구(61.1%)와 동구(60.8%)가 높게 나타났으며, 중구(45.2%)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2-8] 대전시민으로서의 자부심(출처: 대전광역시, 2016)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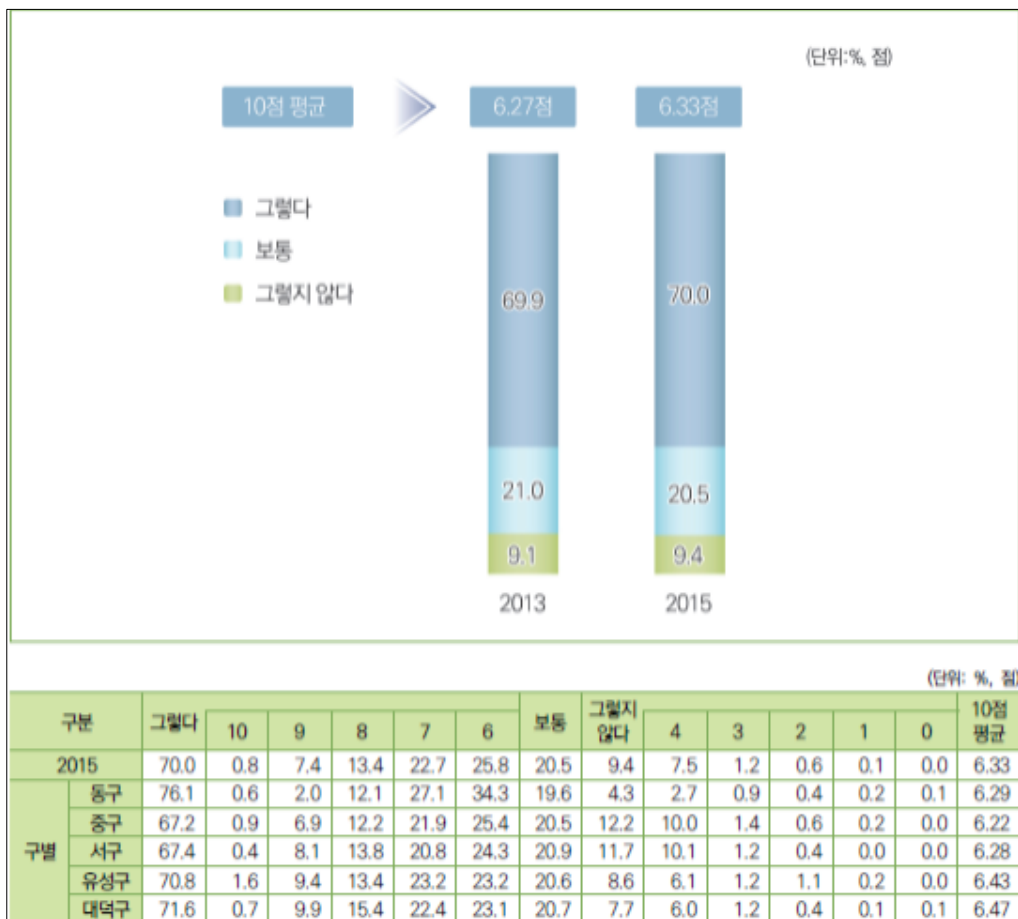
대전시민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정도는 10점 만점 평균 6.57점으로 “다소 그렇다” 수준에 해당하며, ‘그렇다’는 77.0%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8.2%이다. 연령별로는 30대(83.1%)에서 행복을 느끼는 비율이 높으며, 소득별로는 500-600만원 미만(83.2%), 600-700만원 미만(83.0%)에서 행복을 느끼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9] 대전 시민의 행복감(출처: 대전광역시, 2016)

➤ 제2장 선행 연구 검토와 조사 지역의 특성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10점 만점 평균 6.33점으로 “다소 긍정” 수준에 해당하며 ‘그렇다’는 70.0%로 높은 반면, ‘그렇지 않다’는 9.4%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77.2%), 학력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특히 높았으며, 구별로는 동구(76.1%)에서 삶에 대한 만족도가 타 구에 비해 높은 편이다. 소득별로 보면 600-700만원 미만(82.1%)과 500-600만원 미만(79.1%)에서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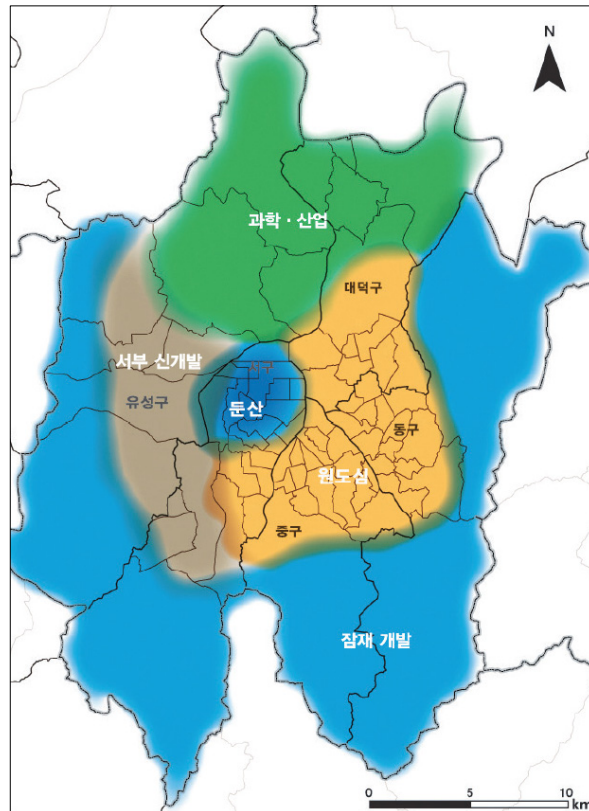
[그림 2-10] 대전 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출처: 대전광역시, 2016)

제2절. 조사 지역의 지리적 현황과 특성

1. 연구대상지역 개요

1) 연구대상지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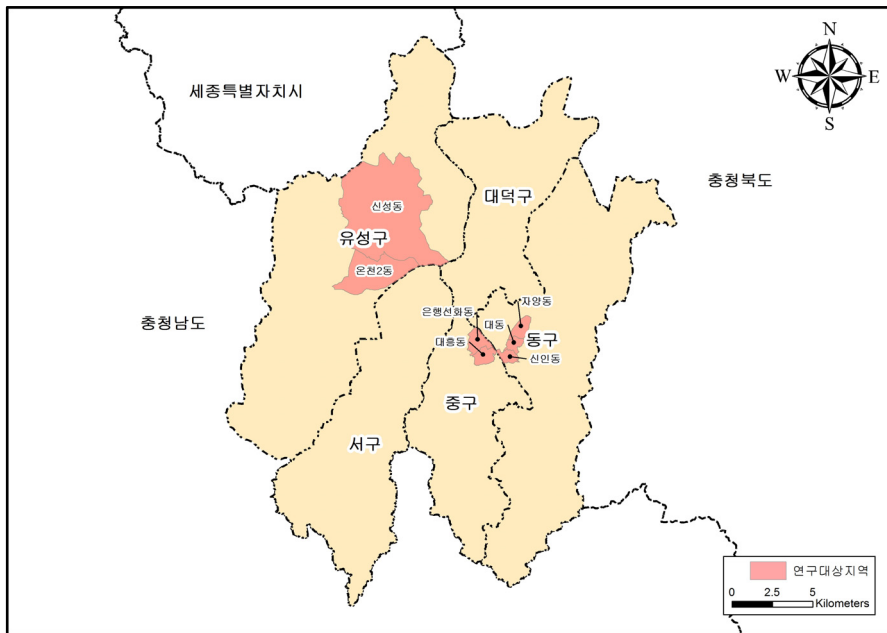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대전의 지역별 특성을 행정구역보다 도심과의 관계와 개발의 정도에 따라 살펴보려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연구에서도 종종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2014 한국지리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2-11] 대전의 지역 특성별 권역 구분

➤ 제2장 선행 연구 검토와 조사 지역의 특성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너무 넓은 지역을 한데 아우르다보니, 긴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어 온 지역별 문화특성과 정체성의 차이를 깊이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보고서의 21쪽 [그림 1-2]의 9개 지역 구분을 기초로 하여 이 가운데 3개 지역을 우선 연구 대상지역을 삼고, 해당 지역별로 대표적인 법정동 3~4개를 골랐다. 우선 원도심 지역은 대흥동과 은행동, 선화동이다. 이와 함께 낙후지역으로 대동과 자양동, 신흥동, 인동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그림 1-2]에서는 부도심을 전민동과 관평동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들 지역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면서 대학까지 위치한 궁동과 어은동, 신성동 지역이 거주민들의 도시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보다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행정동별 기준으로는 궁동과 어은동은 온천 2동¹⁷⁾으로, 은행동과 선화동은 은행·선화동, 신흥동과 인동은 신인동으로 통합되어 있다. 연구대상지역의 대전 내 위치는 다음과 같다.



[그림 2-12] 연구대상지역 위치도

17) 본 연구에서는 유성구 궁동과 어은동을 조사대상지로 하고 있으나, 도시현황 조사에서는 이들 지역을 포함하는 행정동인 ‘온천2동’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2) 연구대상 지역의 기초 현황

연구대상지역의 면적과 인구는 다음과 같다. 신성동이 가장 넓은 면적이며, 인구도 가장 많다. 동구의 3개 동은 면적도 좁고 인구도 적다.

[표 2-1] 연구대상지역 개요

구분		면적(k㎡)	인구(인)	비고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	0.54	13,269	
		자양동	0.84	11,129	
		신인동	0.61	12,942	
		소계	1.99	37,340	
	중구	대흥동	1.20	14,255	
		은행·선화동	1.46	17,736	
		소계	2.66	31,991	
	유성구	신성동	31.14	26,057	
		은천2동	9.02	35,730	궁동, 어은동 포함
		소계	40.16	61,787	

자료: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유성구청(2016.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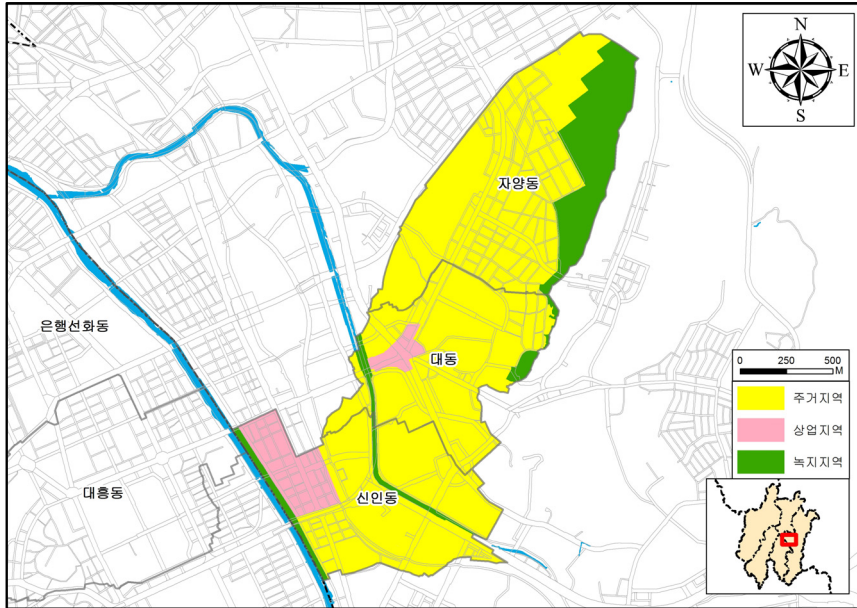
대동, 자양동, 신인동을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은 2.14k㎡로 전체의 80.4%를 차지한다. 상업지역은 0.17k㎡로 전체의 6.4%이며, 동대전로 주변에 지정되어 있다.

[표 2-2] 용도지역 현황(대동·자양동·신인동)

구분	대동		신인동		자양동		합계	
	면적(k㎡)	비율(%)	면적(k㎡)	비율(%)	면적(k㎡)	비율(%)	면적(k㎡)	비율(%)
주거지역	0.65	91.5	0.62	76.5	0.87	76.3	2.14	80.4
상업지역	0.03	4.2	0.14	17.3	-	-	0.17	6.4
공업지역	-	-	-	-	-	-	-	-
녹지지역	0.03	4.2	0.05	6.2	0.27	23.7	0.35	13.2
계	0.71	100.0	0.81	100.0	1.14	100.0	2.66	100.0

자료: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market.nsd.go.kr>)

➤ 제2장 선행 연구 검토와 조사 지역의 특성



[그림 2-13] 용도지역 현황(대동 · 자양동 · 신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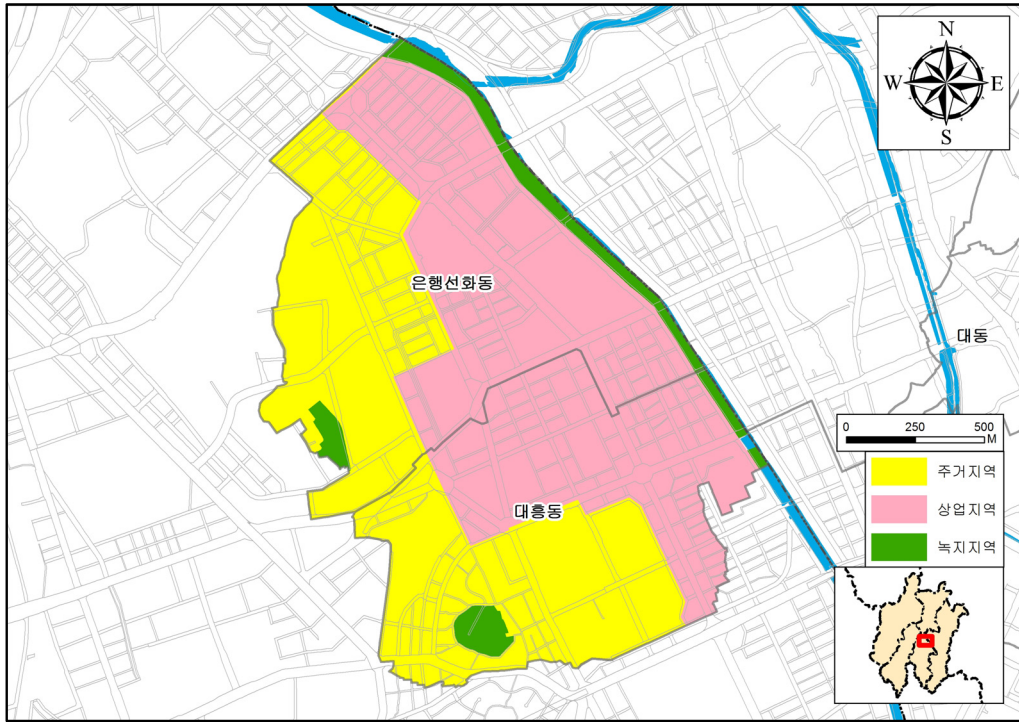
대흥동, 은행 · 선화동을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은 1.15km²로 전체의 44.4%를 차지한다. 상업지역은 1.31km²로 전체의 50.6%이며, 대종로와 중앙로역, 중구청역 주변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2-3] 용도지역 현황(대흥동 · 선화동 · 은행동)

구분	대흥동		은행선화동		합계	
	면적(km ²)	비율(%)	면적(km ²)	비율(%)	면적(km ²)	비율(%)
주거지역	0.57	48.7	0.58	40.9	1.15	44.4
상업지역	0.56	47.9	0.75	52.8	1.31	50.6
공업지역	-	-	-	-	-	-
녹지지역	0.04	3.4	0.09	6.3	0.13	5.0
계	1.17	100.0	1.42	100.0	2.59	100.0

자료: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market.nsd.go.kr>)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II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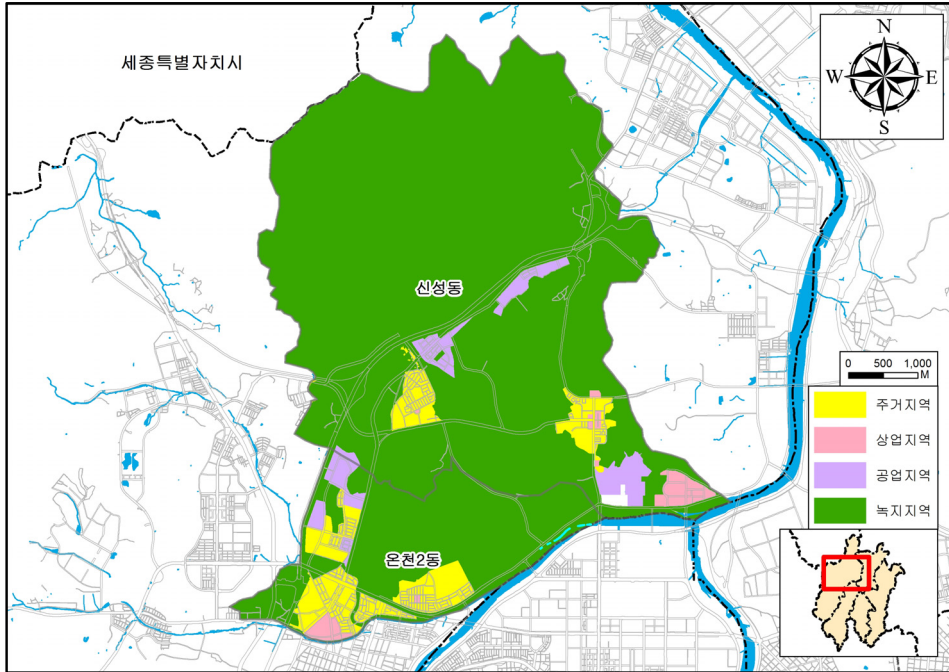
[그림 2-14] 용도지역 현황(대흥동 · 선화동 · 은행동)

궁동과 어은동, 신성동을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은 2.51km²로 전체의 6.8%를 차지한다. 상업지역은 0.5km²로 전체의 1.4%이며, 엑스포과학공원, 유성고속터미널 주변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2-4] 용도지역 현황(궁동 · 어은동 · 신성동)

구분	신성동		온천2동		합계	
	면적(km ²)	비율(%)	면적(km ²)	비율(%)	면적(km ²)	비율(%)
주거지역	0.86	2.9	1.65	21.5	2.51	6.8
상업지역	0.34	1.2	0.16	2.1	0.5	1.4
공업지역	0.85	2.9	0.34	4.4	1.19	3.2
녹지지역	27.2	93.0	5.53	72.0	32.73	88.6
계	29.25	100.0	7.68	100.0	36.93	100.0

자료: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market.nsd.go.kr>)



[그림 2-15] 용도지역 현황(궁동 · 어은동 · 신성동)

2. 지역별 공간적 특성

1) 대동 · 자양동 · 신인동

대전광역시는 1905년 경부선 철도의 대전역 개통을 계기로 대도시로의 발전을 시작하게 되었다. 1914년 대전군이 신설되고 현재의 인동, 원동, 중동, 정동, 삼성동 일원을 중심으로 대전면을 설치하고 원동에 군청을 이전하였다. 이 지역은 원도심의 일원으로 대전광역시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후 대전역 앞 부근인 원동, 중동, 정동 지역에 일본인 상가가 번창하며 일본식 시가를 이루었는데 이러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한 시가는 1912년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폭 5.45m, 길이 70m의 목척교가 가설되자 대전천을 지나 은행동과 선화동으로 확대되었다.(한국지리지, 426쪽)

대동은 대동5거리를 중심으로 한 사통팔달의 명실상부한 대전 동부지역의 교통 중심지이나 대동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 도심으로 그동안 지역개발 사업 미비로 인해 도시기반이 취약하였다. 현재 대전역 동서관통도로와 대전도시철도가 개통되었고, 현재 대전1지구, 대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어 상권 및 주거환경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한 장승제 봉행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주민의 결속이 강한 지역이다.

자양동은 도시계획에 의한 안락한 주거지역으로 우송대학교를 비롯한 8개의 교육기관이 있으며 동구 유일의 공연장인 우송예술회관이 자리하고 있어 지역문화 창달과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학생등 유동인구가 많고 자양로를 중심으로 동쪽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요식업, 유기장업등 각종 서비스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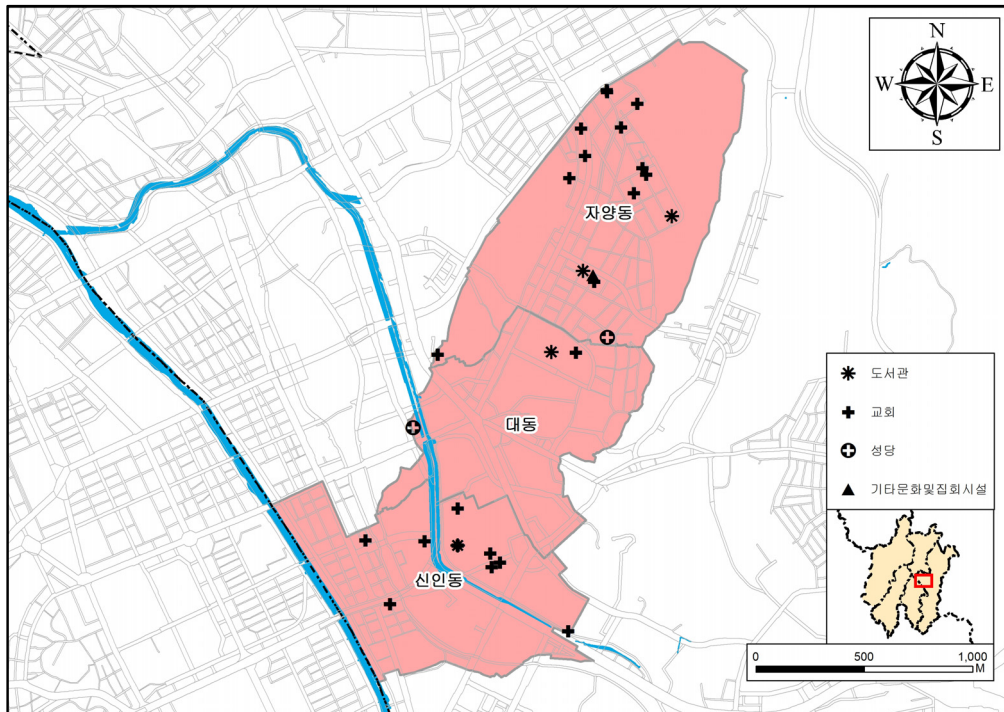
신인동은 2008년 9월 신흥동과 인동이 행정동으로 통합하였다. 대전역에서 남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위치, 경부선 철도개통과 함께 발달한 대전의 발상지이며, 대전 최초의 3.16 독립만세운동의 발원지로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인동쌀시장이 자리하고 있고, 건설건축자재 특화거리가 조성되었다. 시장주변 상권 위축으로 장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에 의한 인동시장의 직거래 장터 운영으로 경제활성화 관심 고조되고 있다.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경부선 고속철도변 정비사업, 동부경찰서 이전이 진행 중이며,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추진 등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기대감도 상승하고 있다.

대동·자양동·신인동에는 도서관 4개소, 교회 23개소, 성당 2개소, 기타문화 및 집회시설 1개소가 분포한다. 자양동에 도서관 및 교회가 상대적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다.

[표 2-5] 시설물 분포 현황(대동 · 자양동 · 신인동)

시설물	자양동		대동		신인동		합계	
	갯수	비율(%)	갯수	비율(%)	갯수	비율(%)	갯수	비율(%)
도서관	2	50.0	1	25.0	1	25.0	4	100.0
교회	13	54.2	1	4.2	9	37.5	24	100.0
성당	1	50.0	1	50.0	-	-	2	100.0
기타문화 집회시설	1	100.0	-	-	-	-	1	100.0

자료: 교회데이터(한국컴퓨터선교회 교회주소, http://kcm.kr/search_address.php)
 성당데이터(한국천주교주소록, <http://directory.cbck.or.kr/OnlineAddress/Default.aspx>)
 도서관, 기타문화집회시설데이터(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http://http://market.nsd.go.kr/>), 새주소건물DB)



[그림 2-16] 시설물 분포도(대동 · 자양동 · 신인동)

2) 대흥동 · 선화동 · 은행동

중앙로 일대는 둔산 신도심으로 도심의 주요 기능이 이전되던 1990년대까지 대전의 행정과 경제의 중심지였다.

그 가운데 대흥동은 원도심의 중심이었다. ‘대흥’이란 이름은 일제강점기에 붙여진 명칭으로, 1920년대 대흥동은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근대 문물의 수용경로인 신시가지를 따라 생활터전을 전통 마을에서 대흥동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인들은 대전역 부근에 그들의 생활터전을 만들어 오다가 선화동과 대흥동으로 확장시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두 문화 세력의 충돌이 대흥동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1920년대에 대흥동은 한국인의 민족의식과 일본인의 정신적 상징, 한국인과 일본인들의 생활적 필요가 함께 만난 합치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변화했던 원도심지역이 서서히 쇠퇴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과거의 상징성을 되찾아 대전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기억하기 위한 움직임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일어나고 있다(한국지리지 440~441쪽).

대흥동은 중구청사가 소재한 동으로 상가, 학교, 병원 등이 밀집해 있고 배후에 비교적 오래된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도심 중심지역에는 으능정이 문화거리와 문화예술의 거리가 있어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가구·오토바이 특화거리와 유명 칼국수 거리 등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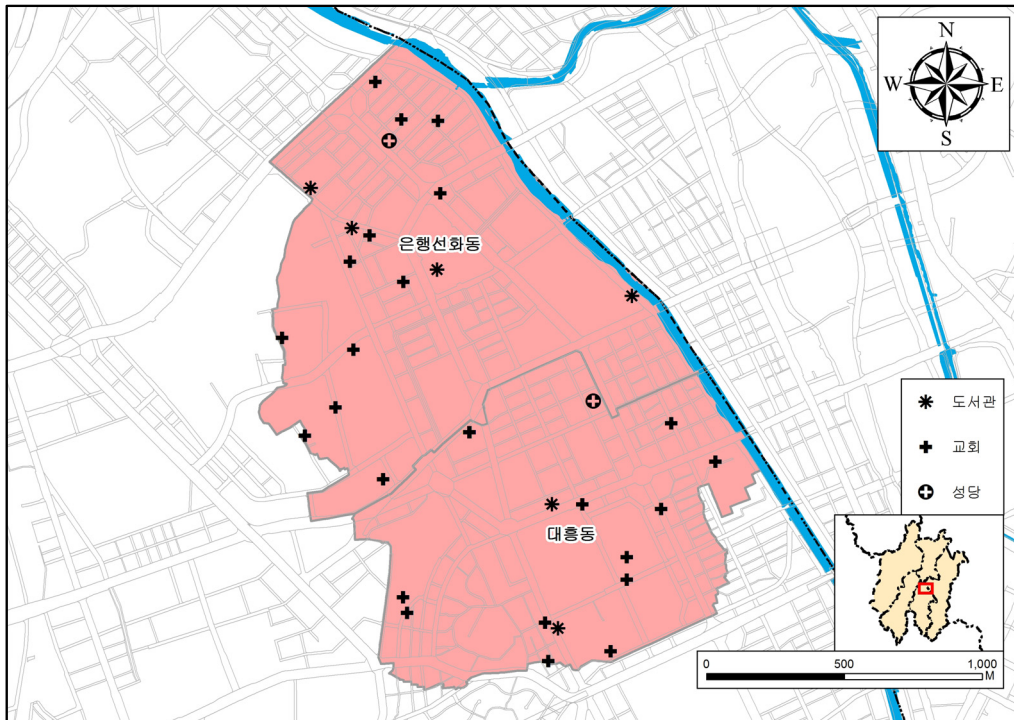
은행·선화동은 주요기관이 위치하고 있어 행정, 문화, 교통의 중심지역이며, 은행동 젊음패션거리, 으능정이 문화거리, 선화동 전문음식특화거리 등 전문화된 특화거리가 있어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등이 많은 상업의 중심 지역이다.

대흥동·선화동·은행동에는 도서관 6개소, 교회 23개소, 성당 2개소가 분포한다. 은행선화동에 도서관, 교회가 상대적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다.

[표 2-6] 시설물 분포 현황(대흥동 · 선화동 · 은행동)

시설물	대흥동		은행선화동		합계	
	갯수	비율(%)	갯수	비율(%)	갯수	비율(%)
도서관	2	33.3	4	66.7	6	100.0
교회	10	43.5	13	56.5	23	100.0
성당	1	50.0	1	50.0	2	100.0

자료: 교회데이터(한국컴퓨터선교회 교회주소, http://kcm.kr/search_address.php)
 성당데이터(한국천주교주소록, <http://directory.cbck.or.kr/OnlineAddress/Default.aspx>)
 도서관데이터(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http://http://market.nsd.go.kr/>), 새주소건물DB)



[그림 2-17] 시설물 분포도(대흥동 · 선화동 · 은행동)

대흥동과 선화동, 은행동은 대전이 도시로 형성되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동안 중심지였기 때문에, 역사적 흔적을 나타내는 근대 문화재가 많다. 이러한 문화유산들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은 최근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의 흐름과 맞물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문화자원들로 지역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18] 은행선화동 지역의 문화자원(출처: 김은성, 2013)

➤ 제2장 선행 연구 검토와 조사 지역의 특성



[그림 2-19] 대흥동, 선화동 지역의 문화 자원(출처: 김은성, 2013)

3) 궁동 · 어은동 · 신성동

궁동과 어은동은 행정동인 온천2동에 구성동, 죽동, 장대동과 함께 속해있다. 서쪽으로는 죽동, 남쪽으로는 봉명동, 남서쪽으로는 장대동, 북쪽으로는 신성동과 접한다.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 연구단지가 위치하여 과학과 교육의 중심지로 인식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지역으로 근교 농업이 성행하고 있다. 중구 은행동, 서구 둔산동과 함께 대전의 변화가로 불린다.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 인근에 있어 젊은이들이 거주, 활동하는 공간이다.

특히 다음 그림과 같이 대덕연구개발 특구가 이 지역들을 관통하고 있어, 과학의 중심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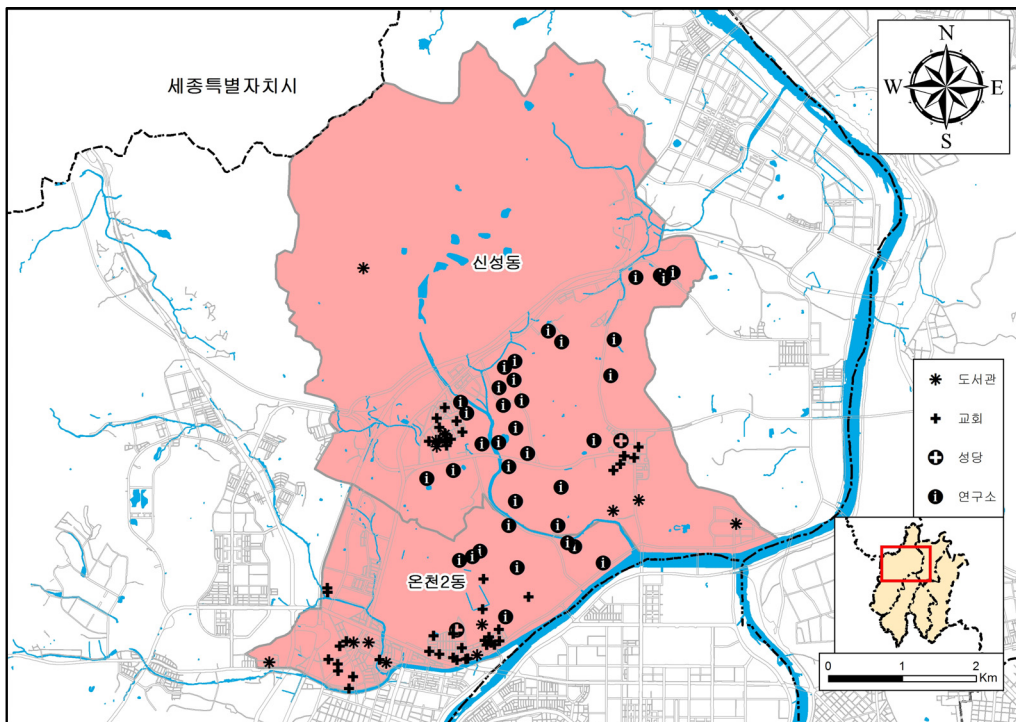
[그림 2-20]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 내 어은동, 신성동, 궁동

궁동 · 어은동 · 신성동에는 도서관 13개소, 교회 49개소, 성당 2개소, 연구소 36개소가 분포한다. 신성동에 도서관, 연구시설이 상대적으로 집중 분포하고 있다.

[표 2-7] 시설물 분포 현황(궁동 · 어은동 · 신성동)

시설물	신성동		은천2동		합계	
	갯수	비율(%)	갯수	비율(%)	갯수	비율(%)
도서관	7	53.8	6	46.2	13	100.0
교회	18	36.7	31	63.3	49	100.0
성당	1	50.0	1	50.0	2	100.0
연구소	27	75.0	9	25.0	36	100.0

자료: 교회데이터(한국컴퓨터선교회 교회주소, http://kcm.kr/search_address.php)
 성당데이터(한국천주교주소록, <http://directory.cbck.or.kr/OnlineAddress/Default.aspx>)
 도서관, 연구소데이터(국가공간정보포털 오픈마켓(<http://market.nsd.go.kr/>), 새주소건물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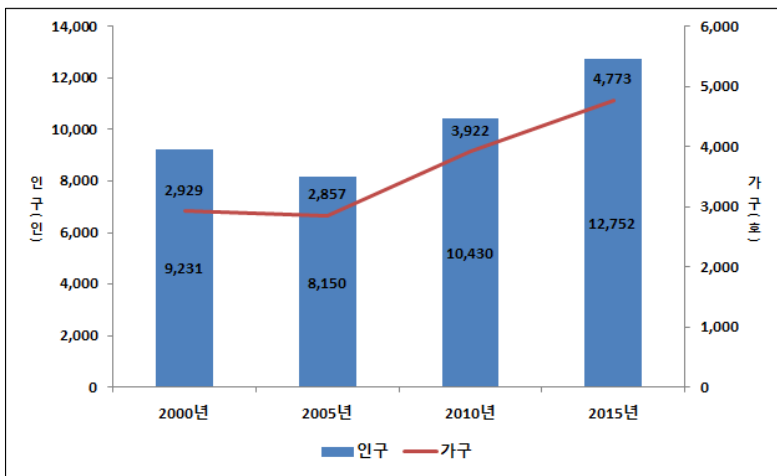
[그림 2-21] 시설물 분포도(궁동 · 어은동 · 신성동)

3. 인구의 변화와 이동

조사지역의 인구 증감추세와 조사지역이 위치한 구별 대전광역시 내 인구이동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이동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구’ 단위로 2005년, 2015년 자료를 파악하였다.

1) 대동·자양동·신인동

대동의 인구는 2000년 9,231명에서 2015년 12,752명으로 3,521명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가구수는 2,929호에서 4,773호로 1,844호 증가하였다. 대동의 가구당 인구수는 2000년 3.15명에서 2015년 2.67명으로 15년간 0.48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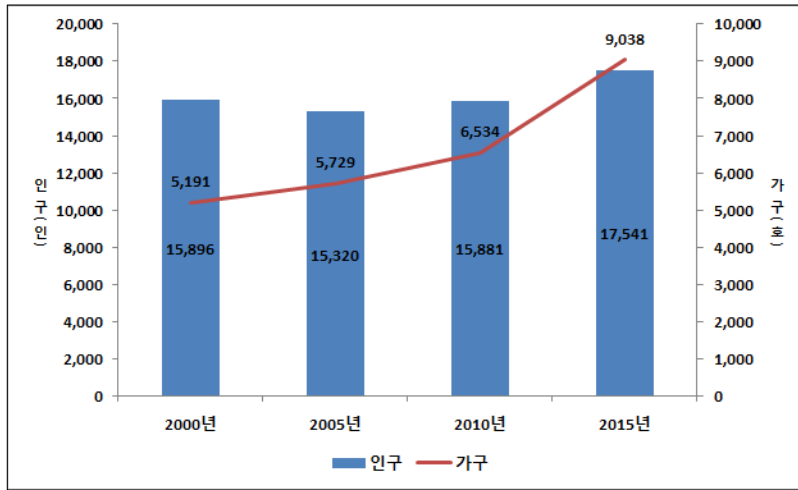


[그림 2-22] 대동의 인구 및 가구변화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2000-2015년 (<http://kosis.kr>)

자양동의 인구수는 2000년 15,896명에서 2015년 17,541명으로 1,654명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가구수는 5,191호에서 9,038호로 3,847호 증가하였다. 자양동의 가구당 인구수는 2000년 3.06명에서 2015년 1.94명으로 15년간 1.12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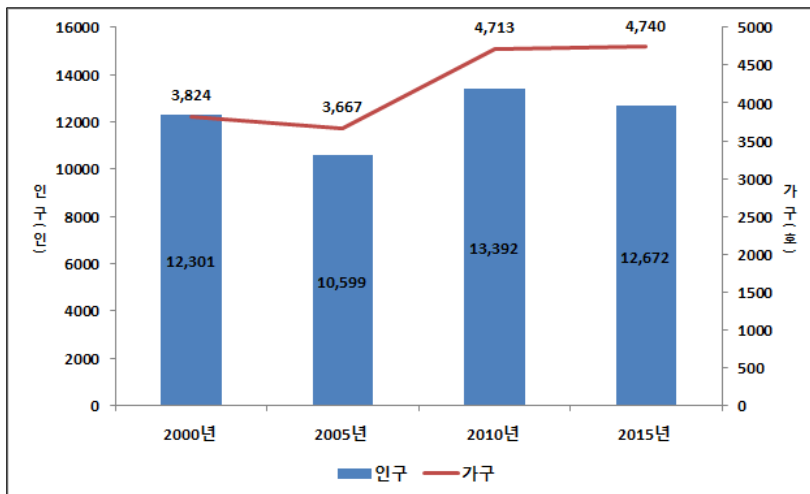
➤ 제2장 선행 연구 검토와 조사 지역의 특성



[그림 2-23] 자양동의 인구 및 가구변화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2000-2015년 (<http://kosis.kr>)

신인동의 인구수는 2000년 12,301명에서 2015년 12,672명으로 371명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가구수는 3,824호에서 4,740호로 916호 증가하였다. 신인동의 가구당 인구수는 2000년 3.22명에서 2015년 2.67명으로 15년간 0.54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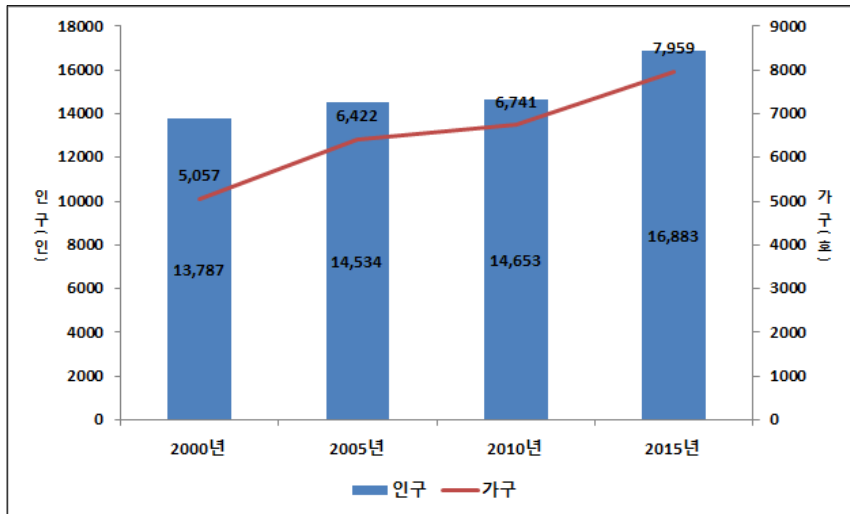
[그림 2-24] 신인동의 인구 및 가구변화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2000-2015년 (<http://kosis.kr>)

주: 2000년 신인동의 인구 및 가구수는 신흥동과 인동의 합산치임

2) 대흥동 · 선화동 · 은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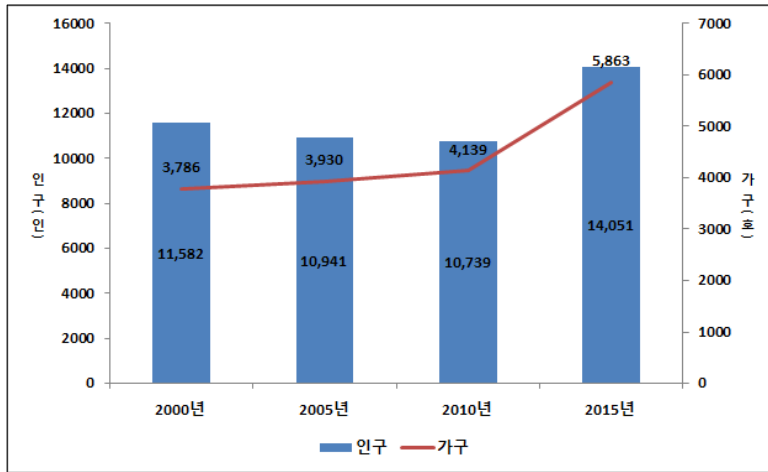
은행선화동의 인구수는 2000년 13,787명에서 2015년 16,883명으로 3,096명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가구수는 5,057호에서 7,959호로 2,902호 증가하였다. 은행 · 선화동의 가구당 인구수는 2000년 2.73명에서 2015년 2.12명으로 15년간 0.61명 감소하였다.



[그림 2-25] 은행선화동의 인구 및 가구변화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2000-2015년 (<http://kosis.kr>)

대흥동의 인구수는 2000년 11,582명에서 2015년 14,051명으로 2,469명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가구수는 3,786호에서 5,863호로 2,077호 증가하였다. 대흥동의 가구당 인구수는 2000년 3.06명에서 2015년 2.40명으로 15년간 0.66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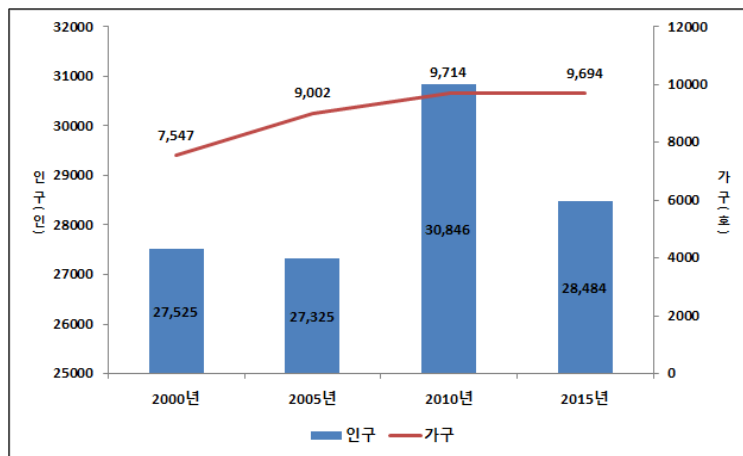


[그림 2-26] 대흥동의 인구 및 가구변화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2000-2015년 (<http://kosis.kr>)

3) 궁동 · 어은동 · 신성동

신성동의 인구수는 2000년 27,525명에서 2015년 28,484명으로 959명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가구수는 7,547호에서 9,694호로 2,147호 증가함. 가구당 인구수는 2000년 3.65명에서 2015년 2.94명으로 0.71명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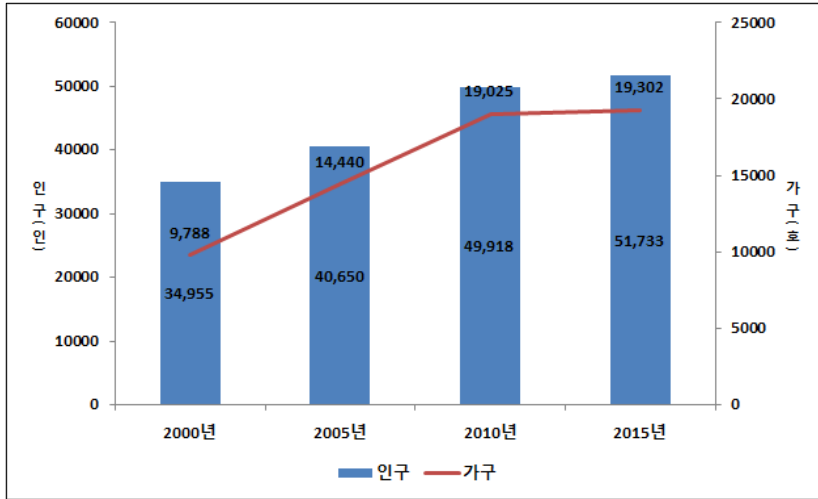


[그림 2-27] 신성동의 인구 및 가구변화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2000-2015년 (<http://kosis.kr>)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온천2동의 인구수는 2000년 34,955명에서 2015년 51,733명으로 16,778명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가구수는 9,788호에서 19,302호로 9,514호 증가하였다. 온천2동의 가구당 인구수는 2000년 3.57명에서 2015년 2.68명으로 0.89명 감소하였다.



[그림 2-28] 온천2동의 인구 및 가구변화

자료: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2000-2015년 (<http://kosis.kr>)

4) 인구이동

대전의 거주민이 도시정체성을 인식하는 데는 지역 간 이동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대전광역시 구별 인구이동 중 동구로 전입한 인구는 2005년 9,012명, 2015년 6,560명이며 타 구로 전출한 인구는 2005년 11,084명, 2015년 8,547명으로 나타난다.

대전광역시 동구를 중심으로 인구이동을 살펴본 결과, 4개 구에서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동구와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한(전입 + 전출) 구는 2005년 6,249명을 기록한 서구이며 2015년에는 4,467명을 기록한 중구로 나타났다. 반면에, 동구와 인구이동이 가장 적은(전입 + 전출) 구는 2005년과 2015년 모두 유성구로 나타났다(2005년 2,103명, 2015년 2,264명).

[표 2-8] 대전광역시 동구 인구이동(2005-2015년)

전·출입지(구)	2005년		2015년		계(전입-전출)	
	전입(명)	전출(명)	전입(명)	전출(명)	2005년	2015년
중구	2,868	3,347	2,065	2,402	-479	-337
서구	2,706	3,543	1,790	2,623	-837	-833
유성구	750	1,353	742	1,522	-603	-780
대덕구	2,688	2,841	1,963	2,000	-153	-37
계	9,012	11,084	6,560	8,547	-2,072	-1,987

대전광역시 내에서 중구로 전입한 인구는 2005년 11,620명, 2015년 7,586명이며 타 구로 전출한 인구는 2005년 11,911명, 2015년 8,756명으로 나타났다.

중구 인구이동을 살펴본 결과, 동구와 대덕구에서 전입자가 많으며, 전출자는 서구와 유성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구와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한(전입 + 전출) 구는 2005년과 2015년 모두 서구로 나타났다(2005년 11,546명, 2015년 7,346명). 반면에, 이동이 가장 적은 구는 2005년에는 유성구(2,836명), 2015년에는 대덕구(1,784명)로 나타났다.

[표 2-9] 대전광역시 중구 인구이동(2005-2015년)

전·출입지(구)	2005년		2015년		계(전입-전출)	
	전입(명)	전출(명)	전입(명)	전출(명)	2005년	2015년
동구	3,347	2,868	2,402	2,065	479	337
서구	5,519	6,027	3,278	4,068	-508	-790
유성구	1,122	1,714	996	1,749	-592	-753
대덕구	1,632	1,302	910	874	330	36
계	11,620	11,911	7,586	8,756	-2,91	-1,170

대전광역시 내 구별 인구이동 중에서 유성구로의 전입 인구는 2005년 11,645명, 2015년 11,347명이며, 타 구로 전출한 인구는 2005년 6,948명, 2015년 6,567명으로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인구이동을 살펴본 결과, 서구와 대덕구에서 이동한 전입자가 많으며, 전출자는 서구와 중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유성구와 인구이동이 가장 활발한(전입 + 전출) 구는 2005년 10,735명을 기록한 서구이며, 2015년 역시 10,286명을 기록한 서구로 파악된다. 인구이동이 가장 적은 구는 2005년과 2015년 모두 동구로 나타났다(2005년 2,103명, 2015년 2,264명).

[표 2-10] 대전광역시 유성구 인구이동(2005-2015년)

전·출입지(구)	2005년		2015년		계(전입-전출)	
	전입(명)	전출(명)	전입(명)	전출(명)	2005년	2015년
동구	1,353	750	1,522	742	603	780
중구	1,714	1,122	1,749	996	592	753
서구	6,684	4,051	6,399	3,887	2,633	2,512
대덕구	1,894	1,025	1,677	942	869	735
계	11,645	6,948	11,347	6,567	4,697	4,780

제 3 장

지역민의 도시정체성 인식 수준

제1절. 대흥동·선화동·은행동 지역

제2절. 대동·자양동·신인동 지역

제3절. 궁동·어은동·신성동 지역

제1절 대흥동 · 선화동 · 은행동 지역

1. 과거의 기억 속에 나타나는 지역정체성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역동적인 현상이라고 할 때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의 기능이나 역할 등이 바뀌면 정체성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다. 일찍이 카(E. H. Carr)가 말한 바와 같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 없는 대화’라고 할 때, 과거는 현재를 규정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강력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대전의 중심적인 도심으로서 기능했으나 현재에는 원도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바와 같이 주변부의 위치로 밀려난 대흥동과 은행선화동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의식과 정체성의 변화는 어떠한가? 구체적인 장소인 대흥동과 은행선화동에 대해서는 어떤 기억과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대전에 대해서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1) 대흥동과 은행선화동에 대한 기억 속의 정체성

1960~80년대 초반까지 대흥동에서 거주했던 한 어르신은 그 자체를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관사가 모여 있는 관사촌을 비롯해 대전에서 힘 좀 있다는 사람들이 살았던 동네가 바로 대흥동이었는데, 자신 또한 그곳에서 살았었다는 자부심 때문일 것이다.

대흥동 살면 그 당시 자부심이 있었지. “야 그래도 좋은데 사는 사람들이구나. 상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쳤다고. 그때 대흥동에 온 지사관사가 있었고,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국장들 관사가 있었으니까.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 대흥동에 많이 살
왔지(박○○(89세), 사업).

도청과 시청, 법원과 검찰청, 도경과 세무서 등이 모여 있었던 대흥동과 선화동
일대는 명실상부하게 대전의 중심지였고, 은행동은 ‘대전의 명동’ 이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커피숍이나 음악 감상실, 크고 작은 술집 등 각종 위락시설들이 모여
있어서 일상을 소비하기에 더 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따라서 온갖 공무원과 민원
인, 그리고 사업가들이나 언론인들을 상대하는 각종 이름난 음식점이나 요정 등이
즐비했다. 그런 중심지에 접근성이 좋은 대흥동지역은 주거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유리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대흥동은 부촌이었지. 부자가 많이 사는 곳이었어. 지금은 지도가 많이 바뀌
었지. 그때는 아주 대전에서 최고의 부촌이 대흥동 그러고 선화동, 그래. 은행
동도 마찬가지로 가게, 장사꾼 거리지 뭐. 변화한 데는 은행동이야. 거주지는
대흥동이 제일 1등지고. 그 다음에 선화동. 은행동은 주로 장사하는 사람들, 상
거래 하는 사람들, 잡상인들이 많이 활동하던 때지.....대흥동은 이제 갈 일이
없어. 대흥동은 예전에 비해 많이 쇠락해진 편이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동
네로 변하게 되었지((박○○(89세), 사업)

더욱이 그 곳을 드나드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신분과 권력을 나타내는 증표였
다고 할 때, 지나간 기억은 좋았던 시절도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제는 흘러간 추억이나 옛 이야기 속에만 살아있고, 최근에는 그곳에 발걸음을 자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관공서나 이름난 음식점이 서구에 있기 때문인데, 의식적으로
멀리하기 보다는 갈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선화동 또한 부촌이었다. 선화동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던 시절이었는데, 고위 관료들이 주로 거주
했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넓은 대지를 가진 단독주택이 많았다.

대전의 제일중심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법원이라든지 도청이라든지 대전의

내노라하는 관공서가 다 모여 있는 곳이니깐요. 옛날부터 선화동에 산다고 하면 자부심도 있었고,.....(박○○(53세), 한의원 운영).

저는 결혼하고 나서 살기 시작했지만 선화동 그러면 옛날에는 부촌이었다는 그런 자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뭐 특권층들이 살았던 동네라고 그럴까? 선화동에 산다면 뭔가 특권층이라는 인식, 어르신들은 은연중에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세요(안○○(52세), 민간모임 활동가)

하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로 변했다고 생각한다. 신도심의 아파트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했고, 관공서 이전과 함께 상가의 수나 종류도 예전만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보니 유동인구도 예전보다 확연히 떨어졌다.

그때는 인심도 많고 정도 많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것저것 함께 나눌 수 있는 부분도 많았는데 지금은 다 떠나고 없어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어려워요. 나도 그렇고, 예전 같지 않죠(조○○(64세),자영업)

이렇듯 부촌이자 변화가였던 선화동과는 달리 경계를 접하고 있던 용두동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동 우물이 있고, 어떤 때는 물을 배급하기 위한 급수차가 출동할 정도였다고 한다. 과거에도 거주지별로 엄청난 격차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여기 선화동으로 왔어요. 그런데 여기 위치에서 보면 동쪽은 아주 부자동네, 지금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지만, 64년도만 해도 여기 대전시장이니, 관사가 여기 있고, 관사청도 여기 있었던 말이에요.....서쪽에 있는 용두동은 골목이 하도 많아 가지고 미로야. 이 용두동 골목 안으로 들어가면 별게 다 있었어요. 거기에는 재래시장이 형성되니까 선화동 사람들도 많이 이용했죠.(임○○(61세), 복지시설운영)

40~50대 중반의 사람들에게 이 지역은 ‘시내’ 라는 마로 기억된다. 대흥동에서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10년 이상 연극을 매개로 예술 활동을 펼쳐 온 40대의 한 극단 대표 겸 연출가와 대흥동에서 살면서 중고교 시절을 보낸 한 50대 시민은 대흥동과 은행선화동 일대를 시내라는 말로 표현했다.

저희들이 젊었을 때 여기를 시내라고 했어요. 시내에서 만나자라거나 시내에서 누굴 보았다는 말이 자연스러웠죠. 스무 살 즈음에 가톨릭문화회관 그쪽, 옛날 중구청이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커피숍에 앉아서 그 쇼 윈도우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날 술 먹을 사람 열 명도 더 만나요. 그만큼 시내이고 중심이었죠(이○○(42세), 연극).

아무래도 시내와 가까워서 일상생활에서 편리하다는 점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대흥동에서 살았는데, 지금 우리들공원 자리에 있었던 시립도서관이나 각종 학원들, 백화점 등이 모두 가까운 곳에 있어서 이용하기 편리했고, 고교 시절에서 충남의 여러 곳에서 온 친구들이 주로 하숙을 대흥동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놀 수 있었던 것도 소중한 추억으로 남습니다(권○○(51세), 자영업)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대흥동과 은행선화동 지역은 대전의 도심지로서 기능할 때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도 있었고, 지역 경기 또한 활력이 넘쳤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지역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옛날의 영화를 그리워하거나 다시 그런 시절이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2) 대전의 과거에 관한 정체성

당시 대흥동과 은행선화동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던 사람들은 대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대전시의 중심이 둔산으로 이동한 것이 광역시로의 승격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충청남도의 도청소재지로서의 대전과 대전광역시로 승격한 이후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다.

충남의 도청소재지로서의 대전이 보다 좋았다는 응답이 조금 많았다.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당시의 번영이 그 때문이었던 반면에 지금의 쇠퇴는 광역시 승격 이후 나타난 관공서 이전이 커다란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충청남도 대전시가 좋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인적, 물적으로 상호교류가 돼. 충청남도의 수부도시로서 기능할 때는 대전에 있으면 충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었잖아. 인적 교류도 많아서 충남 사람들 중에 대전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했어. 그런데 대전광역시로 분리, 독립하고 나서는 대전의 틀에 갇히게 되었어. 좀 폭이 좁아졌다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계가 쳐졌단 말이야. 그래서 대전과 충남이 딱 단절되는 느낌이야.(박○○(89세), 사업)

대전과 충남의 인적, 물적 교류가 예전만 못하다거나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는 법이어서 만약 예전과 같은 식이라면 유성과 신탄진을 포함하지 못함으로써 행정구역과 생활간의 괴리를 겪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마음은 대전이 충청권의 광역단체 중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청도와 세종시, 그리고 충북도 등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전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의 하나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대전역을 아닌 대전역 광장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녁에 대전역 광장의 풍경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군데군데 모여 앉아 기타를 치면서 노래 부르던 젊은이들이 기억에 선명하고, 그렇듯 교통의 요지였던 곳이 바로 대전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대전역 광장이 사라져버린 것이 굉장히 아쉽죠(권○○(51세), 자영업)

지난 시기 대전의 특징이나 대전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인심이 좋은 곳, 인정이 많은 사람들을 거론하는 응답

이 많았다.

푸근한 이미지가 있어요. 왠지 고향같이 나를 감싸주는 기운을 느낀다고 할
까요. 예를 들어 외지에 갔다가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돌아올 때 톨게이트
를 지나 대전탑 사거리 즈음에 이르면 아! 다시 내 집에 왔구나 하는 안도감과
함께 포근한 기운이 느껴지곤 했는데, 아마도 대전의 인심이 후한 데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나 싶어요. 치안도 안전한 편이고, 또한 자연재해로부터도 별
다른 피해가 없는 도시잖아요, 우리 대전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푸근한 인상을
먼저 떠올립니다.(류○○(62세), 자영업)

대전은 인정의 도시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선 순박하니까 타지 사람이 와
도 바로 쉽게 받아들이고 거부감이 없이. 그런 이유로 대전에서 텃세를 당했다
는 타지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인구 구성이 여러 지역 출신들로 다양
하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나 이런 것도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요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가 다양성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시대잖아
요. 대전이 그동안 커다란 발전을 이룩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면이 도움이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박○○(53세), 한의원 운영)

대전에 대한 인식이 이렇듯 추상적이면서도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 반면에 별다른 색깔도 없을뿐더러 자랑거리로 내세울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았다. 이는 대전이 진짜로 볼거리나 즐길 거리,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현업과 관련한 문제 이외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결과라고 하
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들은 대전의 변화에 둔감한 편이었다.

몰라요 하하하. 바깥에는 모르고 여기 역전 앞에 시장, 재래시장, 역전, 그리
고 여기서 말하자면 또 서대전 사거리, 요거는 잘 알아요. 그 다음 요쪽으로
가도 둔산, 선화2동으로 가도 제가 지리를 잘 몰라요. 진짜예요 이거는. 그러니
까 어디가려면 택시를 타고 어디어디서 내려주세요(홍○○(63세, 음식점 경영)

우리 집하고 노래방 가는 거지 뭐 그거밖에 없어. 대전 뭐 구경할게 뭐가 있어. 우리가 나이 먹고 동물원을 가겠어..... 보통 경매장 같은 곳 많이 가지. 골동품 경매장 동학사에 있어요. 거기에서 온 생활용품이 다 나와 (김 〇〇(58세), 음악카페 경영)

대전은 신흥도시 중에서도 과거를 찬찬히 되돌아볼 겨를도 없이 여러 가지 면에서 빠르게 변화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이 좋은 방향의 발전이었던, 아니면 괴물로 변해가는 과정이었던 간에 인구증가의 속도나 행정구역의 확대가 빠른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을 발전사를 압축성장이라고 표현하듯이 대전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 또한 압축성장이라는 말이 적당한 표현일 것이다.

대전의 발전 혹은 변화 과정에 대해서 여러 모로 되짚는 작업을 이루어낼 때 대전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재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지역정체성

현재는 과거를 포함하고 있지만 또한 미래를 지향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버티게 만드는 것들 중 미래비전 또한 중요하다는 말이다.

대흥동과 은행선화동 지역은 최근 몇 년 동안 원도심 활성화라는 이름 아래 시차원의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투자 대비 성과라는 측면에서는 커다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예술가들을 필두로 한 민간의 노력이 대흥동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모든 시도와 변화에 대하여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나아가 대전시민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일까를 추적해보기로 한다.

1) 대흥동과 은행선화동의 현실에 대한 인식

현재 대흥동과 은행선화동을 설명하는데 빠지지 않는 단어는 원도심과 공동화, 쇠퇴와 재개발, 도심재생 등이다. 물론 이는 대전만의 문제는 아니다. 어떤 도시든 지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에드워드 글레이저, 2011).

다만 여타 도시들의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여 대안까지도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민들이 변화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감과 아쉬움이 많은 박탈감과 위정자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대책 없이 가야만 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신도시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여기를 살린다고 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나는 때려주고 싶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걸 또 재생하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 정치신뢰성이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 많이 회의적이에요. 유권자도 문제고 사실은 가장 큰 건 유권자가 문제고 그런 부분이 실망스러웠고 저는 그래요(안○○(52세), 민간모임 활동가)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 일대가 굉장히 점점 더 쇠락해가고 있는데, 그걸 관에서는 나 몰라라 할 수 없고.....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구청장은 민심을 달래지 않고는 다음을 기약할 수 없거든요..... 이게 정치인들의 섭리이다 보니, 당연히 구도심 활성화라는 차원은 그들이 처한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슬로건을 내세워야 되요. 그리고 가시적 성과를 내야지만이 다음을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박○○(49세), 자영업)

위와 같이 현재의 대흥동과 은행선화동의 상태를 초래한 위정자들에 대한 불신은 항상 밑바닥에 깔려 있었다. 둔산 개발도 좋고, 관공서 이전도 이해할 수 있지만, 대안을 가지고 추진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원도심 재개발이니 도심재생이니 단지 용어만 바뀐 채로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관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불신

의 골이 깊었다. 이 지역 거주민들에게 그것은 희망고문에 가까운 일들일 뿐이고, 더욱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지쳐가고 있었다.

관주도 사업에 대한 불신과는 다르게 민간 주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다만 민간이 주도할지라도 관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대전 소재의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후 역시 대흥동에 둥지를 틀고 미술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어떤 화가는 대전만의 특색을 위해 오늘도 여러 가지 궁리를 거듭하고 있다. 이미 화첩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어느 정도 유명세를 얻은 것도 사실이지만, 앞으로 대전의 명소와 결합한 대전만의 명품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동료들과 머리를 맞대고 씨름하고 있다. 그의 말을 좀 더 들어보기로 하자.

대흥동에는 지금 예술가들이 80명에서 1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어요. 각 분야의 예술가들이 싸고 허름한 2층이나 3층의 방을 얻어서 작업실 삼아 활동하는 경우도 있고.....집세가 싸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그럴 때 사실은 관의 개입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관이 뭔가 이렇게 그런 장을 만들어준다거나,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전주, 대구, 부산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사실 그 지역에 정말 전담해서 하는 관의 공직자가 있으면서 그쪽에 전력을 다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창도 열어놓고(박○○(48세), 화가)

대흥동에서 10년 이상 연극을 매개로 예술 활동을 펼쳐 온 어느 극단 대표 겸 연출가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대흥동의 변화에 대해서는 결코 낙관적이지는 않았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 활성화나 도심재생이라는 말로 관이 잘못 개입할 경우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었다.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대흥동에 이쪽이 이제 그 왜 원도심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없다가 지금 다시 왜 모이느냐 라고 본다면, 주 소비층이 이젠 그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거든요. 그니까 그 전에 20대 때 놀던 사람들이 지금의 4~50대가 되니까 여기서 모임을 하고 여기에 친숙함이 있어서 여기로 나와서 자꾸 옛날 추억을 지금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는 이걸 자꾸 이제 뭔가 원도심 활성화라고 해서 거꾸로 관에서 자꾸 뭘 하려고 하면서 그게 더 생명력을 위태롭게 만든다고 할까요? (이○○(42세), 연구)

10대 후반에 천안에서 혈혈단신 대전으로 이주한 후 시청과 도청 앞에서 40여년을 인장 파는 일에 몰두하여 지금은 대한민국의 인장분야 명인이 된 분도 있다. 세태의 변화와 함께 인장을 쓰는 일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목각 공예와 인장 등을 활용한 새로운 분야의 개척으로 지금도 일은 무궁무진하다. 얼마 전에는 선화동 상가번영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선화동 착한 거리’ 살리기에 힘을 보태기도 했는데, 제2의 고향이 되어버린 대전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힘을 보태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

선화동 상가번영회장 하면서 ‘선화동 착한 거리’ 살리기 운동을 함께 하고 있고요, 또한 시민대학에서 인장과 목각 관련해서 강의도 합니다. 선화동이 아주 고약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요즘 갑자기 원룸이 늘어나는 것도 이상하고.....오랫동안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요즘의 젊은이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느 날 불쑥 반짝 개업을 했다가 폐업하고 사라져 버린다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의견 차이가 생기면 다음 날 그냥 일방적인 통보 후에 사라져버리는 일 등등 참 세태가 변했어요. 물론 몇몇의 사례에 불과할지 몰라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유○○(62세), 자영업)

대흥동과 선화동의 주민이나 상인들 또한 관에 거는 기대는 모두 거두어들이는 상태인 듯하다. 특히 도청사의 활용이나 원도심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지금까지 행한 행위들을 둘러싼 문제가 이런 생각을 강하게 만든 주요한 계기로 작용한 듯하다. 오랜 삶의 터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궁금한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입장에서 관(官)의 행정을 바라보는 눈은 어떠할까?

제가 선화동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균형발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새로운 도시 쪽으로 개발하지 말고..... 말로는 원도심 살린다지만 시민대학 같은 필요 없는 거 잠깐 즐기는 거는 이쪽에 가져다 놓고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른 쪽에만 모여 있죠. 우리는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은 선물인 것처럼 개발이라고 말을 하니까 지금 원도심을 외곽개념으로 보고 하니까 무시당하고 소외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박 〇〇(53세), 한의원 운영)

그니까 예전에도 도심 활성화 기획단 가서도 그 추진위원회가 거기에도 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람하고 똑같다 도시가. 사람이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은 대로 그대로의 그 추억과 모든 게 얼굴에 녹아있고 그 자체가 아름답고 그 게 존경받을 일인데, 그걸 자꾸 억지로 막기 위해서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자꾸 갖다 꾸미다보면 이상해진다. 그 자꾸 그걸 하다보면 거꾸로 노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이 〇〇(42세), 연극)

도시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그에 걸맞은 특성을 가꾸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 그 생명력을 지속할 수 있다. 인공도시 두바이가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에 도시계획 혁신을 제대로 이루어낸 꾸리찌바는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로 유명하다든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김진애, 2009).

이런 저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대흥동과 은행선화동은 여전히 대전의 중심 중 하나이다. 구시가지 혹은 원도심 중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원도심 살리기 혹은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관심과 예산이 투입되면서 많은 실험적인 일들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 이유로 현재의 모든 일들이 수구나 유성구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게 다가온다.

2) 대전의 현실에 대한 인식

대전의 특징으로는 예나 지금이나 후한 인심을 꼽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국 각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지의 사람들이 정착하여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것의 반영이자 징표라는 것이다. 또한 대전은 별다른 특성이 없는 그저 평범한 도시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없는 게 없고 물가도 안정되어 있어서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의견도 있었다.

화첩기행이라는 방송을 할 때 전국 곳곳의 도시를 다니면서 문화와 예술 등을 많이 보았는데, 대전으로 돌아올 때 참 푸근함을 느끼거든요. 독특한 감정을 느끼게 되거든요.....대전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의 경우 졸업 후에 정착하는 비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전이 특성이 아닌가 싶어요.....대전은 타 도시에 비해서 폐쇄적이지 않고, 서로 융화되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강점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사람들이 순박하다는 얘기인데,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어울려 살다보니까 그런 특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박○○(48세), 화가)

엣그제 방송에 출연할 기회가 있었는데, 진행자가 대전을 빵에 비유하면 어떻게 표현하겠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은 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방에 있는 도시이지만 부족한 게 없어 가지고 가치가 있는 땅이다. 여기가 뭐 문화적인 시설도 있고, 공기 좋고, 물가 싸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정착하고 싶은 곳이 바로 대전인데, 가치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도시치고는 가치 있는 곳이다(임○○(62세, 자영업)

대한민국의 5대 도시로 발돋움한 대전은 전국의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삶의 터전을 이루면서 서울만큼이나 다양한 인구 구성을 자랑한다. 대덕연구단지과 자운대, 각종 대학 등의 존재는 이러한 요소를 강화시켜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과학도시, 군사도시, 교육도시에 걸맞은 여러 정책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때, 대전은 더욱 특성 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다.

대전의 현재에 대해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아 미래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국토의 중심부로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로서, 그리고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와의 연계 등을 통해 대전의 독특한 위상과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출신 인사들의 동화를 바탕으로 뛰어난 지도자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구가 더 많지만 광주보다 국회의원수도 적고, 대전의 전통이 왜정시대 때 탄생한 도시가 돼서 이렇다 할 특별한 것이 없어.....그런데 앞으로 대전은 지리적으로 얼마나 유리해. 면적도 넓고.....그래서 지금부터는 진정한 주인이 나와야 되고 찾아야 된다고. 전라도 사람, 이북 사람, 경상도 사람, 대전 사람, 충청도 사람이 지금은 숙성이 됐어. 별로 그전에는 감정의 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고. 사그라졌지 이제. 동질화되고 동화가 됐어. 이제 큰 인물이 나올 때가 됐어(박○○(89세), 사업)

대전은 청주와 세종을 연계하는 대규모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통망도 정비하고, 각종 인프라는 균형감 있게 잘 배치해야 하겠죠. 또한 대전 내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고 있는 대덕구 사람들의 소외감도 심각한 수준이거든요.(권○○(51세), 자영업)

하지만 대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공단의 부재 등으로 인해 일자리 편중에 대한 불만이 주된 것이었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유추하건대 공무원이나 국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사원이나 교사, 군인 등의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살기에 좋을지 몰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도시는 아니라는 응답도 있었다. 곧 대학, 군부대, 연구단지 등 양질의 일자리가 많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생산시설이나 서비스업 등은 부족한 상태에 대한 지적인 셈이다. 그것은 수도권 도시들에 비해 여타 지방 도시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도 하다.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대전은 공무원들 살기에 좋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힘들어. 여기는 그 뭐야 이 특히 유통업종류는 이런 데는 그 대형마트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겨서.....(이 〇〇(), 자영업).

공직자나 종업원들 월급은 서울에서 받는 거나 똑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별이가 있는 건 괜찮은데 그 사람들 말고는 수입 별게 없는 거죠. 돈 별게 없어요.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좋은 거 같아요.....그러니까 중앙에 경제가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인데,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우리나라 경제의 90%가 몰려있다는 말씀을 하잖아요(임 〇〇(62세, 자영업).

대전이 충남의 도청소재지였던 과거에는 대전이 인적, 물적으로 충남의 집산지였던 만큼 소비도시로 기능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광역시로 거듭한 현재에는 도농복합지역으로서 공단이나 로컬 푸드 매장 등의 확충을 통해 한 도시의 자족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해했다.

3. 대전의 미래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

미래 비전은 현실의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자 향후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아무리 현실이 고달프다고 해도 장밋빛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면 현실적 고통은 얼마든지 참아낼 수 있는 반면에 미래가 암울하게 다가올 때는 좌절하거나 이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한 지역 혹은 한 도시의 미래 비전을 판단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꿈과 희망을 주거나 줄 수 있는 도시라면 기꺼이 삶의 터전으로 삼아 일상을 가꾸는 일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다. 원도심 활성화가 주요 시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서히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흥동과 은행선화동의 주민들은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 나아가 대전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들어보았다.

1) 대흥동과 은행선화동에 미래 비전

대흥동과 은행선화동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거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희망적인 미래가 있을 때 현재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할 때,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저는 제가 떠날 시기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거든요. 예술인들이 이 동네에 많이 모이는 거는, 두 가지 추억과 저렴해서였거든요. 근데 지금 추억은 계속 부서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는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예술인들이 버티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건물들은 계속 이제 부서지고, 부서지면 어떤 예쁜 상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원룸으로만 계속 이제 올라가지니까(이○○(42세), 연극)

송촌에서 10여년 살다가 약 3년 전에 대흥동 센트럴자이아파트로 이사 왔습니다. 아들 학교 때문에 왔는데, 살아보니 거주하기는 의외로 편리한 점이 많아요. 시내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전철을 탈 수 있고, 음식점이나 술집도 많고, 또한 보문산이나 충무체육관 등과 지근거리에 있어서 좋아요. 다만 시내에 자꾸 원룸들만 생기는 것이 조금 불만이라는 하지요. 단독주택을 개조한 예쁜 카페거리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태○○(53세), 건설업)

선화동에서 오랫동안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한의사는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살아온 그 지역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자리를 옮길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녀의 교육 문제 등으로 서구로의 이전도 생각했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지금도 선화동에 거주하면서 복지만두레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제가 병원을 개업하던 초창기만 해도 젊은 층이 7,80프로 노년층이 1,20프로 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혹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인구가 없기 때문에 노인 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여기 주민들인데, 고령화가 됐죠. 단독주택은 제가 거의 보지 못한 거 같아요. 젊은 층들은 거의 원룸, 투룸에 8, 90%이상 살지 않을까요(박 〇 〇(53세), 한의원 운영)

이처럼 도심 한가운데 원룸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대흥동이나 은행선화동이나 자꾸만 들어서는 원룸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원룸 거주자들과는 주민으로서 공동체적 유대감을 형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오랜 삶의 보금자리를 떠나는 이웃들을 대할 때마다 아쉬움이 남는데, 그 자리를 대신해서 마치 뜨내기들을 양산하는 원룸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불편한 심정인 셈이다.

현재 진행 중인 원도심 활성화의 일원인 옛 충남도청 주변의 활성화와 도심 재생사업에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다만 관(官)에 대한 불신이나 균형 발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관에서 관여를 하지 말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다가 장기입대를 주던지 근대 문화재로 철거를 못한다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 납득은 안되죠. 차라리 법을 바꿔서 대기업에 매각을 해주시던지 유지를 하고 싶으면 기부채납식으로 하던가.....(박 〇 〇(53세), 한의원 운영)

.....중앙정부 지원이든 시의 지원이든 일 년에 수십억 씩 내지는 수백억 씩 쏟아 붓고 있어요. 바른대로 이야기 하면, 구도심에서 벗어나 있는 문창동, 또는 목동, 용두동, 이 쪽 사람들은 화를 내야 할 일이에요. 왜 우리도 중구로써 시민 세금을 내는데 우리한테는 할애가 안되고 구도심을 맨날 활성화하고 뭐 하고 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 쪽 사람들은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박 〇 〇(49세), 자영업)

원도심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흥동과 은행선화동 살리기가 여타 주변지역이나 저개발 지역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대전시 안에서도 지역 격차의 문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 또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대전의 미래 비전에 대한 인식

대전은 지금도 성장 중인 도시이다. 세종시가 생기면서 다소 인구가 유출되고 있다고는 하나 일시적 현상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초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 결과적으로는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전시에 바라는 점이나 희망하는 대전의 미래상에 대해 물어보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전이 큰 특색은 없지만 영남과 호남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있잖아요. 그 여건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교통 박물관이나 뭐 이런 거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유성이나 서구에 비해서 중구나 동구, 대덕구도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어요(신○○(46세), 자영업)

아마도 최근 이슈로 떠올랐던 철도박물관 유치 등의 문제도 이러한 범주에서 생각할 수 있다. 곧 여전히 대전은 교통의 요지로서 기능할 수 있으며, 그 차원에서 특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대전역사의 명품화 등의 얘기가 나올 법한데 의외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다. 복합기능을 가진 커다란 규모를 자랑하는 역사의 존재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의외였다. ‘생산의 도시’를 ‘생활의 도시’로, ‘체계 중심의 도시’를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꾸기 위해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을 끌어들이고 있는데(박삼철, 2012), 대전은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도 시민들의 요구가 없을 때 그것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다만 세종시의 존재가 대전과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했다.

대전이 지리적으로도 교통도 편리하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심도시 아니야. 내가 보건데 대전과 세종은 함께 커질 수 있어. 5년 후에는 대전이랑 세종이 맞닿을 거야. 이러면 엄청난 도시가 되는 거지..... 이런 시대일수록 도덕적인 대전이 돼야 하겠다. 인성교육을 해야 하고, 도의교육을 시켜야 되겠다.....그래서 대전이 도의를 숭상하는 충청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새로운 마인드의 교육이 대전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만이 인간을 바꿀 수 있는 거니까(박○○(89세), 사업)

대전의 미래는 세종을 빼놓고는 얘기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내부의 활력을 키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세종과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종이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수록 그 배후도시로서 대전 또한 더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불어 청주까지 하나의 생활권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한다면 더욱 좋은 것이구요.(태○○(53세), 건설업)

제2절. 대동 · 자양동 · 신인동 지역

1. 지역적 특성

대동, 자양동, 신인동은 대전의 도시가 형성되는 초기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주거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 밀집 지역이지만, 도시가 확장되면서 신도시로 이주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인구가 감소되어 공동화된 지역이기도 하다.

지역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대전 도시의 확장과 신도시로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처럼 대규모적으로 급변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신도시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별 특색에 맞춘 변화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대동은 대동역 주변 상권과 산1번지로 구분되는데, 현재 산1번지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통해서 주거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로의 변화를 모색하여 하늘공원과 하늘동네라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대동역 주변 상권은 주거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졌거나 현재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을 만큼 변화는 시작되었다.

자양동은 우송대학교와 우송정보대가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자양동지역에서 우송대라고 하는 대학가의 젊음 이미지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다만 주거시설이 많이 낙후되었던 건물들이 대학생들을 위한 원룸들로 하나 둘씩 지어지면서 일반주거지역과는 다른 원룸(고시텔)의 주거특성으로 변화하였다.

신인동은 신흥동과 인동을 통합한 행정동이다. 예전의 인동은 경부선 철도 개통과 함께 발달한 대전의 발상지이다. 인동시장은 대전에서 가장 오랜 된 전통시장이며, 쌀시장으로 전국에 유명세를 떨치었던 곳이다. 신흥동은 하천과 남방향의 야트막한 야산을 끼고 있는 아담한 동네로 예전에는 옥천에서 대전의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동네였다. 특히 신흥동에는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어서 많은 외지인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이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도심의 중심을 들어가기 전에 머무르거나 거쳐 가는 지역이었다. 현재는 저렴한 주거비용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오랫동안 거주하는 주민이 많은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지역주민의 인터뷰 결과 대동, 자양동과 유사한 주거지역이 인동보다는 신흥동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고, 또 신흥동과 인동 지역주민간의 이질감 등이 존재하고 있어 신인동에서 인동보다는 신흥동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한 점을 밝힌다.

2. 과거 기억속의 동네 모습

변화하지 않는, 예스러움을 간직한 마을

대동은 오래된 주거환경으로 주거여건은 좋지 않지만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고, 변화하지 않는 또는 변화되지 못하는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동네이다. 그렇다보니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가난한 동네가 된 것이다.

30년째 살고 있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쪽에는(대동역 부근) 아파트가 들어서서 많이 발전했지만 제가 살고 있는 (구)복지관 쪽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단지 변했다고 하면, 산위에 하늘공원이라고 만들어서 주민들이 좀 이제 산책할 수도 있고. 이미지는 훨씬 환하고 밝아졌지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 자체는 변한 게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개발된다고 그래 가지고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집들을 많이 사놓고, 없는 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방 얼마씩 받고 세를 주고 계시는데, 발전도 안 되고 거기가 개발도 안 되고 하니까. 또 기존에 있는 주민들은 어디 갈 수도 없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없다보니까 계속 어려운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시는 거 같아요. (60세 여성, 대동거주)

야트막한 집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산동네 대동, 서울 전농동 생각도 나고, 생각다방 산책극장이 처음 시작된 부산의 대연동도 떠오르다가, 지금처럼 개발 붐이 일기 전, 그저 고즈넉하고 평범했던 연남동과도 닮았다. 구불구불 좁다랗고, 빈 공간마다 어김없이 화분 또는 화단이 있다. 어떤 집 앞은 식물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온갖 꽃들로 화려하고, 또 어떤 집은 주로 상추, 고추, 토마토처럼 먹을 수 있는 작물에 집중하기도 한다. 제각각 개성이 넘치는, 하지만 한결같이 정성으로 가득한 정원들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을까 헤아려보게 되고, 그런 아름다움을 함께 즐길 수 있다는데 감사한다(솔밭 & Patrick, 『대동에서』 일부 발췌).

달동네의 부정적 이미지

대동이라는 이름은 ‘대전의 동쪽’이라는 대동(大東)을 음차한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1918년 지형도를 보더라도 대동리라는 명칭은 눈에 띄지만, 대동에 특별한 주거의 흔적은 찾기 어렵다. 평지는 거의 논으로 사용되었으며, 지대가 높은 곳은 대부분 버려진 야산이었다. 1937년 ‘대동공립고등여학교’ (이후 대전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대전여자고등학교로 명칭 변경)가 세워지면서 서서히 대동 주변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1948년 항공지도를 보면 여전히 대동 일대가 대부분 밭으로 개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동이 지금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어 일정 규모의 마을을 형성했던 것은 한국전쟁 이후로 보아야 한다.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로 인해 대전의 인구는 급격히 늘었고, 대전에 정착한 이북 사람들과, 옥천과 금산 등 주변의 인구들을 흡수하면서 대전의 인구는 꾸준히 늘었다. 당연히 새로운 택지가 필요했을 것이고, 대전역 인근의 대동 역시 새로운 주민들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평지부터 집들이 차올라 언덕위로 가난하고 고단한 이들의 작은 집들이 올라왔다(고운수, 『르 모퉁이』 2016년 6월 창간호 일부 발췌). 인구통계를 보더라도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대동의 인구변동은 최초로 1938년 2월말 인구 1,628명(대전시사 기록)이었으며, 1962년 발행한 1961년 기준 대전통계연보 제1호에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는 11,649명으로 나와 있다(임춘래, 2015).

이렇듯 대동은 옛날 피란민들이 정착하여 형성된 동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전역 주변을 중심으로 장사를 하거나 낱품팔이를 하는 가난한 이들이 대동 언덕으로 올라가 살면서 지금의 산동네가 형성되었다. 그래서 대동의 산동네는 예전부터 빈민촌으로 인식되어서 대동 산1번지로 불려오고 있다. 대전에서 산1번지하면 빈민촌으로 범죄가 많은 달동네로 낙인 지어진 동네이다.

옛날에 대동이라고 안했다니까요. 산1번지, 산1번지,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지금 암만 바뀌어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 산1번지, 거기 산1번지, 지금도 산1번지 살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애들만 그거를 안 써먹지, 60넘은 사람들은 다 산1번지여. 그게 이 머리에 박혔으니.....(76세 여성, 대동거주)

예전에 대동을 산1번지라고 해서... 산1번지에 못살고, 사람들이 조금 바르지 못한 그런 이미지로 인지를 하고 얘기를 했잖아요. (60세 여성, 대동거주)

여기 옛날부터 범죄자들이 많이 살았는데, 하다못해 대전 교도소 가면 50%가 여기 대동 사람들이 와서,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있다. 그런 말도.....산1번지 하면 다 멀리하고 별별 떨고 그런 시대가 있었대요.(53세 남성, 대동거주)

지금도 도둑 그런 사람들 와서 훔쳐가고 막 하는 사람들 많아요.(45세 여성, 대동거주)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각 지방에서 와가지고 사니까. 그래 가지고 노가다를 댕기니, 노가다가서 할 일은 있어요? 매일 술 퍼먹는 거 밖에. 그래서 먹고 만날 싸움질하고, 엄청 했어요. 여기 말도 못했어요. 그냥 술 안취해 가지고는 안 싸워요. 술 취해가지고 그렇게 싸웠지. 그러더니 술 먹는 사람들이 우연히 다 없어지대. 지금은 조용해요. 안 싸워요. 집에서 싸우고, 생난리를 치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조용해. 이 동네가 나쁜 동네는 아닌데, 한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서, 옛날부터 이 산1번지라고 소문이 잘못 난거야. 그래서 지금은 여기 동네가 참 좋아요.(76세 여성, 대동거주)

몸은 하나 마음은 둘

신인동은 신흥동과 인동을 통합한 행정동이다. 신흥동은 대동의 달동네 이미지만큼은 아니지만 대동과 유사하게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가난한 동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 충남중학교 뒤편의 언덕마을은 대동의 달동네를 연상시킬 만큼 주거가 낙후된 지역이다. 현재 이 지역은 신흥3구역으로 주택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신흥동이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깐, 어려운 사람들도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막 개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이 지었는데, 원래 노인의 75세 되신 이상이 300명이 지금도 훨씬 넘어요..... 옛날에 여기가 달동네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여기가 지금 다 개발되었거든요? 옛날에는 공동 수도샘이라고 두 군데가 있었어요.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집이. 근데 여기가 이제 골목이 이렇게 있으면 양쪽으로 집이 조잡하게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슈퍼도 쪼그만 하게 하나 있었고, 막걸리 집. 그 전에는 어르신들이 막걸리 먹고 그러니깐 완전 서민들만 사는 곳이었죠. 달동네니깐(59세 여성, 신인동거주)

여기는 뭐 특이한건 없고, 대전 시내에서 달동네라는 것이 전혀 나쁜 거 아니여. 부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78세 남성, 신인동거주)

인동은 대전의 철도역사와 함께한 지역이고, 인동시장을 중심으로 변성한 상업밀집지역이었지만, 지금은 예전의 명성이 무색하게 낙후된 지역이다. 인동시장은 대전 최초의 전통시장이며, 쌀시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날리었고, 1919년 3·1 만세운동을 대전 최초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인동시장 주변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에는 상당한 부자가 살았을 법한 집들이 곳곳에 존재하는데, 대전에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인사들이 살았던 곳으로 예전에는 부촌으로 인식되었던 지역이라고 한다.

여기는 미곡시장이요. 쌀 시장. 인동 쌀 시장. 인동 가마니 장터라고 역사책에 보면, 대전 역사책에 나와 있는 인동 가마니 장터예요..... 옛날엔 학교방으로 지어놓고 있었어요. 그때는 인동 가마니 장터 때요. 가마니 장터가 68년도 재건축 해가지고, 2층하고 3층까지 지어가지고, 그것이 인동 쌀 시장. 지금도 인동 쌀 시장이라고 그러면 다 찾아와요..... 옥천, 마전, 산내 여기서 겨울에... 여름에 농사를 짓고 겨울에 가마니 짜고. 그런 걸 팔러 나온 거야. 여기에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가마니 장터가 된 게, 가마니 짜가지고 옛날에 가마니 팔러 나온단 말이야(70세 남성B, 신인동거주)

대전에서는 인동이 엄청 좋았었어. 동네만세 부르는 데가 인동이고.(78세 남성, 신인동거주)

인동에 7인방이 돈을 안 벌면 대전 경제가 안돌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대전 경제가 안돌아간다고. 그래 부자들만 살았어요..... 대전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70세 남성B, 신인동거주)

신인동은 이렇게 도시형성 자체가 다른 두 개 지역을 행정적으로 통합하면서 지역민들간의 골은 깊게 형성되었다. 지역민들은 신흥동과 인동은 원래부터 다른 동네로 인식하고 살아왔으며, 동이 통합되기 이전까지 서로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즉, 지역민들은 서로 별개의 지역으로 살아 온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대전 동구의 발전에서 철도를 중심으로 한 동서간 격차가 한 몫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는 신흥동이고 인동인데. 그게 통합된 지가 8년 됐거든요. 아휴 굉장히 섭섭했어요. 이거 통합될 때 우리는 정말 억울하게 인동한테 졌는데. 그 당시

에 이제 통합을 안 하려고 했어요. 원래 인동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신흥동이. 인동사람들은 부자잖아요. 쌀장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상권이 많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통합을 하다보니깐 자선단체도 안 맞아요. 인동은 전부 상권이신 분들이니깐 부자들만 있지. 여기는 다 어려운 사람들만 밀집되어 있어요(59세 여성, 신인동거주)

3. 거주민이 인식하는 현재의 동네 모습

동네 지킴이들의 변화하는 삶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동네는 변화하기 않고, 상권은 죽고, 많은 사람들이 동네를 떠났지만, 그래도 지역에 남아서 동네를 지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기에 동네는 변화하게 된다.

남들이 문 닫아야 하는데 왜 안 닫느냐고. 그래서 내가 자기들이 먼저 문 닫는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 먹고, 심심풀이로 이렇게 한다 하니까 버티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지들이 자빠지고 그러잖아요. 저 앞 동네 슈퍼도 있으면서 이제 문 닫고서, 롯데000, 처음에는 LG, 그 다음엔 GS, 그 다음에 롯데. 내가 우스갯소리로 만날 00슈퍼 때문에 다 망하는 거라고.....나는 안 바꾸고 그대로 있고. 아니 여기 오래 살다보니까. 가면 이제 떠난 사람들이 여기 뭐 하면서 지금까지 계시네. 계시네 하면서. 친구처럼 자주 놀러오고. 대동 지킨다고 고생한다고 오고. 오래 살던 사람들은 나이가 다 60넘은 사람들이야. 옛날에 원주민들은 다 떠나고 얼마 없어요(65세 남성, 대동거주)

대동역 주변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새들피아파트, 대동펜타뷰 아파트가 들어섰고, 대전여고와 한밭여중 옆 일부 지역(대동2구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대동역 부근의 옛 대동시장 터에는 첨단산업단지는 아니지만 이에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준하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된다.

이제 이거를 내가 사무실에 있는, 사무실이 여기인데. 여기는 저 한 천 세대 들어오면 남은 거 대동지역 이거 밖에 없거든. 그래 이거 몇 천 세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아쉽지만 대동시장은, 상가를 넣을거나 안 넣을거나 하다가 안 넣자는 여론이 많아서 지식산업센터로 바꾸는 거거든요.(69세 남성, 대동거주)

달동네에서 벗어나 하늘동네로

대동은 빈민촌 또는 달동네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무지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벽화와 조형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여 하늘공원을 조성하고, 대동종합사회복지관 주변에 벽화를 그려 벽화마을로 유명해졌다.

무지개 프로젝트로 해서, 아름다운 동네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걸 해서 헌집도 부시고 고쳐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벽화도. 왜냐면 골목이 너무 어둡고 칙칙하니까. 그런 데를 좀 밝게 해보자 해가지고, 벽화를 그리기 시작해서, 또 풍차도 해놓고 하니까 동네가 훨씬 환해지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구경하러 오게 되죠(60세 여성, 대동거주)

그래서 저 멀리서 온 학생들도 있고, 막 대구에서도 오고, 막 구경하러 많이 와요. 오기는. 그러는데, 그런 애가 여기 뭐 구경을 하려고 오냐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여기가 떠가지고, 인터넷으로 올려가지고 그거 보고 그렇게들 여기를 오셔. 근데 밤에 보면, 참 하늘공원 가보면 불만해요(76세 여성, 대동거주)

풀을 뽑는다던지, 남자 분들은 폐가 정리를 한다든지, 뭐 페인트칠 같은 것도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동네를 정화 하는 거. 그런 사업이 있었는데(43세 여성, 대동거주)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교통편의 지역

대동 지역민들은 대동오거리(대동역)를 중심으로 대중교통이 발달한 교통중심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동이 교통도 좋고, 다 가져서 좋은데...(중략) 공기가 더 좋다 저쪽보다... 교통 편하다 뭐 이런거지(76세 여성, 대동거주)

교통은 최고 좋은데야. 교통 이렇게 58개 노선 다 닿고. 저 지하철 1호선 이런.....대동의 이미지는 뭐,. 여기 교통 하나 뿐이지. 좋은 이미지라고 하면 교통이지(69세 남성, 대동거주)

여기서 동부터미널, 가양동으로 갈 때는 두 정거장 차이냐고, 대동에서 타고 가면은 뭐 똑같지 뭐. 거기서 소재동 가는 거하고. 교통으로 따지면 대동이 훨씬 더 편해요.(60세 여성, 대동거주)

요즘에 철도박물관인가 그거 유치하시려고 하고, 도시철도공사도, 쌍둥이 빌딩도 있고(43세 여성, 대동거주)

실제로 대동은 모든 대중교통(버스와 지하철)이 대전역을 통과하거나 대부분의 버스노선이 대전복합터미널을 경유하고 있다. 또한 대전 IC와 판암 IC가 가까워 다른 도시로의 이동에도 편리하다.

대동과 다르게 자양동은 대전의 도시형성 이전부터 지역민들이 농사를 일구면서 살던 지역으로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이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적 여건이 좋고 대동과 인접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대전역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또 복합터미널이 있어 가지고 버스 이용도 편리하고. 대중교통, 시내버스도 무난하게, 어렵지 않게,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교통 중심지, 교통 편의도시 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81세 남성, 자양동거주)

처음에는 시내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좀 공기도 좋고, 학교도 있고 하나까 좀 괜찮은 여유 있는 사람들도 와서 집도 짓고 그랬어요.....처음에는 농대, 농전이라고 했어요. 농업전문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농고라고 논다고 해서 농전 농전 놀러왔는데. 근데 거기 뭐 학교들이 들어서요. 이쪽으로. 그러면서 지금은 우송중학교, 우송고등학교 그 마당에 저희 그 선친들이 살던 그 묘가 쪽 있어요. 그 자리에 이제 학교들이 실업전문대. 실업초급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58세 남성, 자양동거주)

학교가 많은 지역

자양동은 우송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자양동 지역의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 자양동하면 우송대라 칭할만하다. 속된 표현으로 ‘자양동이라 쓰고 우송대라고 읽는다.’ 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자양동에서 우송대를 빼고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우송대로 인해서 자양동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많이 형성된 지역이다.

제가 보기엔 자양동은 그래도 우송대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죠. 지역주민하고는. 유독 유대가 많이 하고 그랬죠. 지원할 수 있는 건 좀 나름대로 지원해주고 그랬죠.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75세 남성, 자양동거주)

그렇다고 자양동에 우송대학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양초, 동광초, 우송중·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우송정보대 등 초중고대학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 교육중심지역이다. 특히 대동에 한밭여중과 대전여고, 용운동에 대전대학교, 가양동에 대성여중·고등학교, 대전보건대학, 한국폴리텍대학 등 자양동을 중심으로 수많은 학교들이 포진하고 있다.

동광초등학교 오래됐는데, 일제시대에 세워졌죠. 삼성초등학교가 가장 오래 되고, 그 다음에 신흥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돼요. 그 다음에 산내, 동광이 네 번째인데..... 동광초등학교 옆에가 이제 동광이라는 동네고. 우송대쪽으로 있는 산 자체가 동광산이에요..... 한밭여중 있는 데는 댓골이 되고. 그리고 지금 대전상고, 대성여상였는데 저기로 바뀌었죠. 우송공고. 그쪽으로 이제 동지강, 동지깡이, 그리고 동아마이스터고가 들어간 데는, 거기는 안터라고 그랬고(58세 남성, 자양동거주)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는 대학이 제일 많아요. 학교가 제일 많아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학교도 그렇고, 다른 데에 비해서 교육적인 면,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요. 자양동은 우송대, 동아공고, 동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우송정보대. 학교가 이 조그마한 동네에 많이 있어요(49세 남성, 자양동거주)

거리 명칭만 대학로

자양동은 우송대로 인해 대학로라는 거리 명칭까지 얻을 정도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대학가로써의 상권 특수를 갖춘 지역이다. 대학생들을 위한 저렴한 식당과 술집, 커피숍 등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생들의 향락적 소비만이 아닌 즐겁게 놀 수 있는 문화소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기반시설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지역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한다.

대학이 있음으로써 원룸을 많이 짓다보니까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이 집을 많이 팔고 떠나셨지. 이 동네를(75세 남성, 자양동거주)

이제 집들이 많아지고 이게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것도 안 되고, 지금은 뭐 원룸이 워낙 많으니까 학교로 인해서 수요는 많아 갖고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요. 근데 지금은 필요 이상으로 생겨버리니까, 그 원룸 갖고 있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III) ■

는 사람들도 힘들고. 요즘 계속 원룸을 또 계속 내주고 하니까 결국 이사 간다고 하더라고요. 팔고요. 못 살겠다고(58세 남성, 자양동거주)

몇 년 전만해도 중국 학생들이 많이 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질서가 문란하거 같고. 첫째는 이 거리가 깨끗지 못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빌라촌이 되다보니까 아무데나 그냥 쓰레기 버리고 버려가지고. 그런 것이 느껴올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81세 남성, 자양동거주)

우송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주거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 적이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기숙사 건립이 무산된 상태이다. 현재 많은 학생들을 기숙사에 수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대학가 주변 주택에 몰리게 되고, 주거가 열악한 주택들은 하나 둘씩 주택을 원룸으로 바꾸어 짓기 시작하여 현재는 수많은 원룸이 지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건물들이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원룸보다는 고시텔로 허가받고, 내부에 취사시설을 갖춘 원룸으로 불법 전환한 건물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술집과 원룸이 밀집하면서 쓰레기 문제 등 주거지역의 이미지가 혼탁해지는 상황이다.

우송대학에서 기숙사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저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첫째는 풍기가 문란하다. 학생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야간 되면 우범지대가 되지 않을까. 기숙사 생활하면서 외국인들도 있고, 좀 늦게 지나 가다보면, 낮에도 그러는데, 빌라 앞에 앉아서 담배를 막 평평 펴요. 애들이 펴요. 담배를. 중국사람, 중국 애들이 담배를 좋아하는가 보더라고요. 중국 애들은 식별이 잘 안되니까요..... 하여튼 기숙사가 신축됨으로 인해서 조망권도 뺏기고, 조망권이 뺏기지 않게 그쪽 동 주민들이 더 적극적인 반대 아닌 반대가 나왔고요. 또 두 번째 사생활이 심하게 침해 해 가지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활동하다보면 풍기문란한 행동이 있으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해가지고 저지가 된 거죠(81세 남성, 자양동거주)

우송대학교에서는 기숙사를 확대해야 되는데, 기숙사를 지으려면 재정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 당시 학부모들은 기숙사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기서 이 영업하는 분들은 기숙사 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그거는 기숙사에서 식사까지 제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는 싫어해요. 싫어하더라고요.....기숙사가 없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방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원룸을 짓다보니까, 동네가 원룸을 지어서 또 좋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좋게 생각을 안 해요. 원룸을 지으려면 최소 3층 정도 짓는데, 대부분 단독주택이 납작하게 1층으로 있으니 이걸 2층으로 짓기도 그러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야. 그런 현상이 있는 거죠(75세 남성, 자양동거주)

우송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유치하려면 기숙사가 필요하니까 거기다 신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OO아파트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무산이 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원룸업자들이 전부 여기 이제 집주인이 돼가지고, 급속도로, 몇 년 사이로다가 원룸만 그냥 집중적으로 여기다 건축을 한 거예요.....지금 그 형태가 원룸이 아니라 다중주택으로 그 사람들이 고시텔이라고 짓는 거는, 허가 낼 때 하는 것대로 했으면 방에 그 주방시설이라든지, 무슨 뭐, 이런 게 원래 원칙으로 그게 허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해놓고서, 준공검사만 받고서. 불법이지 뭐. 지금 모든 원룸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불법이에요(72세 남성, 자양동거주)

너무 좋은 동네가 지금 너무 나중에는 슬럼화 될 거 같아 걱정이예요(58세 남성, 자양동거주)

학생들이 술을 먹긴 먹어도 그렇게 많이... 심야 영업하는 거. 그것이 좀 시끄럽다고들 하더라고요. 여기 지역 뿐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용운동이나, 보면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그걸 왜 24시 영업하게 해주냐. 일부 학생들이, 술을 먹는 학생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75세 남성, 자양동거주)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그리고 우송대에서 외국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여 대학가 주변에 많이 밀집하여 거주하였는데, 현재 외국 유학생 유치가 힘들어져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원룸 공실이 발생하면서 향후 공동화 현상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송대학교가 지금 저기 원룸이 무지하게 많이 남아들아서, 우송대학교만 해도 저기 저 동남아학생들이 35%란 말이에요. 그 작년에 그 신학생들이 하나도 안 왔어. 그래 우송대학교가 좀 더 지금 원투룸 지역이 남아들아가지고서 아주 빈 집이 지금 현재도 많아. 자양동을 우송대학교에서 한 60% 점령하고 있어가지고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걱정한 건 뭐냐면 원투룸을 많이 지었는데(69세 남성, 대동거주)

4. 거주민이 바라는 동네 모습

주거환경 개선하여 달동네 이미지 탈피

대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장 시급한 지역이 하늘동네인데, 하늘동네의 주거개선사업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달동네의 이미지를 벗어나기는 당분간 힘들 것 같다.

여기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은 내 생각 같으면 얼른 하겠어요.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모든 사람들 위해서. 서로 서로 더불어, 서로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왜냐면, 여기 학교방 같은 데 어떤 집은 한 13평 정도밖에, 어떤 집은 15평이고, 뭐 2-30평 넘어가는 집은 별로 없거든요. 거기에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 받아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거야. 시내 나가면 사글세도 못사는 걸 어떡해(76세 여성, 대동거주)

우리가 주민들이 땅이 많으면 개발하면 그게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본인들이 괜찮아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면 땅이 몇 평씩 밖에 안 되는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개발을 한다면, 그걸 다 내놓고 나가면, 그거 갖고 여기서는 그냥 집 짓고 밥 먹고 살았지만 그걸 보상을 받아서 어디 가서 전세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걸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여기를 개발을 하려면 이 주민들이 여기서 살 수 있게끔 아파트를 조그마한 평수를 작은 거라도 해서 이분들이 여기서 다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개발이 되도,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다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고. 땅이 많은 분들은 찬성을 하죠. 하지만 땅이 많은 분 보다 땅이 없는 분들이 더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 다 내쫓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민들 다 내쫓고 뭘 어떡하겠다고(60세 여성, 대동거주)

다만, 대동 일부 구역이긴 하지만 대동3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이미 지 쇄신의 희망을 버릴 수는 없다. 대동 3구역은 하늘동네의 초입에 위치한 조그만 주거정비사업구역이지만 기존의 전면 철거하는 방식과 달리 행정기관에서 노후 기반시설을 새롭게 확충하여 주민들 스스로 주택을 개량해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대동3구역(대동로 37-10 일원, 총면적 2만4641㎡)은 지난해 7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에 이어 주민설문조사 및 추진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최근 정비계획안 마스터플랜 확정으로 사업이 본격 출발하게 됐다. 올 상반기 중 주민설명회,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고시에 이어 올해 안에 보상절차에 들어가고 2017년에 착공할 계획이다(<중도일보> 2016년 1월 25일자).

젊음과 문화의 명실상부한 대학로 조성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III) ■

지역민들은 자양동이 대학로라는 명성과 젊음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잘 살리기 위한 방안을 지자체에서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명실상부한 대학로가 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조성해 줄 것도 제안하였다.

대학로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저쪽 자양동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보건전문대까지, 대전대까지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계획이 시에서 가지고 있었잖아요(75세 남성, 자양동거주)

조그마한 소규모 공연장이라도 좀 만들고, 문화원과 동사무소하고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문화원에서 바로 연결통로로 해서 주민센터까지 가서 독서실도 가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왔다갔다 문화도 교류하고.....이렇게 기타 치는 분, 아코디언 하시는 분, 그런 분들도 거기서 연주도 연습도 하고, 또 독서도 하고, 소공연장 식으로 하면, 학생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뭐, 그림 그리는 사람 거기 앉아서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책도 보고, 문화가 있는 도시로 좀 해보고 싶어서.....우리 이 자양동에 젊은이들이 같이 앉아서, 놀이 문화도 좋고, 뭐 이런 공연 문화도 좋고, 그런데 그런 게 너무 없는 거죠(49세 남성, 자양동거주)

새롭게 뜨는(신흥) 아파트 중심 주거지역

신흥동 남쪽에 신흥마을과 어지마을 아파트가 있고, 북쪽에 새들피 아파트가 있으며, 서쪽으로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착공되었으며, 신흥3구역의 주택재개발이 확정 고시되어서 신흥동은 조만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거지역으로 급부상할 것이다.

160-1번지라는 데가 다 못살았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여기가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보상이 나올 거예요. 개발되면, 이제 그런 추억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59세 여성, 신흥동거주)

얼마 안 있으면 여기 이 지역이 3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조합구성이 돼 있는데, 아파트를 짓는 걸 계획을 해가지고 조합구성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그것이 OO건설에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빨리 해결 되가지고 아파트 개발이 되어서 깨끗한 도시 형성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72세 남성, 신인동거주)

신흥마을과 어진마을, 새들뫼 아파트 등 대동과 신흥동의 아파트 입주민들은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정착해 산다고 한다. 신흥3구역도 기존 주민들이 주택재개발로 인해 동네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입주와 정착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살던 사람들 중에 신흥마을, 어진마을로 간 사람도 좀 있어(78세 남성, 신인동거주)

정이 넘치는 동네가 되길...

지역민들은 오랫동안 살아왔고, 지금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지 않고 살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동네의 ‘정’이 그리울 것 같다고 한다. 그래서 이사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살겠다고 한다. 예스러운 분위기와 함께 살아온 동네 주민들과의 의지하면 살아온 세월에 대한 정이 있는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신흥동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인심이 좋고, 제일 살기 좋은 데가 신흥동이라고 했어요(59세 여성, 신인동거주)

난 여기를 떠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지금도 여기서 그냥 뿌리내리고 살다가.....오래 살아왔으니깐. 뿌리내리고 살아 왔으니깐. 나이 들었지. 50여년 이상을 살았는데, 왜냐면 다시 가서 사귀어야 하잖아, 사람들을. 지금으로서는 그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냥 신흥동에서 살다가 남은 여생 살다가 가지, 어디로 가기가 싫다고(72세 남성, 신인동거주)

저야 여기서 말이 35년이지, 저는 제 인생을 여기서 살았는데, 정이 많고, 내 슬픔 남의 슬픔 할 것도 없이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 역시도 내가 여기 살면서 동생도 교통사고로 죽고, 나도 그런 아픔을 겪었는데 아픔의 정서는 참 많아요. 그러니깐 서로 동지들, 같이 울어주는 사람(59세 여성, 신인동거주)

여긴 달동네인데도 인심도 좋고, 그냥 괜찮은 데라고, 대전역도 가깝고, 살기에는 좋은 것 같아(78세 남성, 신인동거주)

인심도 좋고, 마음도 좋았지. 참 네 것 내 것 없이 살았는데.....내가 우리 집에 밥이 없어서 저쪽 집가서 밥 먹어도 말 없었다고,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고 (70세 남성A, 신인동거주)

또 다른 시작, 새로운 변화의 공간

대동과 신흥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되었고, 진행 중인 곳도 많다. 앞으로 대동과 신흥동은 주거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질 것이다. 이제 대동·자양동·신인동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변화의 공간이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공간으로 존재할 것이다.

대동의 하늘공원은 십여년전 재개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마을 전체가 술렁거렸다. 서울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려고 모여들고 사람들은 하나둘 동네를 떠나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성이 없어 재개발이 무산되자 동네는 곧 황량해져갔다. 골목에 쓰레기가 쌓이고, 병들고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의 한숨이 깊어졌고, 일이 없어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많

아졌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며 동네를 되살려 보자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우리 안에서 힘을 모으자고 했다. 집의 낡은 지붕이 고쳐지고, 비 오면 오르내리기 어렵던 경사 길에는 계단이 놓이고, 쓰레기장이던 공터는 공원이 되었다. 한발 더 나아가 생활터전이 되는 공동사업장을 만들고 일거리도 함께 찾아 나섰다. 그러자 희망이 없던 달동네 골목에 웃음과 따듯함이 채워져 갔다.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동네로 변화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변화과정에 외부 사람들의 도움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동네 사람들 마음속 작은 희망들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늘동네 아이들의 희망도 함께 자랐고 있다(『내안에, 우리 안에 파랑새』 중에서).

제3절. 공동 · 어은동 · 신성동 지역

1. 거주민의 생각과 삶

자유와 젊음의 공간 공동

충남 서산 출신으로 고등학생 때부터 대전에 거주한 A씨(남, 40대, 과거 공동에서 10년 거주)는 학창시절 농경지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상업시설로 바뀌는 공동과 어은동의 변화과정을 지켜보았다면서, 학창시절 공동 주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느꼈던 것을 회고하였다.

공동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주변의 하숙집 또는 자취방주인 집, 그리고 식당 사장님들께서 도와주시고 챙겨주셨던 추억들을 하나 이상씩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 끼니를 챙겨주시거나 아파서 움직이기 힘들 때 약과 죽을 챙겨주신 미담도 있습니다, 또한 밥값이나 방 값을 깎아주시거나 미뤄도 이해해주시던 기억도 많습니다. 학과나 동아리 행사를 하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축제 때 인근 주민뿐 아니라 대전 전역의 시민들이 동참해 주시고, 학과나 동아리 행사에 협찬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도로와 공원 그리고 음식점까지 진출하여 함께했던 데모와 행사 등도 기억에 남습니다.

B씨(여, 40대, 어은동 거주)는 공동에서 보낸 학창시절을 회고하며 자유로운 공간으로 공동을 표현하였다.

대학을 다니면서 공동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공동은 ‘대학생=자유로움’이라는 공식으로 보행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보행자전용로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동의 메인 거리를 정비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은 차 없는 도로를 생각했으나, 예전과 다를 바 없이 인도와 차도의 경계를 없애고 주차를 못하게 했을 뿐입니다. 보행자 전용로로 활용한다면 안전은 물론이고, 많은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고, 정보와 나눔의 장이 될 수도 있는데, 상인들의 목소리에 양보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공동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이들에게 공동은 주거개념의 의미를 넘어 젊은 시절의 추억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C씨(남, 30대, 어은동 거주)는 자신이 갖고 있는 공동의 추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대학생들에게 공동은 1990년대 중반에 ‘새동네’ 라는 별명을 가진 동네로 불렸습니다. 새롭게 조성된 공동의 대학 문화는 새내기들에게는 설렘의 공간이자 재학생들에게는 새내기들의 설렘을 친숙함으로 이끄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로데오 사거리, 당시 별칭으로 ‘방향 사거리’ 가 있었는데,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거리의 명칭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했던 젊음에서부터 개인적 회로애락을 공유했던 젊음까지 공동은 당시 청춘의 삶을 녹여내는 일종의 용광로였고, 방향사거리는 그 용광로의 쇠물을 모임공간으로 이어주는 허브였습니다. 대학 선후배의 엄격함과 따스함이 고스란히 술잔을 통해 전달되고 그 술잔은 어느새 자정이 지난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주머니 사정 때문에 선배들의 공동 자취방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전으로 대학을 진학하면서 공동에서 거주한 D씨(여, 20대, 과거 공동에서 8년 거주)는 공동이 다른 개발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려하였다. 유성안의 구도심 형성을 걱정하는 것일까?

공동의 많은 부분이 원룸촌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로 학생들이 거주하다보니 다른 동네 비해 건물의 개발이 잦은 편인 것 같습니다. 주로 새 건물을 선호하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는 학생들은 2008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궁동, 신 궁동(충남대 정문 인근), 궁동으로 이주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거나 개인의 선호에 따라 궁동을 벗어나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봉명동, 장대동, 죽동, 도안동 등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주변에 새로 개발된 위의 언급한 동네에 비해 궁동은 조금 낡고, 어두운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학·연·관의 조화 공간 어은동

어은동은 대전에서 가장 다원성을 가진 동네이다. 대덕연구단지에 근무하는 이들의 고향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되는데, 이들은 연수 또는 유학을 외국인들이다. 동네에 이들이 즐겨 찾는 바(bar)가 있는데, 이국적인 향취를 충분히 느끼게 해 준다. 궁동엔 이슬람사원도 있다. 제법 신도도 많아 보이고, 가끔 갑천에서 야유회를 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어은동 주민의 주 거주 지역은 한빛아파트이다. 4천 세대가 넘는 주민이 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다. 초기 한빛아파트 입주자들의 직업은 주로 교수, 연구원 등이었다. 지금도 반 정도는 거주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녀교육을 위해 젊은 세대가 이주해 오고 있는 추세이다. E씨(여, 40대, 어은동 거주)는 어은동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어은동, 특히 한빛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평준화 된 학력과 수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 이주민들 많아 개방성을 갖고 있는 동네인 것 같습니다. 생활수준도 비슷하여 공감대 형성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교육환경도 잘 갖추어져 있고요.

아울러 어은동에는 유성구청을 비롯한 문화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주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주고 있다. F씨(여, 40대, 어은동 거주)는 주변에 부대시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것에 대해 무척 만족하고 있었다.

인근에 관공서, 박물관, 과학관, 유성온천, 유성5일장, 중앙과학관, 월드컵경기장 등이 있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림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고, 가을에 열리는 국화꽃 축제 또한 가까이에서 보며 즐길 수 있습니다. 충남 대학교에 있는 아파트 뒷산을 이용하여 산책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한빛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독서실과 도서관 등이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은동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에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 나름대로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로 교통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통이 불편합니다. 출퇴근시간에 카이스트 정문에서 어은동 사거리까지 카이스트 출근자들이 두 개의 차선을 점유하고 있어 다른 차량들은 한 개의 차선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버스노선이 다양하지 못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직접 가는 버스가 없고, 그나마 있는 108번 버스는 충남대 농대 종점에서 충남대학교를 통과하여 월평역에 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급하게 지하철역을 가려고 하면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데 택시를 타면 거리가 짧아 가끔 운전자들이 짜증을 냅니다. (G씨, 여, 40대 어은동 거주)

이렇게 거주환경에 대해 약간의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어은동 거주자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들이 생각하는 어은동의 특성은 H씨(여, 40대, 어은동 거주)의 답변에 잘 요약되어 있다.

어은동은 학·연·관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으로도 대학문화와 다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거점대학이라 불리는 종합대학과 과학 중심의 연구원 및 박물관, 지자체의 핵심인 구청이 근접함으로써 필요한 협업이 가능하며 대학 등에서 배출되는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이 비교적 적고, 관련분야 고용측면에서 장점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전시 타 지역 주민들이 어은동 거주자에 대해 고향력자 거주지역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어느 정도 편견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어은동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한 I씨(여, 40대, 궁동 거주)와 J씨(남, 40대, 궁동 거주)는 부부다. 이 부부는 17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이들은 어은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2000년도 어은동으로 이사를 와서 벌써 17년째 식당을 하고 있네요. 처음 칼국수 값 3000원으로 시작하여 6000원을 받으니 우리의 생활수준이 높아졌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고 봐야하나요? 저는 대전의 5개 구에서 모두 생활을 해보았지만 유성구가 제일 살기 편한 것 같아요. 어은동으로 이사를 오기 전에 분당에 잠시 살았었는데 사람들의 생활수준이나 사고력이 그곳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단 경제적 소비성에서는 분당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대전 어은동은 총 수입에서 자녀들 교육비에 거의 올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본인들의 노후나 재테크에는 인색하더군요. 여가 생활도 거의 없고 소수의 사람들만 수영이나 볼링, 테니스, 탁구, 조기회 등.....분당은 17년 전 자녀들 교육비와 재테크에 많은 경비와 시간을 투자하더라고요. 주말이면 계모임이나 개인적 술자리보다는 가족과 함께 가까운 공원이나 문화생활을 즐겼어요. 이런 점에서 약간의 문화 차이를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전도 자기 지향적 생활로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은 의식이 많이 바뀌어 자녀들 교육은 물론이고 취미 생활도 다양해져 동호회 모임도 활발해지고 있어요.

어은동이나 들려볼까? 부동산 한번 가보자 해서 찾아갔더니 마침 찾던 가게가 나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어은동에 아무런 연고도 없이 낯선 곳에 우리는 정착을 했습니다. 17년 전 만해도 칼국수집 삼겹살집 등 고깃집들이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님들을 비롯하여 카이스트학생들과 충남대학교학생들이 단체로 무리지어 다녔고 게다가 한빛아파트 주민들, 교회반모임, 성당반모임, 초등학교 중학교 엄마들의 반모임, 학년모임이 많아 점심때면 이 식당저 식당 손님들로 많이 붐볐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해 두해가 가면서 여러 이유로 서서히 단체손님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은동을 벗어난 타 지역에 맛집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어은동거리엔 그 전보다 많이 한적합니다. 소비자들은 먹거리가 많아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판매자의 입장에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학과 자연의 조화 공간 신성동

K씨(여, 50대, 신성동 거주)는 신성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특성과 신성동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거주환경·자녀교육여건·교통·부대시설 등에 대해 어은동 주민들이 느끼는 생각과 별 다를 바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는 대전시 유성구 신성동 연구단지 내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는데, 입주 시 연구원 주택조합 또는 충남대 교수 아파트, 연구원 사택으로 이루어져 비교적 학력들이 높고 서울에서 내려온 입주주민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이 비슷하므로 자녀양육에 있어 큰 걱정이 없습니다. 처음 아파트 단지가 생성될 때부터 대규모로 입주한 것이 아니라서 주변 부대시설 즉 큰 병원, 은행, 쇼핑몰 등이 없고 버스노선이 한정되어 있어 자차가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최근 신성동은 30-40대 주민이 확실히 감소하는 것 같고 외국인의 거주가 늘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신성동에 거주하는 유성구청장을 면담하였다. 그는 유성의 이미지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과 신성동에 대한 느낌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유성은 유성온천 때문에 과거 휴양도시 또는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지향적인 유흥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저는 이제 유성의 이미지가 힐링, 재활치료 등의 분위기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젊음의 거리, 온천4가 공연, 주변 대학의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지역사회 문화(지역공동체)의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신성동에 거주하는데 신성동은 숯골냉면 등이 유명하지 문화적 변화에 관심이 적은 동네라고 보여집니다. 약간은 서울 냄새가 나는 동네이지요. 이웃간에 간섭이 없는 것은 좋은데 약간은 배타적인 면도 느껴집니다. 아직도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대전인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난 고향이 어디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여건이 좋고 집값도 신개발지역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동네입니다.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L씨(여, 50대, 신성동 거주)는 망설임 없이 신성동의 특성을 과학특구도시로 규정한다. 주변에 대학·연구소 등이 밀집해 있고, 여기에 다니는 이들이 주로 신성동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성동의 특성은 과학특구 도시입니다. 주변에 각종 국책연구소 사기업 연구소들과 카이스트 충남대로 둘러싸여 있어 산학협력 과학연구 집중도시라 생각합니다. 장점은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실제 석, 박사급 인구수가 우리나라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육열 또한 높아 자녀들이 명문학교 진학률이 높으며 거의 대부분이 연구소에 재직 중인 봉급생활자이므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단점은 동네가 대덕특구로 지정되어 있어 큰 발전이 없으며 골목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상권형성도 원활치 않아 물가가 비쌉니다.

M씨(여, 40대, 신성동 거주)는 신성동을 과학과 관련지으면서도 농촌 분위기가 느껴지는 쾌적한 환경을 가진 동네라고 강조하였다.

신성동의 큰 장점 중의 하나는, 주변의 푸르름이라 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도 녹색의 푸르름이지만 신성동 주변이 녹지공간, 예를 들어 체육공원, 아파트 뒷동산, 성덕중학교 옆의 산, 한화연구소 뒤편의 산 등에 둘러싸여 있어서 삶의 여유와 마음의 평화로움이 깃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도 어느 시간대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체육공원을 걷거나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녹지환경 때문에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주변에 오락이나 유흥 시설이 거의 없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2. 대전 도시정체성에 대한 인식

궁동·어은동·신성동 거주민들은 대전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지만, 대체로 교육과 과학의 도시, 행정의 중심지, 교통도시

등의 키워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같은 이슈에 대해서도 개인별로 해석은 다 제각각이었다는 점이다.

교육과 과학의 도시

N씨(여, 50대, 신성동 거주)는 자녀교육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전을 교육과 과학의 도시라고 표현한다.

대전은 교육과 과학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부모님의 학력이 높아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남다르고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연구기관들이 밀집해 있어서 학교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며, 부모님이 1일 1교사로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하며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전을 과학도시라고 표현하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다른 기능을 포함한 복합도시로서의 특징을 강조하는 입장도 있었다. O씨(남, 40대, 신성동 거주)는 대전을 과학도시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하였다.

언론과 많은 연구에서 대전을 과학도시라고 이야기하는 데 일단은 동의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과학에 특화된 많은 연구시설, 고등교육기관 그리고 관련인력들이 있고, 정책적인 계획과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도시로서 과학뿐 아니라 교육, 행정, 건강한 문화도시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정체된 발전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도 나타났다. P씨(여, 40대, 어은동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거주)는 대전의 정체성에 대해 “발전이 정체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특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세종시의 발전과 더불어 전세가가 저렴한 세종으로 우수한 세원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가를 잡을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해야 하는 이유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대형 마트 또는 연구기관 등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 실제적인 과학도시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부상열차도 엑스포 과학공원 근처에서 어린이 방문객용 상품으로 있을 뿐, 실제적 도입은 인천에서 먼저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유성만의 과학도시

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Q씨(여, 50대, 신성동 거주)는 대전의 정체성을 과학도시에 대해 유성만의 과학도시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과학도시임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은 유성구뿐인 것 같아요. 대전은 구마다 너무 발전 속도가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특히 처음 거주한 곳이 대덕구 중리동인데 가끔 지나가다보면 24년 전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원도심 개발을 많이 해서 중앙시장 쪽이 그래도 많이 정비되고 깨끗해졌지만 그래도 주변의 청주나 세종 천안등과 비교했을 때 약간 세련미나 청결함이 떨어지는 듯합니다.

교통 중심 도시

R씨(여, 50대, 신성동 거주)는 대전의 정체성으로 과학도시보다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전의 정체성은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전은 우리나라 중간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도권이나 부산 등으로 가기가 수월합니다. 그러나 원도심의 몰락으로 그 기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을 과학도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는 유성구 때문인데 대전을 과학도시라 하려면 전반적으로 과학단지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구가 대전에 속해 있으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나 조금은 부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방과 수요’

S씨(여, 40대, 어은동 거주)는 대전의 정체성을 ‘개방과 수요’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언급하면서 대전의 정체성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전의 정체성은 개방과 수요라고 봅니다. 근대 철도개설로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전달했으며, 한국전쟁 기간 중에는 임시수도로 많은 피난민들을 받았고, 현대에는 과학단지 조성으로 전국의 과학 인적 자원 및 기술 집결이 집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이지요. 오랫동안 대전시의 정체성을 논의하는 노력이 있어 왔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일회적인 개발을 넘어선 지속적인 대전의 정체성 확립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필요

T씨(여, 40대, 어은동 거주)는 대전이 과학도시의 특성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였다.

대전은 역사와 전통이 짧아 특색 있는 관광자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한 도시를 정해 관광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대전은 특별한 자원, 예를 들어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은 특별한 산업단지도 없고, 시민들의 유락시설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대전을 과학도시라고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하는데, 과학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합니다. 4월에 과학의 달 행사로 몇 개의 연구소들이 참여하는 연구소 홍보와 학생들이 중앙과학관 광장에서 여는 체험부스가 전부입니다. 대전 시민 뿐 아니라, 전국에서 대전을 찾는 학생들을 수용하여 과학체험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학여행을 와서 과학관 전시장을 둘러보고 가는 게 전부가 아닌, 여러 가지 체험 중에서 다만 몇 가지라도 직접 실험 등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전의 특성을 과학도시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U씨(여, 40대, 어은동 거주)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대전이 과학도시다” 라는 타이틀은 대덕연구단지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작점에서 첨단학문들의 집합지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측면에서는 대표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과학도시로 대표하는 대덕연구단지는 대전의 발전에 무엇을 기여하였을까요? “대전은 과학도시? 왜? 대덕연구단지가 있어서... 아~ 그렇구나~” 는 20세기의 사고로 생각됩니다. 21세기인 현재는 과학도시로서 대전이 가진 특징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학도시의 대표격이었던 EXPO과학공원의 첨단 시설이 있었음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결국은 타 용도로 전향되는 것은 과학도시를 대표하는 연구단지의 역할이 부족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의 중심지

신성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V씨(남, 40대, 신성동 거주)는 대전의 특성을 과학도시보다는 행정의 중심지로서의 특징을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대전의 정체성은 국토의 중심이고 교통의 요충지이며 3청사와 세종시가 가까이 있어서 행정의 중심지라고 생각됩니다. 연구단지내에서 거주하다 보니 과학도시라는 말에는 일정정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요즘 타 지역에 많은 과학단지가 생겨서 대전을 과학도시로서 독보적이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대

전역에 KTX가 경유해야 국토의 중심지가 되리라 생각되고, 상업개발시설 지역과 보존지역을 구분해서 가급적 도시의 균형을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W씨(여, 20대, 과거 궁동에서 8년 거주)는 대전을 ‘살기 좋은 도시’로 표현한다. 시골에서 살다가 대학 재학 이후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는 대전에서의 삶이 만족스럽다고 답하였다.

대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대전은 타 도시에 비해 굉장히 평화롭고 조화로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전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대전에 자주 방문한 이들이라면 대전의 특성이 ‘살기 좋은 도시’라는 데에 공감할 것입니다.

제 4 장

결 론

세상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어떤 도시의 중심지 또한 국가 정책이나 지방 정책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 사람들의 이합집산이 일어나면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과 재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도시의 지형 자체가 변하기도 한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도심의 번영과 쇠퇴, 그리고 이동은 어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세월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어떤 지역에서 거주하였거나 활동했던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변화를 어떻게 기억하고, 현실적으로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그 지역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 등이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추적해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다. 지역 혹은 지역민의 정체성 또한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흥동과 은행선화동은 대전의 대표적인 원도심의 하나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둔산 지역이 신도심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그 이전의 대전의 중심지로서의 영광은 뒤로 한 채 점차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시청과 법원, 검찰청 등의 이주와 함께 둔산 지역이 대규모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면서 이 지역의 쇠퇴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하지만 적절한 계획이나 대책은 부족했다. 이 지역의 주민이나 상인들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여전히 삶의 터전을 지키며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떠난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이 대흥동과 은행선화동의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현재를 살아가면서 몸으로 체현하고 있는 정서는 무엇인지, 어떠한 미래를 꿈꾸거나 바라고 있는지를 기록한다. 곧 이 지역에서 살았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흥동과 은행선화동 주민으로서의 지역정체성과 대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추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령과 직업군 등을 두루 고려하여 30여명을 후보로 한 후 인터뷰가 가능한 사람을 20명으로 압축한 후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들의 기억과 일상, 그리고 희망사항을 정리해보았다.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

조사결과 응답자들은 대흥동과 은행선화동에 대하여 문화와 생활의 중심지였다는 자부심을 과 기억 속의 정체성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움과 회생을 고대하는 이들은 과거 충남의 도청소재지로서의 대전이 더 좋았다면서 대전이라는 도시를 푸근하고 인정 많은 도시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원도심 공동화를 깊이 느끼면서 이에 대한 박탈감과 정책 불신을 지니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세종시의 발전이 대전시에 상생발전의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동시에 내비친다.

대동과 자양동, 신인동 지역은 원도심의 주거 밀집 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 살아서 낙후된 또는 빈곤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대동과 신흥동은 도심속 오래된 주거지역으로 주거환경이 낙후되고, 주거비가 저렴하여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는 곳이다. 이로 인해 빈곤, 빈민촌, 저소득, 주거 낙후지역 등의 낙인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처럼 낙인적인 지역이미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부정적이지 않지만, 대중교통 체계가 발달하였고 대학 등 학교가 많다는 것에서 잠재된 가능성을 찾는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기존의 지역 이미지에 대해 지역개발, 주거환경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변화시키려는 열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조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었다. 신흥동과 인동이라는 전통적 기반이 신인동으로 통합된 행정체계에 대해서는 이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그런 것보다는 좋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인심 좋고 정이 많은 동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온정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

궁동·어은동·신성동 주민들은 대체로 자신들의 삶에 만족해하는 느낌을 받았다. 동구, 중구, 유성구 거주민들을 함께 진행된 심층면접(FGI) 자리가 있었는데, 신성동에서 20년을 거주한 X씨(여, 40대, 도룡동 거주)는 “당진이 고향인데, 대전은 정말 오고 싶었던 도시이고,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동구에 거주하는 Y씨(여, 60대 원동거주)는 “유성구와 서구는 깨끗하고 조용한 ‘신선들이 사는 동네’ 같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

짧은 대화에서 대전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같은 유성이라는 공간 내에서도 구도심이 형성되고 있다는 불안감도 내보였다. 궁동, 어은동, 신성동이 과학 특화 지역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으며, 대전이라는 도시의 정체성도 과학도시로 규정되는 데에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전의 발전이 정체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면서, 대전이 갖고 있는 과학과 교통의 자원들을 더 활용할 것을 주문한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대전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는 ‘무엇이 대전 시민을 위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앞으로 더 많은 직종과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머리와 가슴속에 남아있는 대전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말하다 보면 대전 시민들의 특성이랄까 정체성이 좀 더 명료하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공은미 외 (2009). 도시성장에 따른 도시 공간구조 및 기능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0(3), 19-32.
- 권창기, 이재호 (2004). 도시이미지에 따른 도시운영 전략. <한국공공관리학보>, 18(1), 117-135.
- 김기탁 (2011). 지역정체성과 팀정체성, 재관람의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4), 404-413.
- 김은성 (2013). 대전 원도심 내 지역문화자원과 연계한 충남도청이전부지의 문화적 활용방안 및 계획.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혜 (2013). 1980년대 에도도쿄학과 도시정체성의 재구성. <도시연구>, (10), 69-98.
- 김주원 (2003). 지방자치단체 정체성 확립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209-235.
- 김진애 (2009). 《도시 읽은 CEO》, 21세기북스
- 김학용 (2014). 지역사회의 정체성이 문화적 갈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갈등관리연구>, 1(2), 225-256.
- 대전광역시 (2015). 《2015 대전의 사회지표》.
- 대전광역시 (2016). 대전시 도시마케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브랜드 시민인식조사 보고서.
- 대한지리학회 (2015). 《한국지리지 대전광역시》.
- 박노동 (2014).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방안과 과제>. 대전발전연구원 정책보고서.
- 박삼철 (2012) 《도시예술산책》, 나람북스
- 박세훈, 이영아 (2010). 조선족의 공간집적과 지역정체성의 정치: 구로구 가리봉동 사례연구. <다문화사회연구>, 3(2), 71-101.
- 서용모 외 (2010). 도시 정체성을 통한 도시마케팅 전략 도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6), 297-306.
- 솔밭, 패트릭 (2014). 《대동에서》, 대동작은집.
- 송부영, 고윤수 (2016). <르 모퉁이> 제1호, 대동작은집.
- 신예철 외 (2011). 도시정체성과 도시브랜드의 영향관계 및 인지특성 분석에 따른 경기도 시군의 유형분류 연구. <국토계획>, 46(5), 5-18.
- 심재권, 황정희 (2014). 대학생의 지역정체성에 대한 연구: 지역학(천안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441-464.
- 양기근 외 (2007). 지역학의 연구동향과 정책적 과제: 경남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비교정부학보>, 11(2), 237-264.

- 양병창 (2008). 대전 · 충남 지역 주민의 자기개념과 지역 정체성 분석. <사회과학연구>, 18, 81-112.
- 오장근 (2011). 한국 도시공간의 문화 정체성과 서사성: 서울, 안동, 광주, 전주를 분석대상으로 한 기호학 기반의 학제적 접근. <기호학 연구>, 30호, 183-219.
- 오재환 (2011). 부산학, 지역 정체성 재발견과 미래 발전의 플랫폼. <BDI 정책포커스>, (111), 1-12.
- 윤성원 (2012). <도시정체성의 해석방법과 확립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택림 (2008). 과천 신도시의 주민 되기-구술생애사를 통한 지역정체성의 형성 분석.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 307-345.
- 이아름, 박소현 (2013). 원도심 내 공공사업에서의 지역정체성 구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13 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33(2), 261-262.
- 이정수 외 (2011). 도시정체성 분석을 통한 도시디자인 추진전략 수립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6), 5-15.
- 이정훈 외 (2007). <도시 브랜드 정체성 개발 방법론 연구: 경기도 주요 도시 사례>.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 이진석 (2010). 부산 원도심 현장학습을 통한 도시 정체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진지리학회지>, 20(4), 195-206.
- 임병조 (2009).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제도화. <대한지리학회지>, 44(1), 89-104.
- 임춘래 (2015). 《대동지》, 대전광역시 동구 대동주민센터.
- 정선기 외. (2014). 마을공동체의식과 지역사회 관계 분석: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3(4), 103-121.
- 정선기 (2015). 생활권 분화 따른 대도시 밀류(Milieus)의 공간적 불평등. <사회과학연구>, 26(2), 315-341.
- 조일환 (2013). 지역 이미지, 리얼리티 그리고 지역정체성의 혼란 : 화성 동탄 신도시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4), 697-711
- 최금애 외 (2004). 1990년대 대전의 신도시화 과정과 도시공간의 변화.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1), 67-82.
- 최병목 (1999). 인천시민의 특성별 지역정체성 비교. <한국인구학>, 22(1), 93-121.
- 황의창, 여홍구 (2013). 대전광역시 원도심과 신도심의 형성과 토지이용 특성 비교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3), 109-128.
- 황익주, 김기호 (2004). 연구논문: 프로스포츠 지역연고제와 도시민의 지역정체성: 성남시의 사례연구. <비교문화연구>, 10(1), 105-145.
- Arreola, D. D. (1995). Urban ethnic landscape identity. *Geographical Review*. 85(4): 518-34.

■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III) ■

- Chow, K. & Healey M. (2008). Place attachment and place identity: First-year undergraduates making the transition from home to university.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8: 362-372.
- Gleason P. (1983). Identifying identity: a semantic history. *The Journal of American History*, Vol. 69, No.4.
- Glaeser, E. (2011). *Triumph of the City: How Our Greatest Invention Makes Us Richer, Smarter, Greener, Healthier, and Happier*. 이진원 譯(2011). 《도시의 승리》. 해냄.
- Haapala, A. (2003). The Urban Identity: The City as a Place to Dwell, ed. Virve Sarapik, Kadri Tüür, *Place and Location III*, Estonian Academy of Arts.
- Halpenny E. A. (2010). Pro-environmental behaviours and park visitors: The effect of place attachmen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 409-421.
- Lewicka M. (2008). Place attachment, place identity, and place memory: restoring the forgotten city past.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8: 209-231.
- Lynch K. (1960). *The Image of the City*. USA: The MIT Press.
- Milligan, M. J. (1998). Interactional past and potential: the social construction of place attachment. *Symbolic Interaction*. 21: 1-33.
- Najafi, M. & Shariff, M. K. M. (2011) The concept of a place and sense of place in architectur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and Social Sciences*. 6(3): 187-193.
- Relph, E. (1996). Reflections on Place and Placelessnes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0: 1-10.
- Riley, R. B. (1992). *Attachment to the Ordinary Landscape, in Place Attachment*, ed. Irwin Altman, I. & Low, S. M. New York.
- Scannell, L. & Gifford, R. (2010). *Defining place attachment: A tripartite organizing framework,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Victoria, Canada.
- Seamon D. & Sowers J. (2008). Place and Placelessness, Edward Relph, ed. Hubbard, P.; Kitchen, R.; Vallentine, G. *Key Texts in Human Geography*. London: Sage, 43-51.
- Sonal, S. (2014). Reclaiming Urban Identity: Framework for Urban Regeneration of Patna City Area.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Technology*, Vol.1(2).
- Castells, M. (2001). Identity and Meaning in the Network Society (<http://globetrotter.berkeley.edu/people/Castells/castells-con0.html>).
- Kaymaz, I. (2013). Urban Landscapes and Identity, inTech (<http://dx.doi.org/10.5772/55754>)
- Stojkov, B. (2012). Urban identity as a sense and spur of development,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chitecture & Urban Design Proceedings 19-21 (www.icaud.epoka.edu.al)

정책연구보고서 2016-27

대전 도시정체성 재정립 연구(Ⅲ)

발행인 대전발전연구원장

발행일 2016년 8월

발행처 대전발전연구원

302-846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287-2)

전화: 042-530-3593 팩스: 042-530-3528

홈페이지 : <http://www.djdi.re.kr>

인쇄: 중부인쇄기획 TEL 042-253-7537 FAX 042-253-753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대전광역시의 정책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